건축사

korean architects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칼럼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에 대한 소감

시론

이런 집을 지어보라!

특집-2008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작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
아임삭 오창공장
김포수기마을 힐스테이트
동백 아펠바움
백남준 아트센터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
관악산 휴먼시아
루트하우스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작

474

http://www.kira.or.kr

200810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8년 10월호 통권 474호

44
49
54
62

Contents

칼럼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에 대한 소감	이규환	14
시론	이런 집을 지어보라!	김인환	16
건축만평		유원재	18
특집_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19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_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		이성관	40
아임삭 오창공장		신춘규	48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이승연	52
동백 아델바움		최삼영	58
본 상_백남준 아트센터		김병현	66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윤세한	72
관악산 휴먼시아		박용민	78
루트하우스		곽희수	84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우수상, 특선			91
연재 BiST, 건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새바람(6)		윤종호	107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4)		손장복	115
건축마당 협회소식			118
건축계소식			121
통계			126
보고서			128
회원갤러리		박성인	131
지상강좌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임정의	132
해외잡지동향			135

발 행 인 한명수
편 집 위 원 김형수 · 백민석 · 유대근 · 임영석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 //www.kira.or.kr
인 쇄 (주)현대문화사 Tel : (02)2278-4482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건축사
korean architects
2008 10 474호
차례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68
74
82
88

korean architects

Vol. 474
October 2008

Column			
Opinion about 'KAFF 2008'		Lee, Gyoo-Whan	14
Focus			
Build a house like this!		Kim, In-hwan	16
Cartoon		Yoo, Won-jai	18
Special_Issue_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8			19
Grand Prize_	JoManSik Memorial Hall & Westminster Hall	Lee, Sung-kwan	40
	Atmsak Ochang Factory	Shin, Chun-gyu	48
	Gimpo Sugi-Maeul Apartment	Lee, Seung-youn	52
	Dongbaek Apelbaum	Choi, Sam-young	58
Superior Prize_	NAM JUNE PAIK Art Center	Kim, Byeong-hyun	66
	Walkerhill Hotel ACADIA	Yoon, Se-han	72
	Gwanak Humansia	Park, Yong-min	78
	Route House	Kwak, Hee-soo	84
Prize Work_	The Submitted part		91
Serial			
BiST, New Wave of Building integrated Solar Thermal System(6)		Yoon, Jong-ho	107
A Story about Lighting in the Future (4)		Sohn, Jang-bok	115
Architects' Plaza			
Kira News			118
Archi-Net			121
Statistics			126
Report			128
Gallery			131
Lecture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Lim, Chung-eui	132
Overseas Journal			135

Publisher Han, Myung-soo
Assistant Editor Kim, Hyung-soo & Baek, Min-seok & You, Dae-geun & Im, Yeong-seok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이규환 / 정회원, (주)제노 건축사사무소
by Lee, Gyoo-Whan, KIRA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2000 문화연대 도시건축네트워크 운영위원
- 2003~2006 협회발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
- 2006~2007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전시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에 대한 소감

Opinion about the KAFF 2008

산업전시회를 규모에 따른 분류와 기간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보곤 하는데 첫째, 규모에 따른 분류는 소규모전시회와 중규모전시회 및 대규모전시회 그리고 초대규모전시회 등 4종류로 나눌 수 있고, 기간에 따른 분류는 1단계전시(1~3년), 2단계전시(4~5년) 및 3단계 전시(6~8년)와 4단계전시(9~10년 이상)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전시기획에 있어서 거의 공통된 분류법이긴 하지만 규모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다소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특정 전시장의 규모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소규모전시회는 약 5,000㎡~8,000㎡ 미만, 중규모전시회는 8,000㎡~15,000㎡ 미만, 대규모 전시회는 15,000㎡~30,000㎡ 미만 규모이고 마지막 초대규모전시회가 30,000㎡ 이상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법을 개발한 이유는 각각의 전시회가 나가야하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전시회는 주로 신생전시회에 해당하며 중규모전시회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속하게 된다. 기간은 보통 첫 전시회를 개최한 후 3년을 전후하여 중규모전시회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단순히 규모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의 성격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주어야 한다. 만일 이 기간동안 전시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없다면 전시회의 목적 및 성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개최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산업전시회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개최 3년에서 5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성과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지난 10월7일부터 5일간의 진행으로 3회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약 8,000㎡의 전시장을 사용하였다. 규모에 있어서는 중규모전시의 초입에 들어왔으며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보면 2단계 전시의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시목적과 성격도 제 위치를 찾은 상태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건축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국민 홍보, 건축전문가들 간의 건축산업네트워크 구축, 건축문화산업 기술력 강화 및 정보교류 촉진 그리고 국내외 새로운 시장개척 및 활성화 지원 등 전시회가 내세운 공공적인 목적은 물론 협회 자체의 목적인 '수익과 홍보 그리고 축제' 를 충분히 달성한 전시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공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은 2가지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방송사와의 공동주최였고, 다른 하나는 전시사무국 만으로 전시회 준비를 시작한 점이다. 언듯 보기에는 바람직한 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막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도가 꼭 성공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중 방송사와의 공동주최는 그들의 인지도와 전시개최 경험 및 실행능력과 의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그에 걸맞는 역할을 배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방송의 가능성을 너무 믿고 공동주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너무 쉽게 배분해 주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시규모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초기에 기대했던 계획들을 변경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상호간의 신뢰 구축에 역효과를 낸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전시사무국의 노력으로 전시회 개최 준비를 시도한 것은 앞으로 반드시 가야할 방법이긴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즉, 산업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주최 책임자와 전시기획자 그리고 전시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시주최자인 협회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전시기획자인 운영위원회와 큐레이터의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과 발전방향 제시, 그리고 전시사무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목적하는 전시회로 한 단계씩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외부적인 변화 요인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사무처 직원의 노력만으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는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실수들을 범하였고, 뒤늦게 부분적인 보완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시회 충실도 면에서는 이미 많은 헛점을 보일 수 밖에 없었으며 직원들 또한 심한 고생을 해야만 했다. 이 역시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앞선 2가지의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이 부분도 2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 전시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정성이 예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이른 새벽부터 전시장으로 출발하신 회원님이 계신가 하면, 어느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전체 회원수의 90%가 넘는 참석율을 보이며 하나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려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전시품들을 꼼꼼이 살펴보시고 강연회에 열의를 갖고 참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시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제3회 전시회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긍정적인 발견은 전시회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애초부터 관람객을 많이 모으는 대중전시회가 아닌,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문전시회임을 표방하며 만들어 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3회를 맞으면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관람객을 원하는 참가사가 있기는 했지만 1회와 2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참가사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전시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소중한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단답식 낱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시회는 자연스럽게 4~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어쩌면 전시회의 최종 존폐여부를 가려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건축전문가인 우리들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실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어느 전시회나 내면에 담긴 가장 큰 목적이 '단합' 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합' 을 통해서 전시회가 성공하던, 아니면 전시회 성공을 통해서 '단합' 을 이루던 우리는 분명 앞으로 몇 번의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의 발전 가능성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맞게 될 것이다.

건축계의 발전과 단합을 위한 소중한 시간, 한국건축산업대전이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3회 한국건축산업대전을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단답식 낱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시회는 자연스럽게 4~5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어쩌면 전시회의 최종 존폐여부를 가려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건축전문가인 우리들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실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인환 / 정회원, TAS 건축사사무소
by Kim, In-hwan, KIRA

약력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전 서울건축사회 간사, 서울건축사신문 편집위원장 등 역임
- 한전공주지사 현상설계. 토지공사 제주지사, 지리산 콘도미니엄

이런 집을 지어보라!

Build a house like this!

지나친 편리함이나 인테리어 등 보다는 가족의 단란과 행복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려해주면 된다.
집에서나마 가족의 단란을 도모하고
삭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집을 짓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집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본다.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주택건설경기는 특히 어렵다. 예전에는 지어만 놓으면 팔렸는데 최근에는 미 분양주택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비싼 분양가, 부동산관련 정책과 세금 그리고 주택수요가 한계에 다다른 것 등이 주요한 요인 같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집만을 짓는데다 시대변화에 순응하지는 않은 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열중하는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집이란…

원래 집이란 가족의 단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이다. 집은 삶을 즐기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다. 그런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주수단인 집이 이상하게 변질되었다. 본래 목적인 거주수단으로 보다는 부동산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즘사람들의 행태도 이상하지만 집을 짓는 건설회사는 더 이해할 수 없다. 요즘 건설 회사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인테리어, 거창한 주택전시관과 호텔에 버금가는 집기 등으로 치장 된 모델하우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외국어 이름(브랜드) 광고 등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는 우리의 정서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외국의 유명(?) 건축사가 설계했다는 것까지도 대문짝만하게 광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살림하는 집에 그렇게나 중요한 것들인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게 장식된 집이 보기에 좋기는 하다. 외국 건축사의 설계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집은 호텔 등과 같은 거창한 건물이 아닌 살림하는 공간이다. 살림하는 집에 호텔과 같은 생소하기만한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살림하는 집에는 호텔 등에서나 어울릴만한 지나친 인테리어나 집기로 치장하는 것 보다는 실용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외국인 건축사에게 맡겨야할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이나 주거문화가 그렇게 이국적이지도 않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한국인들은 김치나 된장 등을 좋아하고 뜨뜻한 아랫목과 창호지 등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그리워한다. 이 같이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와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한국의 훌륭한 건축사가 설계한 집이 더 한국인에게 좋은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비용만큼 집값을 낮추어 주거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미생활이나 건강을 배려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집도 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은 개성을 강조하고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는 시대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오직 그 변화에 둔감한 곳이 우리들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이다. 우리들은 그 동안 자신의 개성이나 가족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건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꾸미고, 설계하고, 만든 집에서 자신을 맞추어가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이고 대중적인 집보다는 개개인의 취향과 가족의 특성에 맞는 주문주택과 같은 집이 필요하다. 또 우리는 지나치게 편리함만 강조되고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치장된 집에만 익숙해 살아왔다. 이제는 우리의 집도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건축은 생활을 지배한다' . 이상하게 지은 집에서는 이상하게, 지나치게 치장된 집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경향과 개념에 순응할 수 있고 그런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리드하고 계도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한다. 아파트 생활자들의 대부분이 언젠가는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통계에 유의해야한다. 지나치게 편리하기만 한 것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지나치게 편리한 것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 '진정한 건축은 약간의 불편함 가운데 느껴지는 만족' 이라는 말이 있다. 약간은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고 더 인간적이다. 특히 살림하는 집은 지나치게 더운 것 보다는 약간은 싸늘하고, 리모컨 등으로 가만히 앉아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직접 몸을 움직이고, 손수 가꾸는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건축이 더 좋다. 최근에는 조망 좋은 고층아파트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도 있는데 전망 좋은 것이나 편리한 것도 한 때다.

차라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변화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집이 더 실용적이고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집이다. 그저 보기만 좋고 편하기만 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집이 좋은 집이다. 그러한 건축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 사람 사는 맛을 나게 한다.

생활을 리드하는 집

요즘은 삭막하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도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는 방한 칸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보니 형제애나 가족 간의 우애가 두터웠다. 그런데 그 때보다 훨씬 좋은 주거환경에 사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오히려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 집의 구조가 우리를 더 삭막하게 만든 것이다. 그렇잖아도 답답한 아파트에 각자의 방으로 구획되어 자기공간에만 틀어박혀있으니 얼굴 볼 시간도 대화할 기회도 없다. 도대체 부대낄 일도 없고 대화도 없으니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한다. 가족끼리 같이 운동도 하고, 온 식구가 함께 새나 애완견 그리고 꽃과 텃밭 등 취미생활을 하며 자연스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하다.

단지에 훌륭한 조경과 운동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제는 각자의 집에서도 자신만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특히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이러한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나치게 부동산적인 것이나 편리함 특히 지나친 인테리어, 조망 등을 조금만 희생시키거나 새로운 차원의 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에서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나친 편리함이나 인테리어 등 보다는 가족의 단란과 행복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려해주면 된다. 집에서나마 가족의 단란을 도모하고 삭막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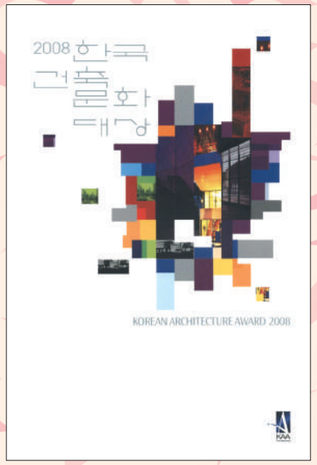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집을 짓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집이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본다.

유원재 / www.darchi.net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사무소 다건축 대표
- 한국예술종합학교 튜터

건축만평은 회원들의 열린 마당입니다. 이 난은 우리 협회의 공식적 취지와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자유스런 주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쉬운 만화라는 장르를 통한 회원 여러분의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평의 내용은 대상을 폄하하거나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s 2008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2008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에는 「숭실대학교 조만식 기념관&웨스트민스터홀」, 「아임삭 오창공장」, 「동백 아뜰바움」설계자와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시공자가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에는 「백남준 아트센터」,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루트 하우스」설계자와 「관악산 휴먼시아」시공자가 선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수여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에 대한 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1992년에 제정돼 「건축은 문화다」임을 표방하며 이 땅에 우수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워왔다.

이번 수상작들은 주변이나 도시의 컨텍스트의 조화, 도시와 사회에 대한 공공성 및 기여도, 디자인의 독창성, 시공의 완성도, 건축의의 이해도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건축물로 선정됐다.

특히 사회공공부문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숭실대학교 조만식 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은 다양한 형태의 기존 노후 된 건축물들과 절묘하게 타협하며 대학교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등 주변과의 조화, 전체적인 통일감, 자연공간의 회복, 작품의 완성도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건축물로 대학교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임삭 오창공장」은 기능의 분리와 연결, 동선처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 외부경관과 잘 연결하는 등 설계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건축, 도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건축물부문에서는 낙동강 하구지역의 소멸해 가는 어촌 마을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발과 보존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현실감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배어있는 수작 「Adaptation Algorism」의 홍순필, 심소연 씨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대상으로 1인에 한해 시상하는「올해의 건축문화인상」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조사, 연구, 관련공사설계, 감독에 전념해온 신영훈 한옥문화원 원장이 선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는 준공건축물부문 67점, 계획건축물부문 229점 등 총 296점이 응모했다.

시상식은 9월 22일(월)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수상작은 건설회관 2층 로비 전시장에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시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또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상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제정배경

–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은 문화」라는 대명제 아래 '건축의 대중화' 를 추구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기본취지로 지난 92년 건설부와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제정함.

– 제3회('94) 행사부터는 지난 1971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단독 개최해오던 「한국건축전」과 통합을 이뤄 민 · 관 · 언론이 공동 시행주체가 되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시 · 시상행사로 발전.

목 적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건축물의 인간중시, 환경과의 조화 구현
- 건축계의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 고취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96년 제5회 때부터 본상이상 수상자중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건축상 제도 중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발돋움함.

역대 주요 수상작(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본 상	우수상
제1회 (1992년)	한샘 시화공장	삼성종합연수원 창조관 호텔 현대 분당시범아파트단지 현대아파트 연남동주택	–
제2회 (1993년)	헌법재판소	국립부여박물관 이화여대 공관 학동수졸당 부산서대신동주택	–
제3회 (1994년)	민정학원	아주대병원 예닮교회 SBS 등촌동 스튜디오 포이탑빌라	엑스포아파트 전쟁기념관
제4회 (1995년)	포스코센터	경희분당차병원 쌍용투자증권 사옥 홍천휴게소 팜파스 삼성국제경영연구소	수원선경도서관 토월대동아파트 삼성동 현대빌라
제5회 (1996년)	대법원 청사	분당 주공아파트, 태평양파크빌라트, 신내지구 9단지 아파트, 수원야외음악당, 진로쿠어스 공장, 용문청소년수련원	-
제6회 (1997년)	LG화학 기술연구소	삼청동주택, 분당 집합주거, 웨스틴조선호텔 빌라 코오롱타워, 블루힐백화점, 국민생명미래연수원	-
제7회 (1998년)	울산현대예술관	고려포리머 사옥, 김옥길기념관, 오크밸리 리조트 씨네플러스, 이태원 다가구주택, 백남학술정보관	-
제8회 (1999년)	(해당작 없음)	양산 컨트리클럽하우스, 두산타워, 구산타워 국민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민대학교 국제교육관 부산 당감지구 주공아파트, 임거당	-
제9회 (2000년)	교원그룹연수원 – 게스트하우스	성동구노인종합복지관 , 웰콤시티, 동아미디어센터 미제루, 영동군보건소, 서미갤러리	-
제10회 (2001년)	의재미술관	가나안 교회, 천주교인보성체수도회 전주성당 용인 삼성생명 노블카운티, 대구달성 명곡 주공아파트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예술대학 안산캠퍼스	-
제11회 (2002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원시연화장, 코리아디자인센터 부산아시아드경기대회 선수 · 기자촌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기흥상갈 금화마을, 원당성당 중부대학교 건원관	-
제12회 (2003년)	시몬느 사옥	분당 C-11-4-12 광명철산지구 주공아파트 춘천두미르 군인아파트 동부금융센터, 매스메스에이지 포스코역사관	-
제13회 (2004년)	광주광역시청사, 아이파크 삼성동	KT 여의도 빌딩, 한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사옥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연하당,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
제14회 (2005년)	달성군청사 타워팰리스 III	대치 동부센트레빌, 배재대학교 예술관	A House With Three Courts, 수입 777 보현빌딩, 옥계 휴게소
제15회 (2006년)	청계천 문화관 해송원 솔빛머금은 남쪽마을..., 오름– 묵방리 주택	전라북도 도청 및 의회청사 (주)하이마트사옥, 노은 리슈빌 II 동신대학교 기숙사	-
제16회 (2007년)	덕평자연휴게소, 파주웅진씽크빅사옥, The # 스타시티, 배재대학교 국제언어생활관	대룡중학교, 논현동 의화빌딩, 용산 파크자이, 양익재	완도군 수협활어종합유통센터 외 12작품

준공건축물부문

행사일정

– 작품공모공고 : 5. 1~6. 4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6. 5까지 ☞ kaa.kira.or.kr
– 접수 : 6. 9 ~ 6. 10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심사 :
  • 1차 사진첩심사 : 6. 20
  • 준공건축물부문 2차 현장심사 – 지방, 수도권 : 7. 2~7.4, 7. 8~7. 10
  • 준공건축물부문 최종심사 : 7. 10
– 시상식 : 9. 22 14:00 / 건설회관 대회의실
– 수상작 전시 : 9. 22~26 / 장소: 건설회관 2층 로비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2006년 5월 1일부터 2008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 출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 단,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 · 개축 · 대수선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응모 불가함.
– 응모자격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표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개요 및 설명서, 건축물사진, 설계도면 등이 수록된 A4규격의 사진첩 1부(소정의 양식 없음)

심 사

가. 심사방법
– 1차심사 (사진첩심사) : 현장심사 대상작 선정
– 2차심사 (현장심사) : 현장 대상작 심사
– 최종심사 : 입상작(대상 · 본상 · 우수상) 선정

나. 심사위원
장응재 (주)원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위원장
김우성 (주)아키프랜 건축사사무소)
박연심 (건축사사무소 장원)
이상진 (숭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인의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천태삼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본부장)
최동규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명철 (단우건축사사무소)

시상내용

–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한해 시상 –

상 명 \ 시상내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대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대통령상	
	일반주거부문	대통령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본 상 (4점)	사회 · 공공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민간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공동주거부문	건설교통부장관상	국무총리상	
	일반주거부문	국무총리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우수상(다수)		대한건축사협회장, 서울경제신문사장 공동명의 시상		

※ 수상자 트로피(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및 건축물부착용 명판(건축주) 수여
※ 대상, 본상 작품별 대표 설계자, 시공자에 한해 해외건축탐방 특전부여

수 상 자 명 단(작품명/설계자/시공자/건축주 순)

■ 大 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 / 이성관(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 쌍용건설(주) / (학)숭실재단
• 민간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아임삭 오창공장 / 신춘규(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 주식회사 팀 이십일건설 / 주식회사 아임삭
• 공동주거부문(시공자–대통령상, 설계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 이승연(주.원양 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현대건설(주)
• 일반주거부문(설계자–대통령상, 시공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동백 아뜰바움 / 최삼영(주. 가와 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케이건설(주) / 모닝브릿지 주식회사
※작품명 김포수기마을 힐스테이트는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시공자만 시상

■ 本 賞
• 사회공공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백남준 아트센터 / 김병현(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대건설(주) / 경기도청
• 민간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 윤세한(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솔건설(주) / (주)워커힐

• 공동주거부문(시공자–국무총리상, 설계자 · 건축주–국토해양부장관상)
관악산 휴먼시아 / 박용민(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 / 금호산업(주) / 대한주택공사
• 일반주거부문(설계자–국무총리상, 시공자 · 건축주 –국토해양부장관상)
루트 하우스/ 곽희수(주.이뎀 건축사사무소) / (주)제효/ 김도진

■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 주.서울경제신문 사장 공동명의 시상)
• 단원어린이도서관 / 조민석(단아 건축사사무소) / 씨케이건설(주) / 안산시장
• 제주 4.3 사료관 / 이상림(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대우건설 / 제주특별자치도청
• 테티스 / 곽희수(주. 이뎀 건축사사무소) / (주)제효 / 고소영
• 대덕교회 / 박인수(주.아이아크 건축사사무소) / 주안건설산업(주) / 대덕교회
• 엔씨소프트 R&D센터 / 이필훈(주.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 (주)엔씨소프트
• 랜드마크하우스 / 김좌동(주. 아울 건축사사무소) / 선이건설(주) / 한향림
• 선두리 주택 / 김영섭(주. 김영섭건축문화 건축사사무소) / 박향님 / 박향님
• 기흥 아뜀바움 / 추경돈(주. 아이티엠 건축사사무소) / 에스케이건설(주) / 기흥관광개발(주)
• 관악구 통합신청사 / 정영균(주.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부건설(주) / 관악구청
• 전통한옥호텔 '라궁' / 조정구(주. 구가도시건축) / 삼부토건(주) / (주)신라밀레니엄
• 웅진코웨이 R&D센터 / 한종률(주.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극동건설(주) / 서울대학교
• 여의도 자이 / 김종국(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지에스건설(주) / 한성아파트재건축조합
• 아모레퍼시픽 설록차 연구소&공장 / 선은수(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 태평양개발(주) / (주)아모레퍼시픽
• 서울석유주식회사 사옥 / 임재용(건축사사무소 O.C.A) / (주)이안알앤씨 / 서울석유(주)
※작품명 선두리주택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이므로 건축주만 시상

심사총평

건축문화 창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간중심의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및 또 건축계에 유능한 후진 발굴 및 창작의욕의 고취를 위하여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의 한국건축문화 대상이 이제 17회를 맞이하였다.
예전에 비해서는 응모작품 수에서 조금 적은 총67작품으로 부문별로는 사회공공 22점, 민간 31점, 공동주거 7점, 일반주거 7점이었다.
6월 20일(금) 1차 사진첩심사를 위하여 모인 심사위원들 간에 위원장 선출에 이어 심사방법과 심사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여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 주변이나 도시의 컨텍스트에 부합되는가
◦ 도시나 사회에 대한 공공성 및 기여도가 있는가
◦ 프로그램 또는 디자인 내용이 독창성이 있으며 창조물로서 감동을 주는가
◦ 구체화 과정에서 미학적 구조적 성취도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설계자의 의지를 볼 수 있는가
◦ 시공단계에서의 완성도가 좋은가
◦ 프로젝트의 입안, 시행과정에서 건축주의 이해도와 기여도가 높은가

1차 사진첩심사는 부문별로 탈락 작품 선정을 먼저 하기로 하여 심사위원 각자의 선정사유를 2단계에 걸쳐 토의하면서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현장심사 대상작품으로 총 27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예년과 같이 민간부문 응모가 많았으며 사회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으며 공동주거, 일반주거가 더욱 적은 수가 응모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다.
7월 2일~4일, 7월 9일~11일 2주에 걸쳐 6일간 실시된 현장심사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늦은 시각까지 또 지방, 특히 제주도 및 경남 양산, 경주, 강원도까지 답사하는 강행군으로 무리한 추진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와, 성실히 맞아 주신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심사위원 모두가 현장을 보고난 후 사진첩만으로 얻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한 파악이 이뤄졌으며 이는 건축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건축적 경험과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7월 11일(금). 심사 마지막 날 오후. 최종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 후 우선적으로 탈락 작품 선정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열띤 지적으로 상당수의 작품이 탈락 결정되었으며 이어서 각 부문별로 우열 없이 2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만 3개에서 2개로 압축되는 과정을 거쳤다.
대상, 본상의 선정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어서 심사위원 각자의 대상, 본상 선정이유 밝혀가면서 의견을 수렴하여 수상작을 선정, 결정하였다.

심사위원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의견의 수렴이 원활히 이뤄진 점에서 예년의 심사와는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 되었으며, 각 부문별 수상작 선정에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 우열과 특성이 다른 점에서 논의가 많았으며, 작품의 완성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엔씨소프트 R&D센터, 대덕교회 등이 아쉽게 우수상에 머물게 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숭실대 조만식기념관은 작품성, 공공성, 시공성에서 우수하며 특히 설계자의 디자인 의지가 전 과정을 통해 잘 구현되었으며, 그 주위 기존 건물로 이어지는 정리 작업이 돋보였으며, 아임삭 오창공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장동 사무연구동, 후생동의 연결과 그 연결공간의 처리에 변화를 주었으며 설계자의 역량이 잘 발휘된 점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시공성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설계자의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실현하는데 노력한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날 계속되는 무더위 속 강행군에도 의연하게 열성과 진지함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또 심사 전 과정을 위하여 애써 주신 실무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근래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주시고 분투하시는 건축인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한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
앞으로도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국건축문화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각 부문별 심사평은 사회공공부문–인의식 위원, 민간부문–최동규 위원, 공동주택부문–박연심 위원, 일반주거부문–이상진 위원이 맡아주셨다.

심사위원장 장응재

준 · 공 · 건 · 축 · 물 · 부 · 문 | 대 상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 홀

새로운 건축물을 나대지에 신축하는 경우 작품에만 몰두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달리하며 지어진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혼재된 좁은 대지에 계획할 경우에 건축사에게는 신축할 건축물이외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이 프로젝트는 어쩌면 그 많은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수학문제 일지도 모른다.이 건축물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실타래를 풀듯 하나하나 해결하며 주변과의 조화, 전체적인 통일감, 자연공간의 회복, 작품의 완성도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서달산의 자연공간이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막아왔던 건축물을 해체하고, 후면부 아파트를 신축 건축물로 차단하여, 캠퍼스 분위기를 회복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존 노후 된 건축물들과 절묘하게 타협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시켰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치유' 와 '재생' 을 통하여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체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또한 건물과 건축사이의 연결을 물 흐르듯 입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조형적으로 승화시켰으며, 버려진 공간이던 건물 사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여 성격이 다른 공간들을 중화시켰다. 그동안 혼재돼 있던 기존 건축물들 사이에 화룡점정과 같은 하나의 건축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갖춘 완벽한 캠퍼스로 재탄생 시킨 것은 건축이상의 훌륭한 성과로서 최고의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축물이다.

아임삭 오창공장

제한된 예산과 평범한 공장건축이라는 한계상황에서 설계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기능의 분리와 연결, 동선처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유 공간의 마련이 외부경관과 잘 연결된 점이 보인다. 실제로 시공부분에 일부, 완결성이 문제로 등장했으나 역시 한계상황에서 이룬 성과인 점에서, 또 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었다.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이 프로젝트는 민간이 주도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십년가까이 공을 들여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5만 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 2~지상 15층 57개동으로, 112~198㎡(34~60평형) 2,605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 시급 대단지다. 이들 가구를 3개의 단지로 나누어 각 단지별로 3가지 색깔이 골고루 배치돼 있다. 이는 어디를 가나 비슷한 아파트에 둘러싸여 자신의 위치를 분별할 수 없는 때에 가질 수 있는 장소성을 의식하도록 한 점이 큰 장점이었다. 전문 색채디자이너가 개발한 원색의 외벽은 다른 아파트와 달리 색감을 강하게 표현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그룹핑하여 단지별 색상을 갖도록 하였다. 이 단지는 남동쪽으로는 대보천이 흐르고 중앙에는 근린공원의 야산이 있고 단지의 공지율은 40% 이상으로 훌륭한 주변 환경과 조망권을 연출한다. 메인 엔트란스는 길고 깊은 시퀀스를 연출하며 각동의 필로티 밑을 통과하고 동 출입구에 들어서면

호텔수준의 서비스와 홀에는 명상실과 그림들이 있어 마치 예술적인 느낌의 작은 갤러리에 들어선 것 같다. 각 주거공간은 부엌의 작업대가 거실을 향해 가족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장실 앞 확장평면은 헬스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주민시설은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장 등 주민건강시설과 노래방, 연회장 등 여가생활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배려한 공간이 있다. 김포라는 지역에서 생긴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겨 날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백 아펠바움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 자리한 동백 아펠바움 주거단지는 타운하우스형 목조 주거단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목재가 지니는 친환경적 이미지는 이 단지가 조성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 주거단지 후면의 낮은 산자락은 경사진 목조지붕과 잘 어울려 본래의 모습인 듯 전혀 낯설지 않으며 동시에 주변에 세워진 고층아파트들을 조롱하는 당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전면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매스 형태가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독립된 단독주거를 제한된 부지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건축사의 노력이 엿보인다. 내부 역시 타운하우스가 필연적으로 지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외벽의 개폐 방향이 적절히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 층 구조를 통해 입구에서 위층 침실까지 공간적 위계와 질서를 부여하였으며 수직 이동 속에서 내 외부 및 상하 공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축사의 목조주택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사업성을 위한 높은 밀도의 건축용적을 포기하고 이렇듯 넉넉하고 여유로운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조성한 시행자와 건설사의 노력 역시 치하하고자 한다.

준·공·건·축·물·부·문 | 본 상

백남준 기념관

이 작품은 전시 될 작가의 위상 때문에 지명경쟁 설계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회자되었던 작품이다. 건립계획을 수립한지 7년이라는 시간이 말해주 듯 인고의 시간을 거쳐 난산한 작품이라 그런지 모든 것들이 정제된 훌륭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이 건축물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조형요소에 의한 현란한 연출 없이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점은 전시 될 작품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주연인 작품이 돋보이게 하기 위한 조연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 외피인 검정유리는 낮에 외부의 빛을 작품 감상을 위해 적절히 투과시키고, 밤에는 내부 비디오 조형물을 빛에 따라 검정 유리에 부드럽게 영상이 맺히며 건물자체가 비디오 조형물로 변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물은 자연의 계곡 형태에 맞추어 배치되고, 건물과 자연 사이의 경계 없는 옹벽과 조명으로 물결치듯 흐르는 형상을 갖춘 외부 모습도 매우 훌륭하다. 다만, 진입방법에서 작가의 의견대로 슈퍼마켓 같이 도로에서 편안하게 진입하는 방법도 좋으나 건물사이 공간의 감동적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느끼면서 진입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초기 작가의 구상을 좀 더 실현 시켰으면 최고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었던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

이해심 많고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시공은 완벽할 수밖에 없는 설계자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프로젝트이었다. 빈틈없는 인테리어의 보완으로 흠결을 찾기 힘들었다. 더구나 일층일부공간은 전자장치를 이용한 소 미술관까지 있어 금상첨화였다.
다만 진입 시 측면으로 진입하는 듯 한 느낌과 일층 계단식의 상업공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아임삭 공장과 끝까지 우열을 다투었지만 한계상황에서의 해결 그리고 아카디아 같은 시설의 경우 일부 제한된 이용자들의 욕망의 소비공간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한 반면 아임삭 공장의 경우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공간이라는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관악산 휴먼시아

이 단지는 달동네로 유명했던 난곡재개발지역이다. 그 지역적 특성이나 개발방식 등에 있어서 사업시행사인 주택공사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주민들의 구성상 우리나라 최초의 순환개발방식을 채택한 것이나 원가정산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이 추진된 것 등이다. 이 지구에 도입된 순환정비방식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던 주민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주용 임대주택 등에 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하다가 당해 지역의 사업이 완료되면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재정착하는 도시정비 사업방식이다. 원가정산방식은 사업지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만을 정산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원가정산방식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시행에는 성공을 했지만 난곡이라는 지역적 역사성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높은 경사지의 레벨차이를 극복하기에는 그 내용이 거칠고 무리해 보인다. 그것을 조경으로 커버해 보지만 조잡하다. 한옥방식으로 만든 주민휴게공간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같다. 그렇다고 사업성측면에서 보면 달리 좋은 방법의 해도 없을 것이다. 이는 대다수의 뉴타운 계획에서도 볼 수 있는 딜레마 인 것이다.

루트 하우스

강원도 정선의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노출콘크리트로 조성된 담대하고 남성스러운 매스는 두 가지의 대조된 체험을 심사위원들에게 선사했다. 하나는 이러한 격정적 형태의 표출이 적절한 주거환경 –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고 있는 – 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첩된 주변의 산들과 평야, 시냇물 등이 이 매스의 실루엣이 되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감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지붕을 타고 오르는 잔디 정원에서는 캡을 눌러 쓴 젊은 집주인이 천연덕스럽게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한여름 뙤약볕에서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주변 자연을 즐기는 여유로움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축사로서의 실험적 정신 그리고 매스를 다루는 미적 재능에 대해 찬사를 안 보낼 수 없겠다.
어려운 매스의 조합을 위해 공 드렸을 건축사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이러한 젊은 건축사를 지원한 건축주, 시공자의 노력 역시 치하하고 싶다.
단지 내부로의 방문이 불가하여 내부에서의 공간 체험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약간 아쉽다고 할 수 있겠다.

준·공·건·축·물·부·문 | 우 수 상

단원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으로서의 건축적인 기능, 외부공간의 활용, 어린이를 위한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 어린이를 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작품이다.
특히 외부공간은 내부공간과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고 시각적으로도 다양하게 연계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외부 공간 구석구석 어린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보인다.
요즘 어린이 공간에 흔히 쓰이는 원색 컬러들의 사용이 심할 경우 오히려 혼돈 된 느낌과 어린이들이 자극적인 환경에 익숙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파스텔 톤과 원색 컬러의 적절한 사용이 돋보인다.
다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채워주기보다는 어린이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채워나갈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제주 4.3 사료관

제주 4.3 사료관은 단순히 역사적인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며, 한 시대적 상황을 후대에 전달하고 희생된 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과 추념의 공간이다. 원뿔형태의 전시관과 원형 분지 형태의 추념공간을 한라산과 삼방산의 설화와 연계하여 형상화한 시도는 참신하였다고 본다. 또한 옥외 추념공간의 배치, 옥외 전시 공간의 설정과 마감, 실내 전시 공간의 전개 방식과 내용은 기념관 성격에 충실 하였다고 본다.
다만, 관람자의 주 진출입로 상에 위치한 광장 바닥과 진입로 램프는 관람 후 관람자가 전시내용의 잔상을 이어 갈 수 있는 재료선정과 디테일이 아쉬웠다. 또한 전시장 입구인 아트리움 역시 일반적인 재료보다 전시내용과 오감이 연계될 수 있고, 옥외 진입로와 실내 전시관이 연결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료 선정과 마감이 아쉬웠다.

테티스

소규모건축에서 주차문제를 독특하게 풀어 낸 건축이다.
청담동의 높은 지가 및 높은 소비욕구를 지면과 마주하는 접촉면을 최대화하여 해결한 작업이다. 이를테면 일층을 지면에서 약간 뛰어 배치한 점, 선큰이 예비 된 지하층, 지상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준비된 이층 등이 증거다.
옥상에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 독립적인 공간 등을 배치한 것은 설계자의 탁월한 공간 배치능력을 보여준다.

랜드마크하우스

근린생활시설 겸 소미술관 건축이다.
아예 승강기가 없이 계단으로만 모든 공간이 옥상까지 연결되어 통로기능이 돋보이는 작업이다. 과감하게 캔티레버로 뻗어나간 부분이 이건축의 미학을 대변한다.
다만 외피를 싸고 있는 나무의 색이 너무 진하여 마치 화장을 진하게 한 건축의 진정성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게 만든다.

엔씨소프트 R&D센터

이 건축역시 아카디아 같이 이해심 많은 건축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 등 소위 시공을 연주에 비견하면 완벽한 연주가 가능한 행복한 프로젝트이다.
일상적인 층 개념을 흐트러트린 외피구성, 실제적으로 사용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커피숍까지 마련된 옥상정원, 근무자의 자녀를 위한 공간마련 등이 돋보였다.
다만 이정도 규모의 공간에서 시도될 법도 한 일층공간에서 2~3개층이 뚫려 교감하는 입체적인 공간의 연출이 시도되지 않은 점 등이 외피의 층간개념을 흐트러트린 노력이 내부에서도 공명현상을 일으킬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석유주식회사 사옥

주유소기능과 일반 사무소기능을 혼재한 건축이다. 게다가 내부에서는 바로 옆에 이웃한 경동교회에 대한 배려가 내부공간의 주요소가 되었다. 경동교회를 내부에서 마치 잠수함에서 잠망경으로 통해 바라보듯이 내부공간 깊숙이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내부공간은 마치 잠망경을 비틀어 밀어 넣은 것으로 인해 많은 재미있는 공간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심사위원간에도 호불호가 엇갈릴 정도의 요소로 등장하여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신중한 고려 끝에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선두리 주택

강화도 바닷가에 위치한 선두리 주택은 건축사의 풍부한 건축 경험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후면의 산과 바다를 향한 시각적 향유가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한다면 수직계단과 함께 표출되는 공간적 유희는 부제가 된다.
특히 집주인과 건축사의 예술적 인연, 그리고 집주인의 예술에 대한 애정 등이 주택 곳곳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생성해내고 있다.
단지 매스 형태와 재료에 대한 환경적 부담감, 필로티를 통한 해법이 너무 도시적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건축사와 건축주의 작품완성을 위한 공동 노력은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진다.

기흥 아펠바움

기흥 아펠바움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클럽 내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으로 개발된 집합주거이다.
재일교포 건축사 이타미 준의 작품으로 소개되었으며 높은 사업비로 개발된 주말별장 개념의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소재로 사용된 황토벽돌, 목재 등은 단지 전체를 부드럽고 안정적인 이미지로 감싼다. 주거단지 사이사이에 연출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조경과 조명은 단지 전체의 품격을 표상하며 건축사의 절제되며 세련된 디자인을 돕고 있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연출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새롭고 진취적인 아이디어의 제공에는 실패했다는 의견이며, 건축주, 즉 시행자의 요구와 건축사의 작가 정신 사이에 나타나는 간격이 건축 작품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악구 통합신청사

외국을 여행하다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관공서 건축물을 볼 때마다 부럽고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우리의 관공서 건축물은 과거 권위적인 시대의 유물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형태와 재료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부 기능보다 외부 형태에 비중을 둔다. 관악구 통합 신청사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훌륭한 작품이다. 우선, 좁은 대지여건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건축물들을 한군데 모아 저층부에 밀집시켜 쉽고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려한 점은 기존 개념에서 탈피하는 미래 지향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다만, 외부형태와 재료에 치중한 것에 비하여 내부공간의 마감과 시민들을 위한 디테일한 공간배려 등이 빈약한 느낌이 든다. 관악구 복합청사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들은 미래의 공공건축물을 향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전통한옥 라궁

심사당시 위원들이 불안했던 점이 바로 휑하게 비어있는 중간마당이었다. 다만 한국전통건축을 상업시설 화 한 것이 최초라는 점과 과연 이시설이 상업공간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한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한옥을 표준화하여 호텔객실로 만들어낸 노력이 돋보였다.
객실의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스케일에 비하면 마당은 그곳에서 여타 의미 있는 행사가 벌어진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밀도 있는 조경 혹은 연못 등 한옥건축의 완결성을 위하여 추가되어야한다는 결론에 도착하였다.

웅진코웨이 R&D센터

산자락에 위치한 기업체와 대학의 산학협동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이다.
내부에 상층부까지 뚫려있는 아트리움이 이 건물전체의 내부공간의 주인공이 되어있다.
간단한 파티까지 할 수 있는 계단식 좌석까지 마련되어 이건물의 근무 시 하루기 지루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다만 실험동부분의 벽이 완전불투명으로 가려져있어 건축공간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녀야할 소통상의 단절이 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의도 자이

여의도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재건축주상복합은 기존의 아파트의 용적률에 거의 3배나 높은 650%를 구현하고 있다. 2005년도에 시작한 본 사업은 용적률 측면에서 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상업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나아가 여의도지역의 다른 여러 리모델링계획이 있었든 단지를 재건축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계획에 박차를 가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단지가 달성하고자 노력한 계획의 내용은 단지의 'Gallery화' 이다. 지하 4층, 지상 36층의 공동주택 4개동과 27층의 오피스텔1개동의 단지는 주변을 쌓고 있는 도로들에 열린 공간으로 담을 없애도록 하여 자연을 많이 끌어 들이려 했고 야간의 경관에 디자인을 더했으며 공간들을 감성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또한 여의도라는 단지의 위치에 걸 맞는 커뮤니티 시설들과 로비의 인테리어등도 겔러리화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단지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주민들은 이 단지에서 이웃 간의 소통을 기대 할 수 있을까? 통경 축은 제대로 고려 한 것일까? 높은 건축 밀도에 녹지는 자족적일 수 있는 것인가?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이 50%를 넘을 때 생기는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은? 옆 단지에도 계속해서 이런 단지가 생긴다면 도시경관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서울의 도시문제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 밑그림이란 것, 그것이 가장 필요 할 때다.

대덕교회

교회는 요구공간이 다양하고 더구나 공사비에 있어 제한적이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적절히 잘 해결하였다.
다만 내부에 산자락에 연결되어 펼쳐져있는 옥외마당공간이 외부로 열려져 외부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교회만이 그 공간을 독점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이 아쉽게 느껴졌다.

아모레퍼시픽 설록차연구소&공장

차밭이 펼쳐져있는 배경으로 기존의 공장을 일부 증축하고 연구소와 잇대어 만든 건축이다.
우리가 이 건축에 주목한 것은 공장이라는 재래식 모습을 일탈한 잔잔하고 담백한 모습에 끌려서였다.
신중하게 고려된 외피로 인해 이 공장은 원하는 건축미학에 성공했다.
다만 연구소와 공장이 연결되어 있는 내부공간의 연결성이 뚜렷하게 읽혀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계획건축물 부문

행사일정표

- 작품공모공고 : 2008. 5. 1 ~ 7. 22
- 접수
  - 참가신청(인터넷 신청) : 7. 23 ~ 7. 24 ☞ kaa.kira.or.kr
  - 1차 작품계획(안)접수 : 1차 작품접수 : 2008. 7. 28 ~ 7. 29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중회의실
  - 2차 패널 및 모형접수 : 8. 21 / 접수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 심사
  - 1차 작품계획안 심사 : 7. 30
  - 2차 패널 및 모형심사 : 8. 22
  - 작품설명 프레젠테이션 심사: 8. 25
- 시상식 : 9. 22 14:00 / 장소:건설회관 대회의실
- 수상작전시 : 9. 22 ~ 26/ 장소: 건설회관 2층 로비

주요 공모요강

가. 응모 작품 및 자격
- 응모작품 :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 작품주제 : "Convergency(융합)"
- 주제설명 :

Situation 1(전개 상황 1)

컨버전스(Convergence)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으로 집합함, 집중성, 통합 등이며 수학용어로는 수렴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하지만 컨버전스는 단순한 통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 이상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기술적, 문화적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오늘날은 컨버전스의 시대다. 컨버전스는 디지털형 문화와 잘 어울리며 현대 사회의 문화와도 코드가 맞는다. 컨버전스 패러다임은 산업시대의 패러다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산업혁명이 불러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분업이었고 그래서 전문화가 중요했다. 한 우물을 파고, 기술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의 대가가 될 수도 있었다. 분업은 사회발전과 맥을 같이 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를 불러왔다.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는 한계에 부딪혔다. 건축을 비롯한 과학기술영역도 마찬가지였다. 개별적인 기술과 개별적인 영역의 발전은 지속되어도 기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한 상승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학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해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이 협동연구를 해야 하는 환경을 맞고 있다.
분업보다는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고 한 가지 기능보다는 다기능 멀티플레이어가 중요한 오늘날, 지금까지 '분야' 라는 용어로 분리되었던 각각의 영역들은 빠르게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있고 경계를 없애고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도 일종의 '문화적 컨버전스'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버전스와 비슷한 의미인 '퓨전' 혹은 '크로스오버'는 교차와 융합,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서로 공통점이 없거나 단절된 영역이라 생각했던 분야들이 디지털시대에 들어와 하나가 되고, 새로운 융합과 변종 융합을 거치면서 다양한 틈새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화가 촉발한 컨버전스 트렌드(Convergence Trend)가 서로 다른 분야들 속에서 융합하고 교차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컨버전스 시대가 기술적 통합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적 통합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바꾸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유형도 바뀌고 있다. 환경과 인간 유형의 변화는 점차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우리 모두 이런 변화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컨버전스 시대를 리드하는 컨버전스형 신인류가 향후 우리의 미래를 이끌 주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컨버전스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디지털화가 촉발시킨 컨버전스의 물결에 역행하는 것은 도태와 지체를 야기할 수 있다. 컨버전스형 신인류가 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 어떤 분야에서 큰 관심을 모을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를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해 전혀 필요 없는 곳까지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컨버전스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컨버전스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컨버전스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Situation 2(전개 상황 2)

최근 혁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규제 등을 놓고 중앙과 지방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시대이다. 지방의 경쟁자는 더 이상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세계시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글로벌 지역' 이 바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 상대이다. 각 지역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강한 국토의 건설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토를 1/n식으로 나누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다 같이 잘살자는 취지의 중앙 분배 식 개발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진정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아 추진하는 자립적 개발 등의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해법 또한 정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상기 두 가지 상황은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 중 일부이다. 특히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존 및 발전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장기간 생활했던 지역(고향 등)이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근무지 등) 등 해당 지역 상황의 파악이 용이하고 본인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한 지역을 대상지**로 삼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Convergency'라는 열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아이디어

의 제안을 기대한다.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왜 만들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며 이런 측면에서 제안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보다는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등 근거를 함께 제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어야 한다.

국토의 개발과 활용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며 어떤 시설을 제안하던 간에 그 내부에는 인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안사항에는 **'주거(Dwelling)' 의 기능을 반드시 포함(주거+α)**하기로 한다. '주거'라고 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계획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시설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거주' 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시 주거의 비중을 크게 둘 필요는 없다.

– 출품자격
-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자격 소지자 제외)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나. 주요 출품규정
– 작품계획안(A2) 1부 제출
- 작품계획안 A2(가로42.0㎝×세로59.4㎝ – 종방향으로 구성) 1부 – 아이디어 위주의 전개과정, 설계개념 등을 표현(패널 축소판이 아님.)
- 작품설명서 1부(A4 1매)

– 1차 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추후 패널 및 모형 제출
- 패널 A0(가로84.1㎝×세로118.9㎝ – 종방향으로 구성) 1매 – 작품계획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제를 발전시켜 표현
- 모형(가로×세로 80㎝×80㎝, 높이 50㎝ 이내 – 모형대 제출 및 외부전원장치 지원 불가)

심사

가. 심사방법 : 패널 및 모형 심사
나. 심사위원 : 강희달 제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원장
김형수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지한 한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백민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
황정복 예문 건축사사무소 대표

시상내용

– 대 상(1점) : 상금 500만원, 국토해양부장관상, 해외건축탐방
– 우수상(5점) : 상금 2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해외건축탐방
– 특 선(6점) : 상금 100만원, 대한건축사협회장상
– 입 선(20점 이내) : 대한건축사협회장상
※우수상 이상 수상자(대학 재학생에 한함)중 영어 인터뷰 심사를 거쳐 ARCASIA 학생잼버리대회 파견 특전

수 상 자 명 단

■ **大 賞**(국토해양부장관상)
- Adaptation Algorism – 개발과 보존의 틈, 눌차마을의 가능성을 말하다 / 홍순필, 심소연(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優秀賞**(대한건축사협회장상)
- 박제 화된 과거도시로 부터 살아있는 미래로.../ 한병수, 이새롬, 조은진(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 팔레트 / 이병희, 최주연, 강전용(아주대학교 건축학과)
- 새로운 경계 / 이두호, 장윤희(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 가로연접공간의 폴드화를 통한 연도형 복합시설 구상 / 손관식(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세계문화유산 직지를 통한 청주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안 / 김광준, 박성혜, 심경숙(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特 選**(대한건축사협회장상)
- 효에 대한 훌륭한 다스림 / 조혜리, 최진아(한경대학교 건축학부)
- 하이브리드 링크 / 박재현, 고성은, 김수현(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 판의 조작을 통한 해양관광문화 활성화 방안 / 김하해, 백승엽, 김미진(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복합성속의 풍경 / 기대영, 고영성, 박상규(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 감성적 매개체를 통한 디지로그적 공간 생성 / 손기성, 서란희, 곽지숙(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네트스케이프 : 공간의 해체 / 김재식, 이필석(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入 選**(대한건축사협회장상)
- 혼성공간 / 박보미, 강지명(창원대학교 건축학과)
- 대지와 인위공간의 혼합 / 최두성, 강대선(창원대학교 건축학과)
- 지역의 공익회와 발전적 미래 위한 다목적공간의 부활 / 이기흔(호서대학교 건축학과)
- 광복동 복합문화스튜디오 계획안 / 배호진, 박진경, 최경식(부경대학교 건축학전공)
-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다문화에 따른 우리지역사회의 융합 / 김지훈, 정진철, 임동진(한경대학교 건축학과)
- 회귀 / 정용욱, 김종민, 유호형(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건축학과)
- 대학과 도시의 융합을 통한 구도심 재생 / 이형진, 이새롬(인하대학교 건축학과)
- 지역문화와 섬유산업의 융합을 통한 섬유문화공원단지계획 / 명종수, 문고리, 김재강(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스토리텔링 / 김미란, 손명준, 정나영(인제대학교 건축학과)
- 디스플레이 장치를 외피로 활용한 대학로 기업홍보관 + 소극장 계획안 / 이병현(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 흐름의 중심 / 이승훈, 김지원, 박찬서(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 다양한 흐름을 위한 연속된 매개공간 (부제. 국제여객터미널 복합계획을 통한 활성화방안) / 신승윤, 김용찬, 김태인(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로하스 개념을 적용한 전주시 장인 문화 복합시설 계획안 / 고영빈, 권태구, 고병주(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 대전시청광장과 보라매공원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 / 윤현진(한밭대학교 건축학과)
- 상호작용으로 재정의된 장소 / 정지혁(충북대학교 건축학과)
- 태안 상업복합터미널단지 계획안 / 정민규, 김동욱, 김응수(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인프라스케이프 / 백경우, 서동건, 채현정(부경대학교 건축학과)
- 천안시민의 지속가능한 동화(銅貨) 형성을 위한 도시문화창조 / 이종진(호서대학교 건축학과)
- 초량외국인 커뮤니티 센터 / 전정인, 노동우, 정의문(부경대학교 건축학부)
- 심포니 #5 / 조성진, 강연모, 신지섭(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심 사 평

강희달 / 제이 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장

2008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에 참가한 250여 팀 학생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건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동화하여 창조되는 복합물이다. 따라서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완벽한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에 우리 심사위원은 출품자 여러분이 충분히 동조할 만한 심사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1차 심사에서는 계획안 요약서 229점 중에서 응모주제에 부합하고 작품 가능성이 있는 작품 60점을 선정하였고, 2차 심사에서는 계획안 패널과 모형으로 제출된 작품 60점 중에서 입선작 20점과 특선 이상 대상 작품 12점을 선정하였으며, 3차 심사에서는 작품설명회를 통하여 특선 6점, 우수상 5점, 대상 1점을 선정했다.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창작의도가 높은 작품들로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심사위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존 및 발전전략' 이라는 경제 사회적 욕구를 '융합' 이라는 건축적 명제를 통해 어떻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가를 심사의 척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Adaption Algorism–부산 눌차마을」은 이런 전개과정이 출품작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새로운 경계–평택 미군기지」와 「직지를 통한 청주학습도시」와 「과거도시로부터–숭례문」은 좋은 주제선정을 건축적으로 풀어가는 데 무리한 점이 발견되어 아쉽고, 「Palette–노량진 학원」과 "연도형 복합시설–구로공단」은 건축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으나 주제에 미흡하였던 점이 아쉽다.
도면의 표현능력이 부족한 작품 또는 부지선정의 필연성이나 건물 배치의 당위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표현이 부족한 발표자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작품이었다고 총평한다.
희망하는 심사결과를 얻지 못한 수상자 또는 낙선자는 순위에 관여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정진하시길 부탁드린다. 공부해온 날보다 공부할 날이 더 길지 않는가.
건축을 잘 하는 사람보다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실을 얻는다. 힘이 센 사람 보다 건강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장수하듯이…….

김형수 /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작년에 비해 부지의 조건과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민이 치열하였고 보다 세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점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대상인 Adaptation Algorism은 낙동강 하구지역의 소멸해 가는 어촌 마을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발과 보존 그리고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는 현실감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배어있는 수작이다.
우수작인 Transform은 지난번 불타버린 숭례문에 대한 많은 고민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숭례문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상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시도하였으며, 지하에 다양한 공간을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The Palate는 재미난 구성으로 도심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다. 그 매스의 리듬감이나, 다양한 오브제의 도입, 그리고 변화감 있는 공간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비교적 작은 대지가 도심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Neo Boundary는 평택 미군기지의 경계 담장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물을 설계한 작품으로 작품의 소재가 매우 독특하고, 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민 간의 갈등을 문화적인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Folding Urban Street는 매우 탄탄한 이론적인 기반과 학구적인 디자인 전개가 특출난 작품이다. 주변의 도시적인 Context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수준 높은 디자인의 해석을 적용하였다. 사실 이 작품은 실무적인 튼튼한 설계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출품자의 높은 설계 역량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작품이다.
Establish learning city by는 세계문화유산인 직지를 널리 알리고 교육도시인 청주의 문화적인 중심 센터를 구축하는 작품으로 직지심경을 발행한 흥덕사지와 연계된 다이내믹한 형태의 문화센터를 구성하고 있다. 공간의 분할과 확장, 엮임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과 기능을 디자인 하였다. 패널에서 보여지는 디자인 발전 단계도 매우 호소력 있게 정리되어있다.
특선 작품 중에는 Interface with flow가 눈에 띄는데, 디지털적 공간이면서도 아날로그의 감성을 건물의 형태로 풀어낸 수작이다. 우수상 작품에도 필적할 만한 개념의 전개와 독창적인 해결책의 제시가 돋보인다.
그 밖에 Rebirth of surface와 The Scape of Composition도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다.

김지한 / 한도시 건축사사무소

건축은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정의는 건축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시대성과 지역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학생들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공모전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주제를 찾으려 노력하였고, 그 주제에서 보다 진지한 관찰과 고찰이 이루어져 시대성과 지역성을 담아내려했던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보다 확장된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창의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원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력도 시대적 현실이 투영되지 못한다면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투영된 작품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들을 통하여 '건축사' 로서 현장에서 건축적 코드와 실무를 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랜 만에 내재되어 있는 건축적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르코르뷔지에' 의 곁을 지켰던 '앙드레 보겐스키' 가 '르코르뷔지에의 손' 이라는 책을 통하여 밝혔듯이 '르꼬르뷔지에' 는 항상 사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 사물과 현상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모전의 참여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주위에 범람하고 있는 건축적 언어의 유희와 건축에 대한 가벼운 사고는 우리가 경계해야할 또 다른 시대성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건축, 고찰을 통한 건축적 철학을 담기보다는 오직 보여 지는 것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건축,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는 작금의 건축 환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시대성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몇몇 출품된 작품이 그러한 잘못된 시대성을 담고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일컫는 '르코르뷔지에' 를 통하여 배워야 할 점은 그의 건축적인 천재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진실에 더 가까이 가려했던 그 겸손함과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본인과 출품자로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른 여러 작품들을 접하면서 그 겸손함과 정직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길 소망해보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글로 마무리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건축가' 는

시인이자 실용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생존자가 아닌 지도자라야 한다.!
그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건축주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가 아니라 건축주에 의해 좋은 건축이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과거에서 배우되 미래를 살고 있어야 한다.
자연 그대로든, 인공적인 것이든, 모든 '장소' 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완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갖되, 완벽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오만함을 지녀야 한다.!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받쳐주는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열정적이면서도 자비로워야 한다.
훌륭한 경청자이면서 음악과도 같은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A real architect must...'

be both a poet and a pragmatist.
be a leader, not a survivor!
be insatiably curious and without complacency.
always remember that architecture happens because of the client, not in spite of the client.
learn from the past, but live in the future.
never ignore the power of the 'place' - both natural and man-made.
be humble enough to realize perfection is impossible, but arrogant enough to keep reaching for it!
possess an integrity to focus complemented by an ability to laugh!
be both passionate and compassionate.
be a great listener and enjoy the music of life!

- William P. Bruder

백민석 /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먼저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에 참여한 모든 응모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심사위원의 일원으로 참여, 250여 개에 달하는 응모자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응모자들의 땀과 창작 의욕이 배어 있는 수많은 작품을 대하며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밤을 지새우던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젖을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사평을 대신하여 작품심사 과정에서 아쉬웠던 몇몇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까다로운 주제에 대한 응모자들의 제안들을 보면 작품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매우 진지하고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습니다. 다만 상세한 주제설명에도 불구하고 주제해석에서 오류를 범한 응모작 또한 적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 즉, 생존과 발전전략의 수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단순히 낙후된 지역의 '재생' 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타 공모전의 주제와 관련된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한 응모작 수가 눈에 많이 띈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난 해 응모작을 금번 주제와 부합된다고 하여 별다른 수정 없이 출품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금번 계획부문에 출품한 다른 응모자들과 열의를 가지고 이들을 지도한 선생님들, 행사를 준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은 물론 무한한 건축적 열정과 도전의 장인 금번 행사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출품자의 능력과 그 작품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스스로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 같은 행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당사자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정화되었지만 아직도 출품규정(시간, 규격 등)을 등한시한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수상의 영광이, 어떤 이에게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한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배 건축사들이 늘 하시는 말이지만 '건축' 을 배우는 과정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는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심신이 단련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응모자 대부분이 현재 학교에서 건축수업을 받고 있는 전도유망한 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주길 바랍니다.

황정복 / 예문 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계획건축물부문 작품공모의 의도는 기성건축사들의 준공된 작품이 아닌 학생과 신진들의 무한한 건축적 열정과 도전,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적 지식을 바탕으로 표현하여 평가받는 자리일 것이다.

'convergency'

참가자들은 자신이 장기간 생활했던 지역(고향 등)이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근무처 등)등 해당지역 상황의 의미 파악이 용이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경험을 한 지역을 대상지로 삼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을 'convergency' 라는 열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아이디어를 기대하되,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등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제안 이어야한다.

국토의 개발과 활용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므로 주거(dwelling)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쉽지 않은 설계지침이 있었다.

주어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내용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였다거나, 떠돌아다니는 유명자료들을 수집하여 나열한 듯 건축적인 창의성 및 실험적인 부분이 결여된 작품, 마감시간이나 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작품들은 평가기간 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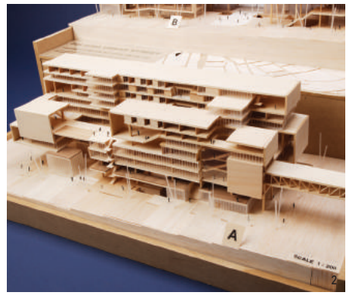
최종심사에 참여한 12작품은 모두 참신하고 주어진 주제에 부합되는 우수한 작품들이라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기발한 순발력과 체계화된 이론들을 들으면서 감탄 속에 나 나름대로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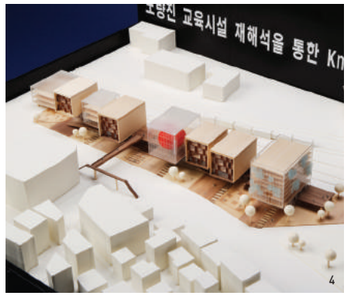
모든 작품이 시간과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열과 노력이 우리의 건축 미래를 밝혀주는 힘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한 학생 여러분들과 지도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시절에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경험을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계 · 획 · 건 · 축 · 물 · 부 · 문 | 대 상

Adaptation Algorism
– 개발과 보존의 틈, 놀차마을의 가능성을 말하다 /홍순필, 심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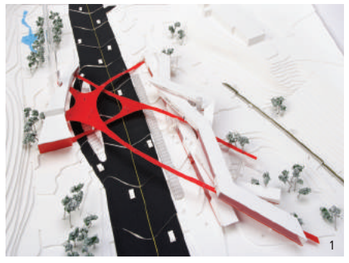
1.새로운 경계 / 이두호, 장윤희

2.가로연접공간의 폴드화를 통한 연도형 복합시설 구상 / 손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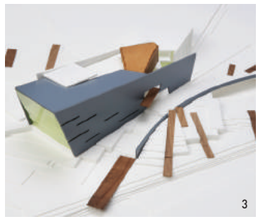
3.세계문화유산 직지를 통한 청주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안 / 김광준, 박성혜, 심경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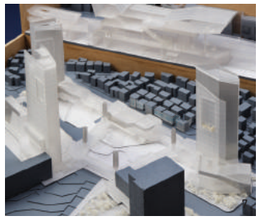
4.팔레트 / 이병희, 최주연, 강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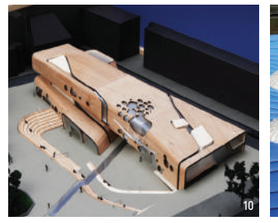
5.박제 화된 과거도시로 부터 살아있는 미래로... / 한병수, 이새롬, 조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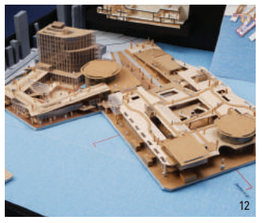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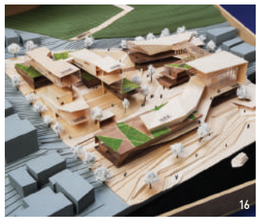
1.효에 대한 훌륭한 다스림 / 조혜리, 최진아 2.하이브리드 링크 / 박재현, 고성은, 김수현 3.판의 조작을 통한 해양관광문화 활성화 방안 / 김하해, 백승엽, 김미진 4.복합성속의 풍경 / 기대영, 고영성, 박상규 5.감성적 매개체를 통한 디지로그적 공간 생성 / 손기성, 서란희, 곽지숙 6.네트스케이프 : 공간의 해체 / 김재식, 이필석











1. 혼성공간 / 박보미, 강지명
2. 대지와 인위공간의 혼합 / 최두성, 강대선
3. 지역의 공익화와 발전적 미래 위한 다목적공간의 부활 / 이기혼
4. 광복동 복합문화스튜디오 계획안 / 배호진, 박진경, 최경식
5.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다문화에 따른 우리지역사회의 융합 / 김지훈, 정진철, 임동진
6. 회귀 / 정용욱, 김종민, 유호형
7. 대학과 도시의 융합을 통한 구도심 재생 / 이형진, 이새롬
8. 지역문화와 섬유산업의 융합을 통한 섬유문화공원단지계획 / 명종수, 문고리, 김재강
9. 스토리텔링 / 김미란, 손명준, 정나영
10. 디스플레이 장치를 외피로 활용한 대학로 기업홍보관 + 소극장 계획안 / 이병현
11. 흐름의 중심 / 이승훈, 김지원, 박찬서
12. 다양한 흐름을 위한 연속된 매개공간
(부제. 국제여객터미널 복합계획을 통한 활성화방안) / 신승윤, 김용찬, 김태인
13. 로하스 개념을 적용한 전주시 장인 문화 복합시설 계획안 / 고영빈, 권태구, 고병주
14. 대전시청광장과 보라매공원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 / 윤현진
15. 상호작용으로 재정의된 장소 / 정지혁
16. 태안 상업복합터미널단지 계획안 / 정민규, 김동욱, 김응수
17. 인프라 스케이프 / 백경욱, 서동건, 채현정
18. 천안시민의 지속가능한 동화(銅貨) 형성을 위한 도시문화창조 / 이종진
19. 초량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 / 전정인, 노동우, 정의문
20. 심포니 #5 / 조성진, 강연모, 신지섭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신영훈 한옥문화원 원장

Q.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을 깊이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영예롭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주제가 상을 받았으니 염치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건축계가 한옥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건축계에 희망을 가진다고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문화의 조형미에 눈뜨게 해주신 최순우, 황수영 선생님, 남대문 수리과정에 조감독관으로 일하게하면서 한옥(韓屋)을 몸에 익히게 해주신 임천 선생님, ‘집이 무엇인가?’ 를 평생 화두로 삼게 해주신 송광사의 구산(九山)스님 등 평생 한분 모시기도 어려운 선생님들을 모셨고, 그 분들께서 이론(理論)과 현장을 습득하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Q. 약 40여년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전통건축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셨는지요.

A. 1955년 고 최순우 선생(전 국립박물관장)의 강의를 듣고 한옥에 빠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57년부터 국립박물관 학예관으로 일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대의 도편수이시던 이광규선생을 모시고 민병도 선생의 살림집 짓는 일의 목재수급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전과정을 진행했는데, 이 일이 좋은 결과로 주변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학문적 탐구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한옥의 길을 걷게되었습니다.

Q.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우수성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한옥은 독창성과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옛날 집들을 자세히 보면 대문 모양 하나도 다 개성이 있습니다.

사실 하회마을에만 가보아도 같은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물질보다 정신세계를 구축하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창조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한옥에서 자랐으면 합니다.

또한 한옥은 마당과 뒤뜰이 있어서 개방감이 있으며 갑작스레 손님들이 찾아와도 사랑채와 대청마루에서 얼마든지 담소를 즐길 수 있어서 그나마 삶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우리의 소중한 전통건축 보존과 보호를 위한 의견 및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일본에서 얼마간 머물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주거의 양식이 시대별로 우리의 것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실크로드 여행 중에 우리의 단청, 벽화, 산성 등이 곳곳에 남아있었는데 정말 소중해 보였습니다.

불란서와 영국 그리고 덴마크등지에서 한옥을 지어 소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나무와 흙 그리고 돌만으로 구성된 건축물에 대해 21세기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이라고 호평했으며 특히 창호지를 통한 자연채광은 부드러움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그 외 구들 등은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바닥 난방용기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렇듯 국외에서도 우리 전통건축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통건축에 대한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이론을 좀 더 정립시키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에서 한옥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며 우리의 것을 소중히 알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Q. 국내 전통건축 계승 및 발전을 위한 계획 또는 기관이 있는지요.

A. 내 것을 알 때 남의 것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남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알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단순히 글로만 배운다고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와 체험이 고귀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알 수 없는 유사 한옥들이 곳곳에 난재하고 있어서 내심 걱정됩니다.

겉모습과 형식만을 모방한다고 해서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걸맞는 전통건축 즉, 자연에 순응하고 인간을 위한 건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1999년부터 한옥문화원을 설립하여 한옥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 들에게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전수하고 있습니다.

Q.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수상자로서 후배 건축인과 후학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요즘 한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저희 한옥문화원에 찾아와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더 진지해 지고 있습니다.

건축에 한옥의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는데,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감사하기 이를데 없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도가 되고, 그것들이 비평과 호평을 받으면서 식견이 쌓이면 우리의 건축이 독창성과 아울러 든든한 깊이를 가지게 되고 세계무대에서도 주목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요점만 빨리 얻어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더러 보게 되는데, 한옥공부가 그렇게 금방 바닥이 보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몸에 들어온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부한 것이 식견으로 쌓이고 철학을 형성하는 수준이 되어야 내가 짓는 집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현장에서의 탐구는 물론, 역대의 조영된 기록들을 숙독하면서, 스승님들께 일깨우신 말씀을 반추하면서 전국의 이름난 집들을 순방하며 탐구를 지속하니 한옥에 대한 식견이 쌓이게 되었다는 점을 후배들에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것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통건축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 임영석 건축사지편집위원

사진: 손석원 기자

▌약 력

- 1935년 개성출생
- 1956년 서울 중앙고 졸업
- 1962~1999년 문화재 전문위원
- 1962년 남대문 · 경주 토함산 석불사 · 금산사 미륵사 중수 공사 감독관, 안동별궁 이전공사 감독관, 진주성 중건공사 감독관, 덴마크국립박물관 백악산방, 영국박물관 한옥사랑 건축
- 1999년 한옥문화원 설립
- 2001년 21세기 한국인의 살림집을 위한 시도로 강화 ‘학사재’ 신축
- 2008년 현 한옥문화원 원장

ACA-13

THE 13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BOUNDARY AND BEYOND:
A Trans-Disciplinary Recharging of Architecture

경계로 너머: 분야간 소통으로 재충전하는 건축

OCT. 27 - NOV. 01, 2008 Bexco, Nurimaru APEC House, Busan, Korea

Organized and Hos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BUSAN CHAPTER, KIRA

주최:대한건축사협회 / 주관:부산건축사회

arcasia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8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

- 아임삭 오창공장
-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 동백 아펠바움

본 상
- 백남준 아트센터

-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 관악산 휴먼시아

- 루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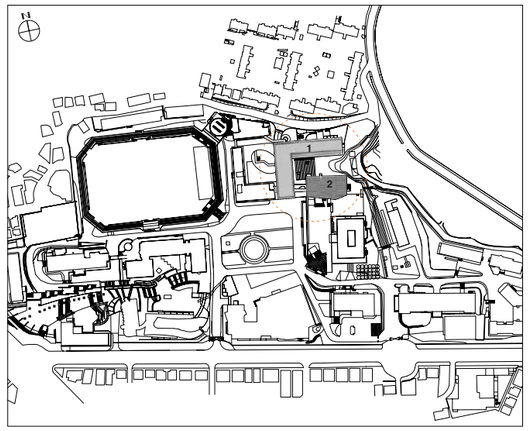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
JoManSik MemorialHall & Westminster Hall

■**설계자** **이성관**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by Lee, Sung-kwan

약력
-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 대학원 졸업
- 컬럼비아대학 건축과 대학원 졸업
- 현 서울대학교 출강
- 현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시공자** 쌍용건설(주)
■**건축주** (학)숭실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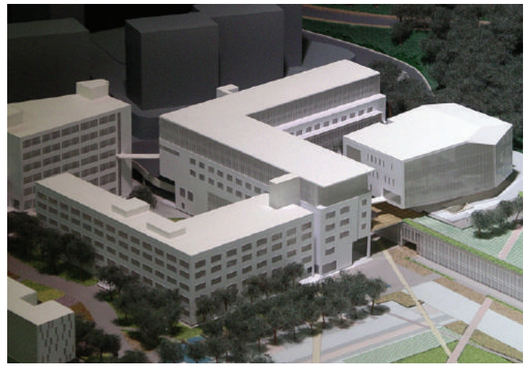
● **배치도**



1. 조만식기념관 2. 웨스트민스터홀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511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21,608.20㎡
건축면적	전체시설 31,126.80㎡/해당시설 5,224.30㎡
연 면 적	전체시설 162,432.82㎡/해당시설 31,862.59㎡
건 폐 율	25.60%
용 적 률	105.54%
규 모	지하 2층, 지상 7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고흥석버너구이, 티타늄아연판,IPE목, ZINK,AL타공판
전기설계	(주)진전기ENG
구조설계	미래이엔씨구조기술사사무소
설비설계	(주)성일이엔씨
설계담당	김현조, 정규백, 엄덕흠, 성창수, 박일권, 현상헌, 심우진, 이재현, 김대희, 차은경, 유미란



Location 511, Sangdo-dong, Dongjak-gu, Seoul, Korea
Site area 121,608.20㎡
Bldg area 5,224.30㎡
Gross floor area 31,862.59㎡
Bldg coverage ratio 25.60%
Gross floor ratio 105.54%
Structure R.C
Bldg. Scale B2, F7

1_ 모형
2_ 착공전 전경-1
3_ 착공전후 전경-1
4_착공전 전경-2
5_착공전후전경-2

종합강의센터는 캠퍼스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시설물 확충이라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2002년 9월에 지명현상으로 추진되었던 계획이었다. 본 부지는 인문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하며, 북측으로는 아파트군과 인접하며, 동측으로는 서달산 자락과 맞닿아있으면서 지상3층 규모의 구 채플 건물이 놓인 일단의 부지이다.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이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원강의실 및 연구실, 실내체육관등을 포함한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종합강의센터(준공 후 조만식기념관 & 웨스트민스터홀로 개명)"을 신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숭실대학교는 주변 도시지역과 자연이 만나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린 캠퍼스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서달산의 능선축이 바로 이 부지에서 시작하여 캠퍼스 전체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해있는 기존의 구 채플 건물은 서달산을 캠퍼스내로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경사지라는 지형적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캠퍼스와 자연을 단절시키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었다. 서달산의 자연공간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막아왔던 이 건물을 해체하고, 또한 서로 너무 열려 있어 학교로부터의 소음과 상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켜 상호 불편한 관계 속에 놓여 있던 인접 아파트군을 신축 건물로 차단해 캠퍼스 분위기를 회복하려 했으며,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과 절묘하게 타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려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이 들어서게 될 종합강의센터의 기본 개념은 단절된 흐름을 "치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간적 잠재력을 지닌 장소로의 "재생"이었다.

캠퍼스 내 이 부근은 전체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밀집되는 곳이다. 따라서 각각의 공간은 단순히 평면적 나열이 아닌, 유기적으로 해석되고 입체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석되며, 행위를 중심으로 상호 반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 했다. 주변광장 및 보행로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동 및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 기존을 포함한 종합강의센터 1.2.3.4관을 각각 브리지로 연결하여 시설의 유동성을 높이려 하였다.

본 종합강의동 계획의 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훗날 당선된 숭실대학교 캠퍼스마스터플랜(SSUMP)의 주골격이 되는 "그린 스파인Green Spine"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전체적인 배치는 "ㄷ 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ㄱ-자형" 매스와 하부가 필로티 처리된 비정형박스 상태의 매스로 채나눔하였다. 이들 매스는 두개의 브릿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3층에 설치하여 남측의 중앙도서관 전면에 위치한 후생관 상부의 옥상광장 연결시켜 중앙도서관과 후생관으로의 접근성 및 옥상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5층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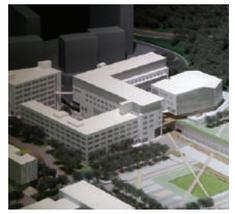
하여 시설물간 접근 및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서측의 기존 인문관 건물 및 북측의 중소기업센터 건물과의 연결 브릿지를 추가로 신설하여 건물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이동 및 학습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하였고, 장래에 개별건물의 공간이 부족할 시 인접건물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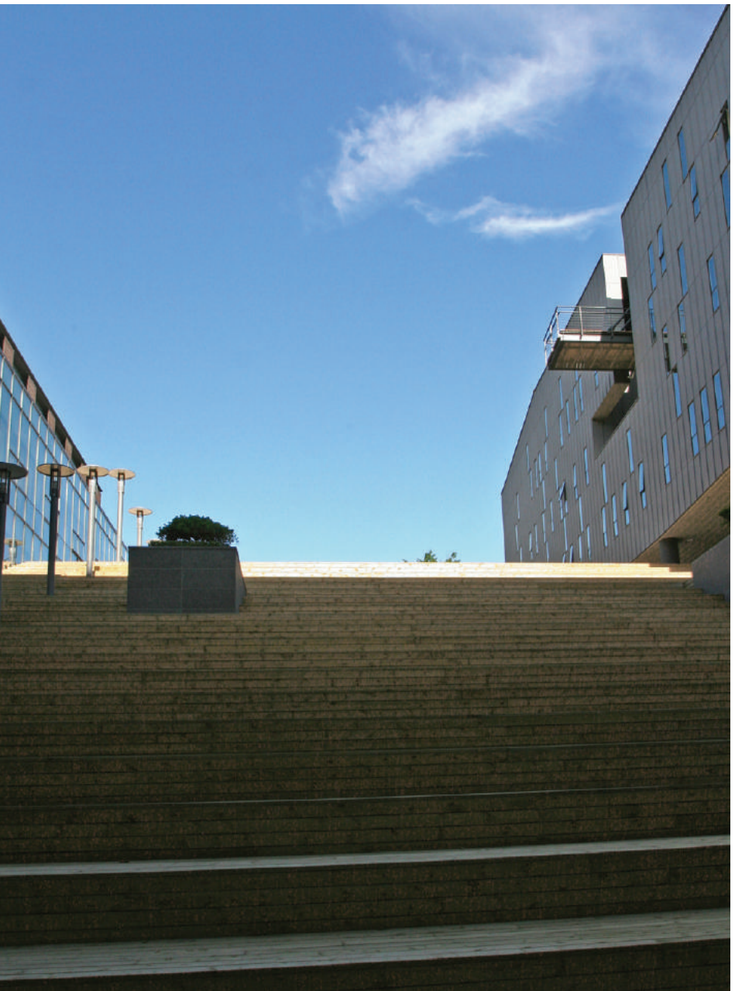
"ㄱ-자형" 매스와 "박스형" 매스 사이의 외부공간은 서달산의 흐름을 캠퍼스내로 끌여들이도록 계획하였다. 상부는 경사지형을 활용한 목재로된 계단식 스탠드만들어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서달산 지형의 흐름을 캠퍼스내로 유입시키고, 이로 인해 생겨난 하부공간은 피트니스센터, 조깅트랙등을 포함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하였다.

대부분의 국내 대학건물들의 공통적 여건이기도한 넉넉지 못한 예산과 낮게 책정된 공유면적비 등을 감안해 공간들 간 밀도의 집중과 분산을 전략적으로 잘 설정하여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각 건물들은 시차를 두고 지어지고, 시공도도 다르며 시설노후도도 다르며 형태 또한 제각각이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전하는 일을 학교 측은 부담스러워한다. 하물며 허물고 신축하기란 더욱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골조를 살려두고 구조보강을 하면서, 방학 등을 이용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접한 노후건물이 있을 경우는 그 볼륨을 미래의 잠정적 문맥으로 가정하고 계획하는 게 불확정한 미래를 대처하는 그나마의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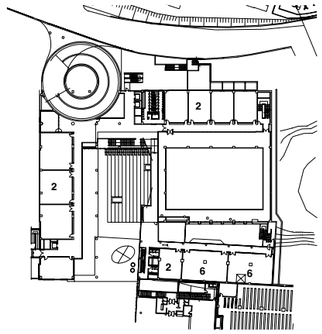
본 건물이 준공되자 마자 조만식기념관과 서쪽으로 만나는 ㄴ자형의 기존 인문관을 곧장 법학관으로 리모델링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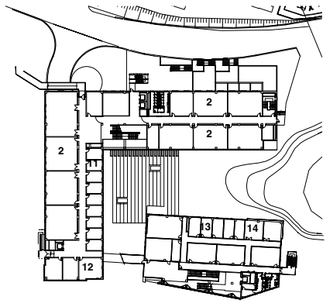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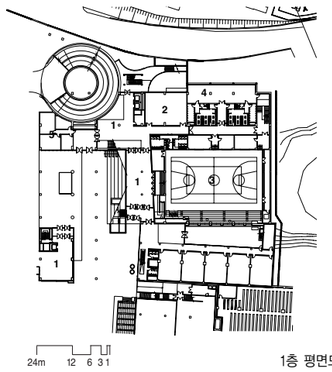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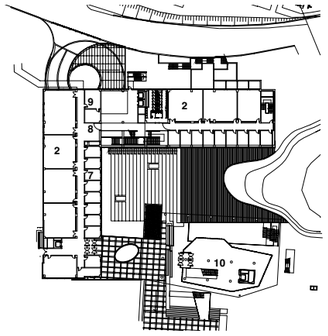
1. 숭실대캠퍼스 마스터 플랜 계획안
2. 계단식 스탠드 전경
3. 연결 브릿지
4. 계단식 스탠드 상부에서 본 전경
5. 계단식 스탠드 상부에서 본 전경
6. 웨스트민스터홀 야경
7. 연결 브릿지
8. 연결 브릿지

01_ 홀
02_ 강의실
03_ 다목적체육관
04_ 체력단련실
05_ 관리실
06_ 도서실
07_ 학생회
08_ 자료실
09_ 학과실
10_ 휴게실/매점
11_ 교수실
12_ 학장실
13_ 원장실
14_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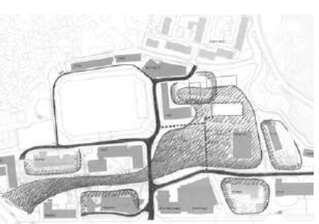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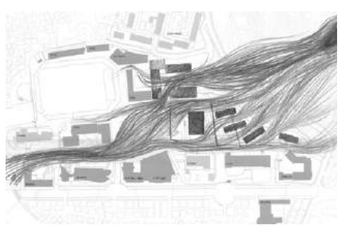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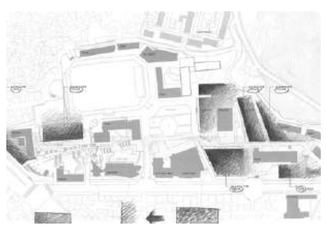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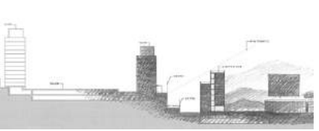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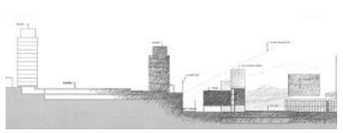
1_ 필로티에서 바라본 계단식 스탠드
2_ 계단식 스탠드
3_ 계단식 스탠드
4_ 현상설계당시 개념 스케치
5_ 전경
6_ 진입부 전경
7_ 웨스트민스터홀 필로티
8_ 계단식 스탠드 상부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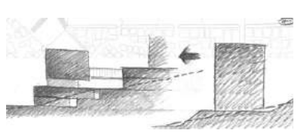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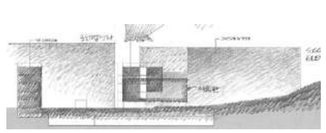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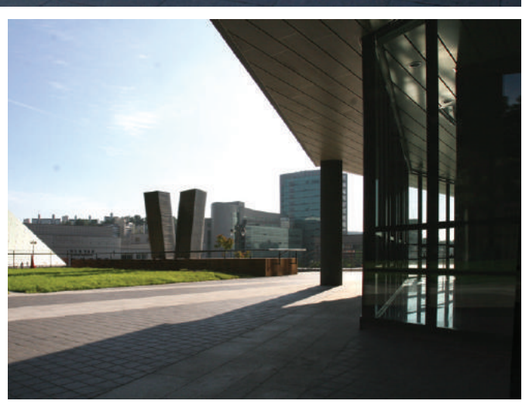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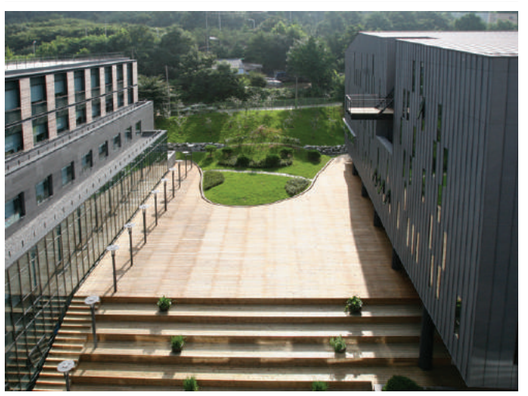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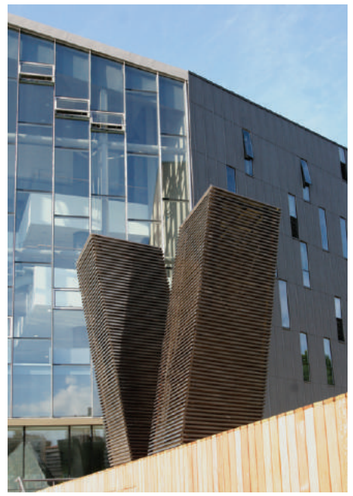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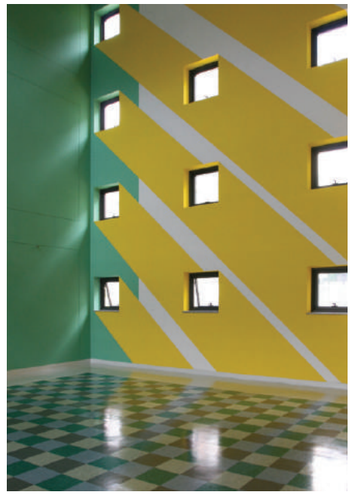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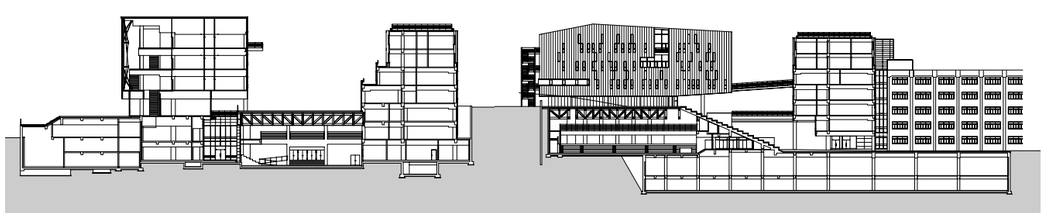








1_ 웨스트 민스터홀 하부 선큰
2_ 배기터워
3_ 조만식기념관 ELEV홀
4_ 조만식 기념관 주계단 및 복도 전경
5_ 웨스트민스터홀 주계단 전경



주단면도

북측입면도

아임삭 오창 공장
Aimsak Ochang Fa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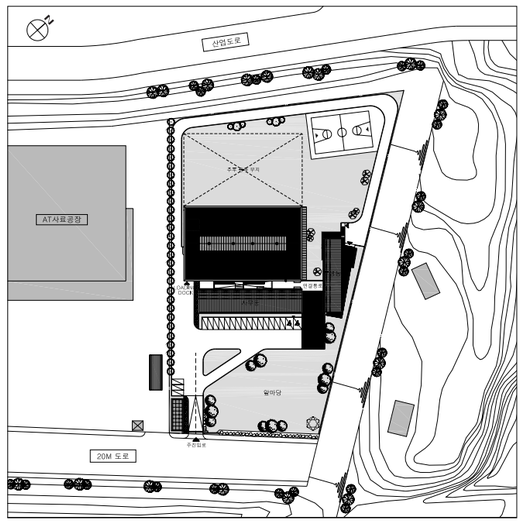
건축사지 2008년 4월호 게재

■**설계자** **신춘규 /** (주)건축사사무소 시그에이
by Shin, Chun-gyu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 도시계획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장 역임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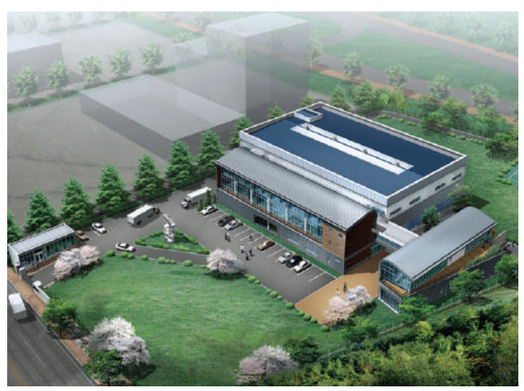
■**시공자** 주식회사 팀이십일 건설
■**건축주** 주식회사 아임삭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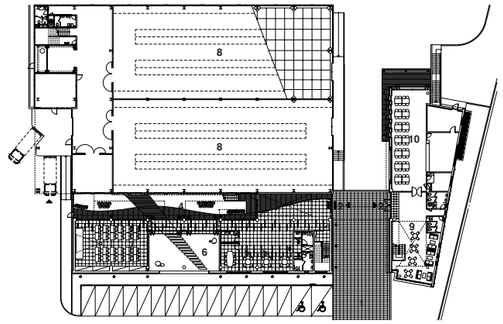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313.1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군용항공기지구역
주요용도	공장
대지면적	10,802.7㎡
건축면적	2,434.08㎡
연 면 적	5,305.38㎡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공장동: 철골조, 사무동및후생동: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에폭시 코팅, 콘크리트 면처리위 지정색 아크릴페인트
외부마감	공장동: T40 폴리카보네이트 W / T75 우레탄패널 사무동및후생동: JR강판 및 적삼목사이딩 알루미늄창호 W / 18mm 복층유리
구조설계	오성구조(대표 김신기)
전기설계	(주)다우티이씨(대표 원상욱)
기계설계	(주)건화엠이시(대표 유진용)
인테리어	(주)팀이십일건설 인테리어 사업부
시 공 자	(주)팀이십일건설(대표 이승용)
건 축 주	(주)아임삭(대표 김대원)
설계담당	김유홍, 이혜원, 박주원
사진촬영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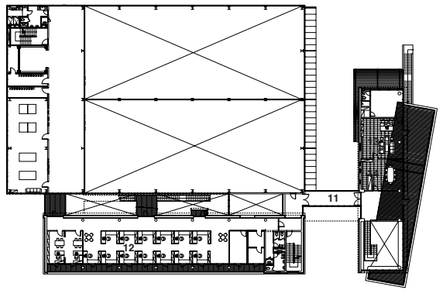


Location 313.1, Songdea-ri, Ochang-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Site area 10,802.7㎡
Bldg area 2,434.08㎡
Gross floor area 5,305.38㎡
Structure S.C + R.C
Bldg. Scale B1, F3

1_ 조감도 2_ 전경 3_ Aimsak Valley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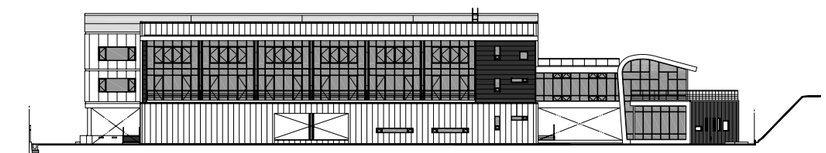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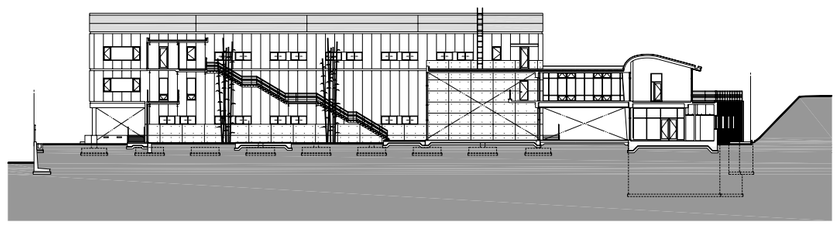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_ 대회의실
2_ 로비
3_ 사무동 3층
4_ 후생동 홀
5_ 사무동 연못
6_ 주출입구 야경

01_ 진입마당
02_ 주출입구
03_ 로비
04_ Aimsak Valley
05_ 접견실
06_ 정원
07_ 대회의실
08_ 부품창고
09_ 휴게실
10_ 식당
11_ 연결통로
12_ 사무실
13_ 사장실
14_ 회의실



정면도



횡단면도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Gimpo Sugi-Maeul Apartment

■설계자 이승연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by Lee, Seung-youn

약력
- 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졸업
- 한국도시설계학회회원

■시공자 현대건설(주)
■건축주 현대건설(주)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고촌도시개발사업지구
지역/지구	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공동주택
대지면적	169,815.20m²
연 면 적	511,661.45m²
건 폐 율	1단지: 19.75% , 2단지: 19.88% , 3단지: 22.10%
용 적 률	1단지: 214.27% , 2단지: 241.50% , 3단지: 213.57%
규 모	2,605세대 (1단지: 1,253세대, 2단지: 1,149세대, 3단지: 203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진구조
외부마감	콘크리트, 수성페인트 (1, 2층 화강석 물갈기)
구조설계	일구조
전기설계	석우엔지니어링
설계담당	김성기, 박노현, 김민집, 장명석, 김응석, 홍종덕, 조덕상, 신재영, 강미주

Location Singok-ri, Gochon-myeon, Gimpo-si, Gyonggi-do, Korea
Site area 169,815.20m²
Gross floor area 511,661.45m²
Bldg coverage ratio Ⅰ: 19.75%, Ⅱ: 19.88%, Ⅲ: 22.10%
Gross floor ratio Ⅰ: 214.27%, Ⅱ: 241.50%, Ⅲ: 213.57%
Structure R.C
Bldg. Scale B2, F15

1_ 항공사진 2_ 단지 전체 전경

052~057p` ² _·°» _˜œ&”˜ ˜fi 2008.10.23 3:2 PM ˜ ` 53

Art Community |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Life Style 이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그 중요도가 더해만 가고 있다. 단순히 unit을 쌓아가던 과거의 공동주택에서 이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계속해서 그 기법들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기존의 커뮤니티 시설들 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랑 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는 유기적 동선의 연계를 위하여 경사를 극복하는 노드점에 놓이고, 또한 단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 놓는다. Art Community, 이는 실생활에서 함께 숨쉬는 건축물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한계에 도전한 색채입면계획 | 항공고도제한이라는 법적 제약으로 건축물 자체의 스카이라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을 색채계획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4계절의 표현이자 지리학적 개념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역동적이며, 활력을 불어 넣어주리라 기대한다. 또한 입면계획은 조망을 충분히 고려 하였으며, 돌출된 베이비윈도우나 거실 전면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강화유리의 사용으로 기존 아파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입면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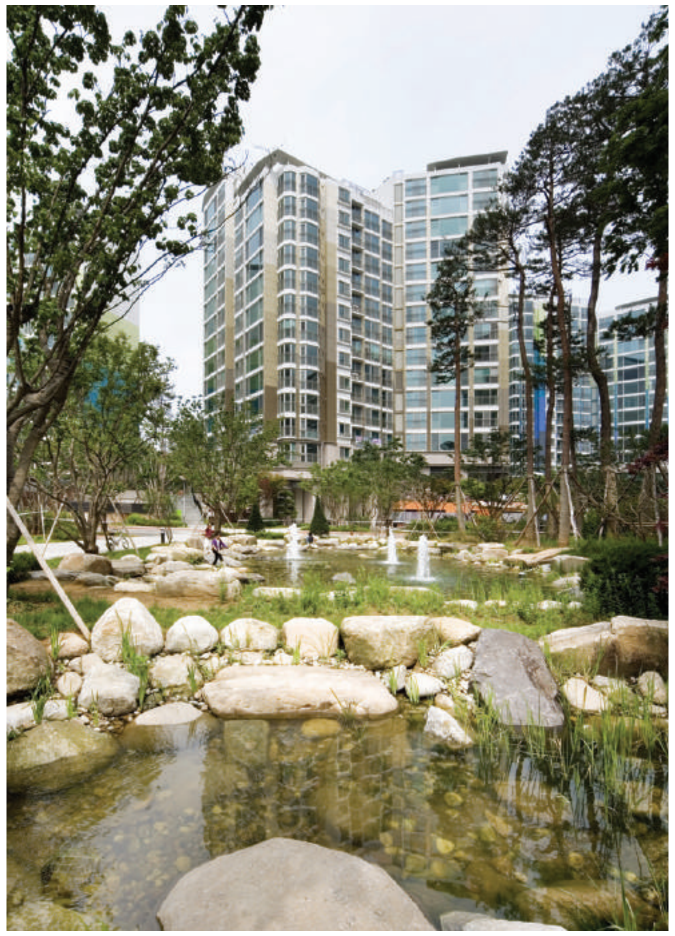
면진구조 | 국내최초로 면진구조를 공동주택에 적용하였다. 지하와 지상의 구조체를 분리 그 사이에 면진구조체를 설치하여 지진발생시 흔들림을 최소화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생각이다. 설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기쁨도 그에 못지 않게 컸다.

건축사는 지구를 조각하는 예술가 |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삶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없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생겨나고, 도시의 거리가 걷기에 즐거워지고 하나하나가 예술장식품 같다면 우리 건축가들은 지구를 조각하는 예술가 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참으로 느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느리다고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싶다. "건축물에 삶을 담고 역사를 담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진정 지금의 삶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고 싶고, 느림의 미학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끝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건설사관계자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준 우리 원양건축 설계 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圖

052~057p 2008.10.23 3:2 PM 54



1_ 2단지 천변 전경
2_ 1단지 정원 전경
3_ 1단지 자연형 실개천
4_ 1단지 천변 전경
5_ 2단지 전경
6_ 2단지 천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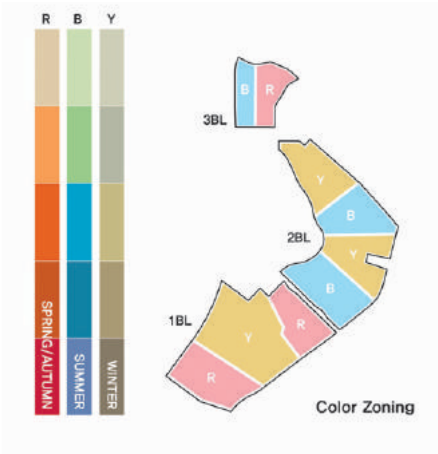
김포수기마을의 사계

한국의 사계를 품은 아트컬러(지리학적 개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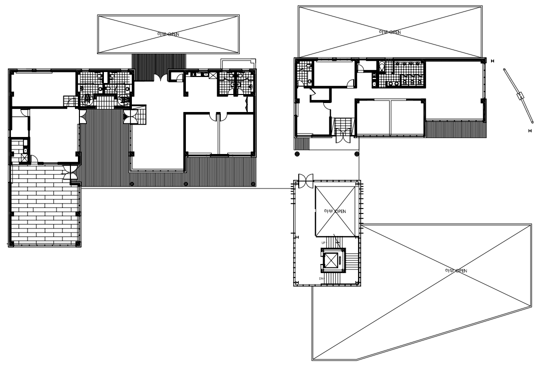
봄, 여름, 가을의 컨셉에 맞춰 건물의 색채가 건축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환경색체로서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환경과 어우러 질 수 있는 잘 정리된 고채도의 색체계획을 통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색체의 물결을 경험할 수 있다.

조망을 고려한 모던 클래식 입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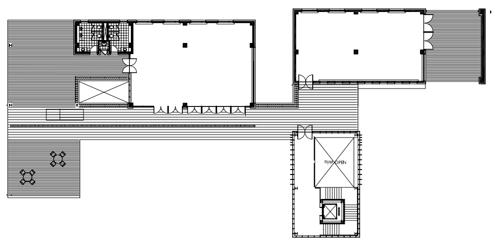
단지전체의 스카이라인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동계획 및 입면계획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고 자연과 조화되는 외관창출로 주변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적이고 표정있는 외관을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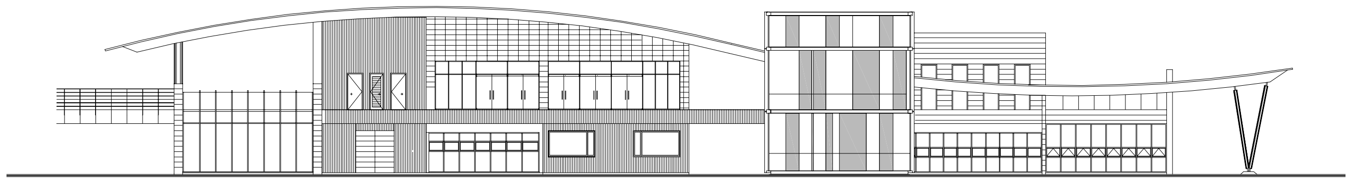
052~057p` ì _·°» _˜o&"¯ ˜fi 2008.10.23 3:2 PM ˘ ` 56



주민복지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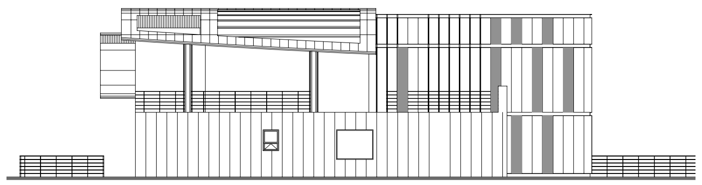


주민복지관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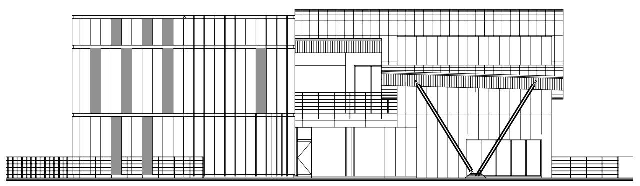


주민복지관 정면도

1_ 커뮤니티 광장
2_ 1단지 커뮤니티 내부
3_ 2단지 커뮤니티
4_ 단지 주출입구
5_ 단지 유실 수원
6_ 2단지 정원 전경
7_ 3단지 자수화단
8_ 야외 공연장
9_ 지하주차장 색채 디자인



주민복지관 좌측면도



주민복지관 우측면도

용인 동백 아펠바움
Dongbaek Apelbaum

■**설계자** **최삼영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Sam-young

약력
- 공간연구소(김수근) 근무, 와세다대학교 건축대학원 객원 연구원
- 국립경상대학교 겸임교수

주요작품
- 고양시 덕양구청사, 헤이리 SOSO갤러리, SK동백 아펠바움 외 다수

■**시공자** SK건설(주)
■**건축주** 모닝브릿지 주식회사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954번지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블록형 단독주택
대지면적 19,671.00㎡
건축면적 5,659.99㎡
연 면 적 9,759.04㎡
건 폐 율 28.77%(법정50%)
용 적 률 43.82%(법정1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경량목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벽마감 : 지정목재사이딩, 스타코마감, CSR보드
지붕 : 칼라강판 돌출이음
내부마감 바닥 : 온돌마루, 벽 : 고급벽지
천장 : 고급천장지
전기설계 (주)대경전기
기계설비 (주)세아ENG
설계담당 박찬규, 조만재, 백혜수, 이진효, 김영부, 이옥련

Location 954, Jung-dong, Yongin-si, Giheung-gu, Gyeonggi-do, Korea
Site area 19,671.00㎡
Bldg area 5,659.99㎡
Gross floor area 9,759.04㎡
Bldg coverage ratio 28.77%
Gross floor ratio 43.82%
Structure Wood + R.C + Light weight steel Structure
Bldg. Scale B1, F2

1_ 단지 내부 전경 2_ 단지 외부 전경

도심지를 건너에 두고 석성산 자락에 물려있는 용인 동백 아펠바움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순환하는 내부동선을 갖고 있다. 원형지를 최대한 이용하여 단지 내의 필지들을 형성함으로써 블록형 단독주택이 가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최대한 배려하였고 각 필지간에 자연스러운 높이차를 형성하여 상호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석성산의 스카이라인을 그대로 단지 내로 유입하여 단지 전체가 경사지붕을 가지게 되고 이는 자연과 일체화할 수 있는 풍경을 만들어 낸다. 단지외부 20m도로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개별의 필지들이 만들어낸 입면들이 반복을 이루어 하나의 입면으로 통일되며, 단지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동백 아펠바움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혼합한 전원주택 성격의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개성 있는 삶을 다양하게 담아내는 공간과 이웃간의 커뮤니티를 함께 엮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진입부에 커뮤니티를 배치하였고, 피로티 공간을 두어 공공녹지의 확장과 비를 맞지 않는 외부공간을 제공하여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 공간에는 다목적 공간을 구성하여 취미, 교양, 문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단지 입구의 주진입로는 단지 외부의 보행동선을 단지내부의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주진입부의 테마수종 및 케스케이드(cascade)를 설치하여 수생식물을 도입하는 등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있는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보행자 중심의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보행로는 잔디와 파벽돌을 혼용하여 그린 네크워크를 형성하며, 단지 내 휴게공간은 주민들의 담소 및 소통의 공간으로서 계절감 있는 수종 식재와 수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단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형에 따른 위치적 장점을 살리고 평면 및 공간구성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각 필지마다 개성을 부여한 동백 아펠바움 단지는, 내부의 순환하는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단지외부의 20m도로에 접한 도로형, 내부형 그리고 석성산에 접한 산접형이라는 세가지 분류에서 유니트 개발을 시도하였다. 도심지에서 단지로의 켜를 도로형에서 만들어주고 내부형은 단지 내의 켜들을 연결하여 준다. 또한 산접형은 주택단지에서 석성산으로의 연계를 만들어줌으로써, 도심에서

자연으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단지 외부와 내부가 서로 소통하게 하고, 이는 필지의 배치개념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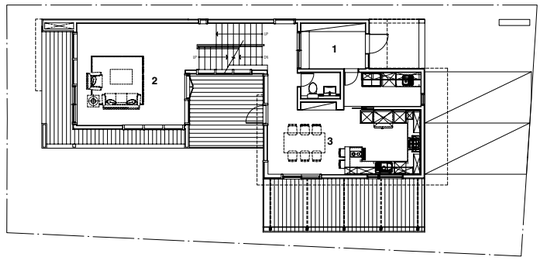
도심지라는 입지때문에 필지들이 여유가 별로 없어 가능한 마당의 효용성과 단지의 여유를 확보하는데 배치의 주안점을 두었다. '채나눔' 이라는 각 필지의 배치계획은 전통적 공간을 계승하여 구축함으로서 자연과의 조우(遭遇), 삶의 다양한 형태주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공간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준다. '채나눔' 이라는 배치계획은 내부적 외부공간을 만들어주고 협소한 필지의 이용효율을 높이며, 이를 통해 깊이 있는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마당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스분리를 통해 채와 채 사이에 앞뒤 마당이 구성되어 채 사이를 이동하며, 외부공간의 조경 및 데크를 만나면서 단독주택이 가지는 즐거움이 마당을 통해 회복된다.

내부의 공간들은 다양한 천정고를 가짐으로써 리듬감 있는 공간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적극적인 개방감을 가진 거실은 자연스러운 외부와의 소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식당은 거실과 뒷마당을 연결하여 내부공간이 외부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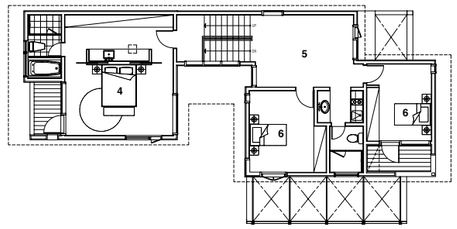
공용공간은 풍성한 공간감을 확보하여 공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마스터존은 침실, 드레스룸,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부부전용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동백 아펠바움 단지 입구에 들어서면, 게이트를 통해 이 주택단지가 목조주택 단지임을 첫눈에 알아보게 된다. 이 게이트는 여느 주택단지와 달리 목재의 구조미를 충분히 살린 공학목재프레임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각 세대의 외장재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를 주요 외장재로 선택하여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단지를 형성하고자 한다. 선적인 요소인 목재사이딩, 잿빛의 칼라강판 그리고 면적인 요소인 CSR보드, 스타코, 노출콘크리트는 각각의 요소들이 적절한 비례로 어우러져 각각의 필지들이 가지는 개성들이 모여 단지전체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1_ 단지입구에서 바라본 커뮤니티 및 게이트
2_ 단지 내부 전경
3_ 커뮤니티
4_ 단지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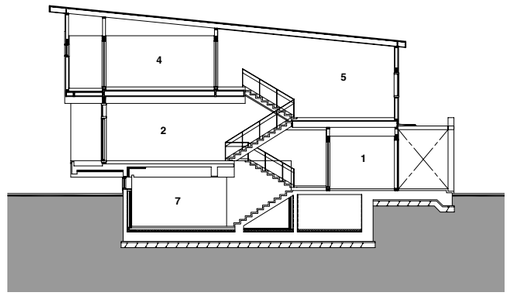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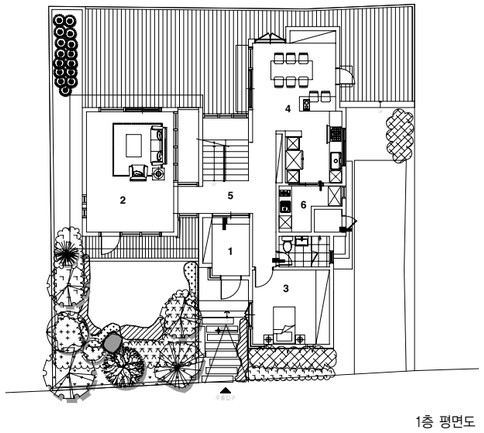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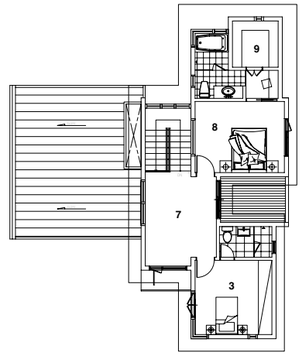
단독주택-도로형

1_ 전경 3_가족실 **01_** 현관 **04_** 부부침실
2_ 거실 4_전경 **02_** 거실 **05_** 가족실
03_ 식당 · 주방 **06_** 방 **07_** 멀티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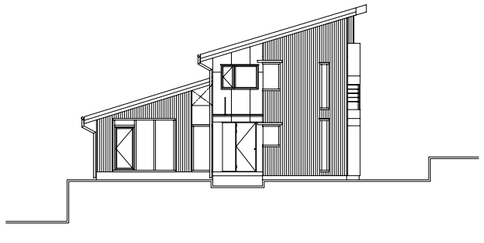
01_ 현관 **04_** 식당 · 주방 **07_** 가족실
02_ 거실 **05_** 복도 **08_** 부부침실
03_ 방 **06_** 다용도실 **09_** 드레스룸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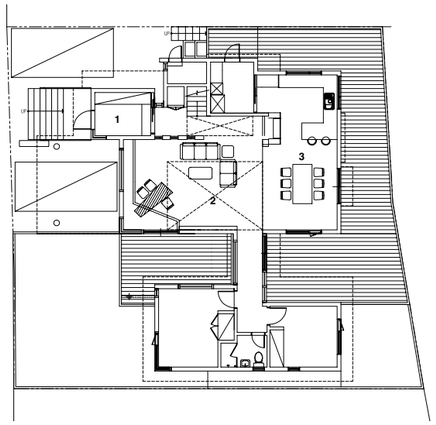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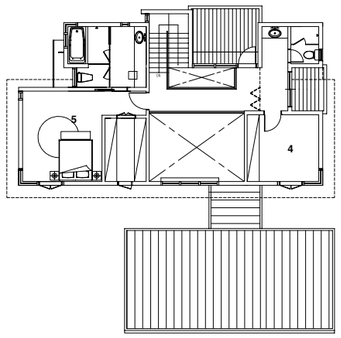
정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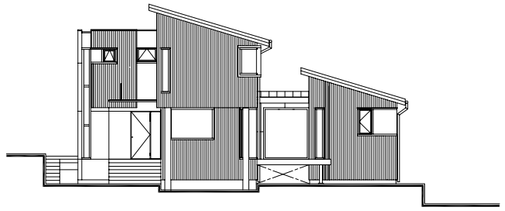
단독주택-내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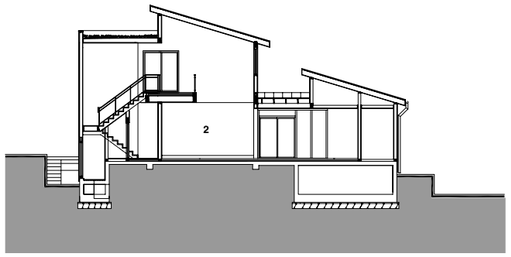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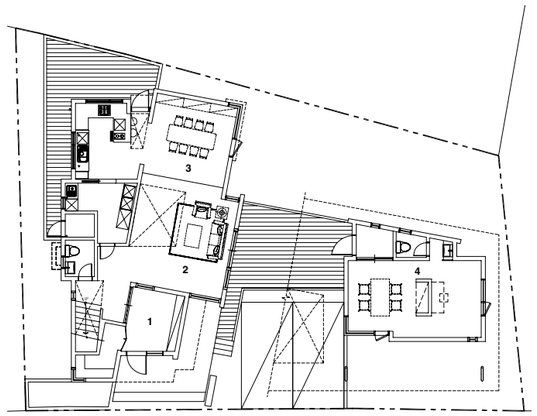
종단면도

단독주택-산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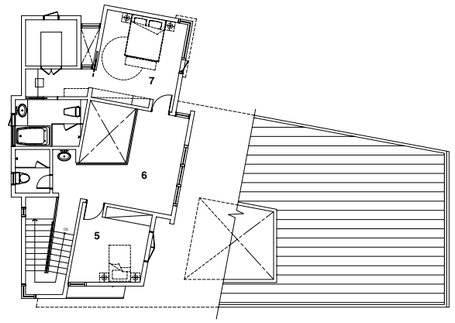
1_ 전경
2_ 2층 연결복도
3_ 거실
4_ 전경
5_ 내부마당

01_ 현관
02_ 거실
03_ 식당
04_ 방
05_ 부부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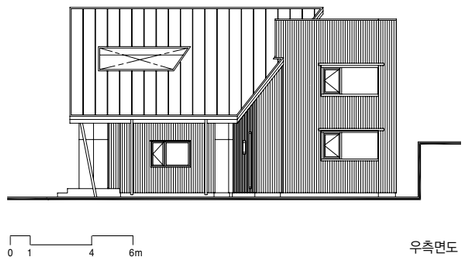
01_ 현관
02_ 거실
03_ 식당
04_ 사랑방
05_ 방
06_ 가족실
07_ 부부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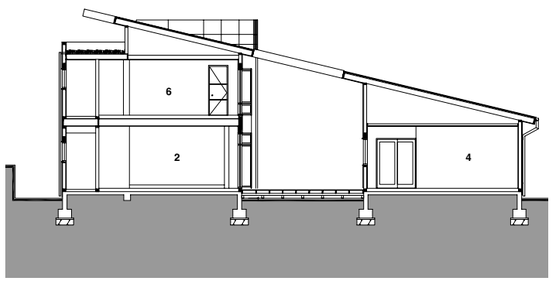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

단독주택-(내부)특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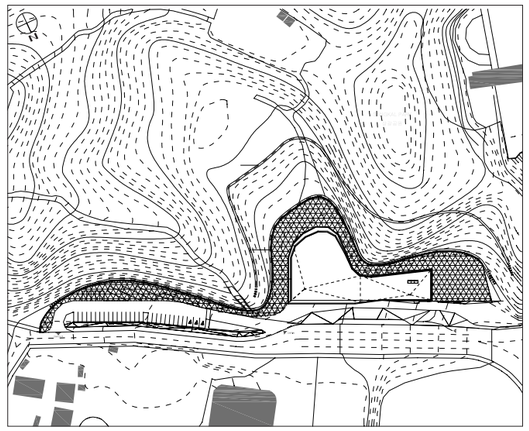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
NAM JUNE PAIK Art Center

■**설계자** **김병현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Byeong-hyun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동대학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대표이사 역임
- 서울대학교 및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역임

■**시공자** 현대건설(주)
■**건축주** 경기도청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상갈리 85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내)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54,681㎡
건축면적	1,857.21㎡
연 면 적	5,605.09㎡
건 폐 율	9.51%
용 적 률	16.68%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 조	R.C+Steel
내부마감	벽체: MDF PANEL PAINTED BLACK 바닥: SEAL HARD, WOOD, CARPET TILE 천장: EXPENDED METAL
외부마감	복층유리 W/SILK SCREEN PATTERN
구조설계	전우구조
설비/전기	한일MEC
설계담당	이강우, 최경수, 안성진, 박봉준, 이재원

Location 85, Sanggal-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54,681㎡
Bldg area 1,857.21㎡
Gross floor area 5,605.09㎡
Bldg coverage ratio 9.51%
Gross floor ratio 16.68%
Structure R.C+Steel
Bldg. Scale B2, F3

1_ 주출입구 2_ 배면

예술활동의 즐거움

우리는 백남준 아트센터의 컨셉이 그의 작품에의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백남준의 작품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바로 끝없는 진보와 창조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드러나지 않는 개방성과 끝없는 변화야말로 백남준 아트센터에 관한 아이디어의 토대이다. 이 건축 공간은 문화 유목민 백남준의 전세계적인 전시 · 작업 공간을 상징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야 했다. 우리는 아트센터가 하나의 오브젝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와 방문자들이 창조적 작업을 위해 이용해야 할 또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건축적 도구는 극도로 개방되고 유동적인, 최적의 공간과 구조적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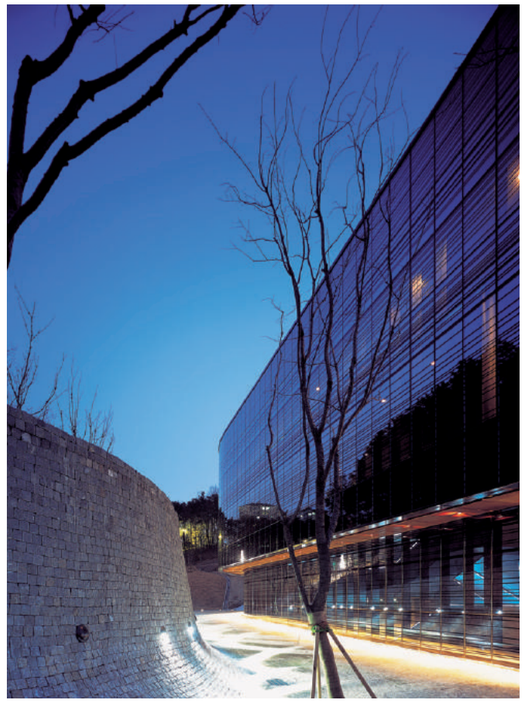
장소의 즐거움

우리는 이론상에나 존재하는 선형 공간을 원하지 않았다. 상상의 결과물은 여러가지 테마와 기능, 큐레이터와 예술가들, 설치물, 환경,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 다양한 방문자들의 체험들이 끝없이 엮어내는 결합들로 채워진다. 이는 공간적 복합성을 지닌 매트릭스이다. 이 구조는 예술 체험의 즐거움에 대한 모색이다. 우리는 아트센터 부지의 성격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 '스톡홀름의 스케프솔먼', '베를린의 티어르가텐 · 쿨투어포룸' 처럼 다양한문화시설들을 갖춘 도심한 가운데의 녹지로 보았다. 이는 마치 도심 지구의 확장이 공원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주거지역의 기능과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하나의 조경이자 공원을 구성하는 새로운 부분으로서, 건물을 짓는 작업만이 아닌 숲의 음영이 드러나는 아트센터를 정의하는 작업으로 흥미를 가졌다.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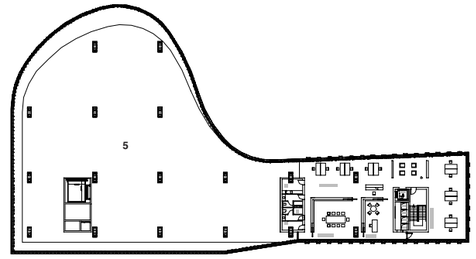
공간의 이러한 특성 및 분위기는 그 장소가 주는 유희의 형태에 대한 모색이다. 우리는 약 77m의 높이의 소나무들로 시작되는 숲의 가장자리에 펼쳐져 있는 부지전체에 프로그램을 펼쳐놓았다. 이 숲의 가장자리는 자연 조경과 인공 조경 그리고 숲과 아트센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즐기는 방문자 이곳은 백남준의 예술과 호기심 많은 방문자들과 그들의 활동이 만나는 조경 중심의 인테리어 공간으로 제안됐다. 누구나 이곳에서 자유롭게 그들만의 경험을 결정하고 발견하며 탐구할 수있다. 이곳이야말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글:KS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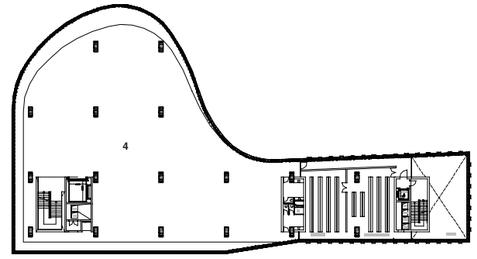


1 2
3
1_ 전면
2_ 좌측면
3_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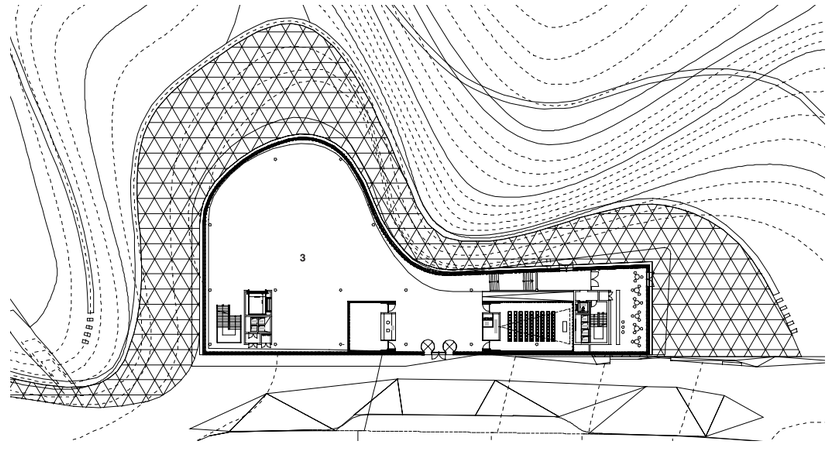
01_ 기계 · 전기실
02_ 수장고
03_ 상설전시실
04_ 기획전시실
05_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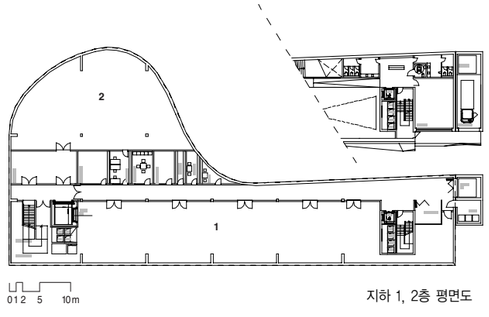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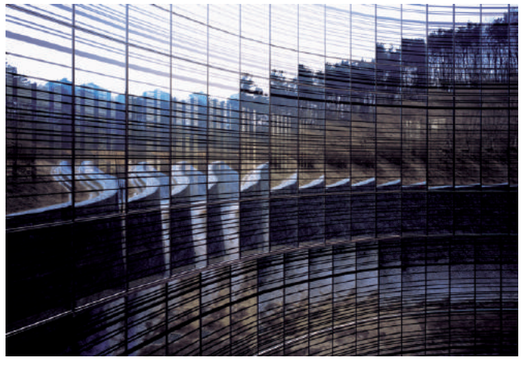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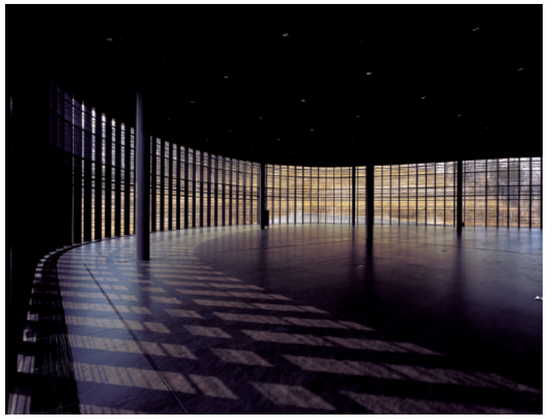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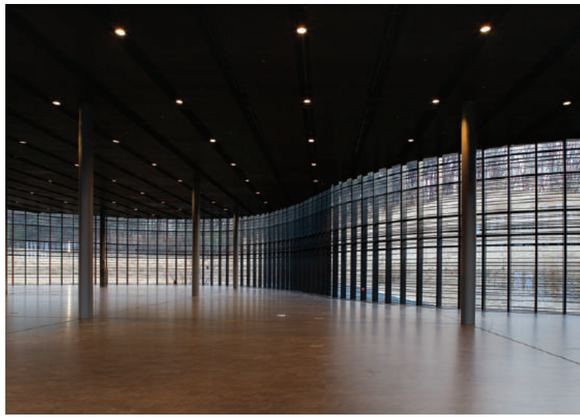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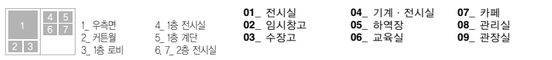


지하 1,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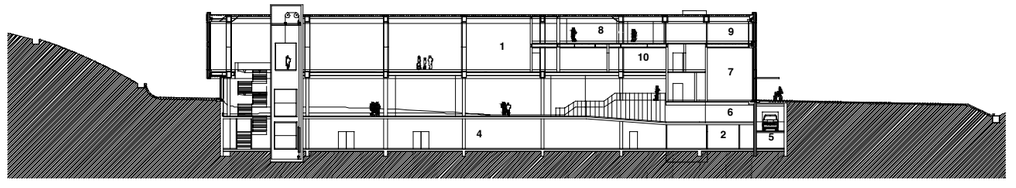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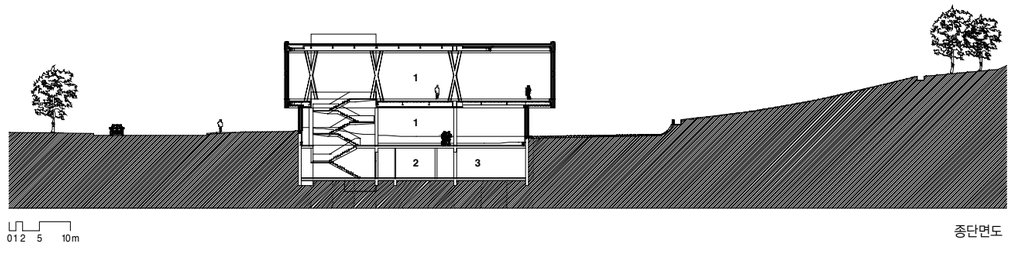


1_ 우측면
2_ 커튼월
3_ 1층 로비
4_ 1층 전시실
5_ 1층 계단
6, 7_ 2층 전시실

01_ 전시실
02_ 임시창고
03_ 수장고
04_ 기계 · 전시실
05_ 하역장
06_ 교육실
07_ 카페
08_ 관리실
09_ 관장실
10_ 미디어 랩



횡단면도



종단면도

워커힐호텔 아카디아
Walkerhill Hotel ACA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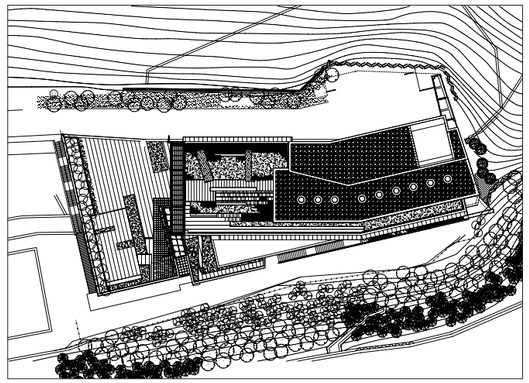
■**설계자** **윤세한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by Yoon, Se-han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대학원 석사

주요작품
• 한강르네상스 플로팅아일랜드, 행정도시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미국 몬터레이 파크 공연예술센터, 센텀시티 신세계 UEC, 대우 트럼프월드시리즈, 현대 아이파크몰

■**시공자** 한솔건설(주)
■**건축주** (주)워커힐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
주요용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261,288.00㎡
건축면적	2,620.99㎡
연 면 적	10,419.39㎡
건 폐 율	11.09% 중 1.00%
용 적 률	38.31% 중 2.28%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무늬목, 원목마루, 마천석, 대리석, 저철분 유리
외부마감	Floor, Wall, and Ceiling 지정석재, 알루미늄 쉬트, 유리, 메탈 패브릭
조 경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조경설계실
인테리어	파라스코프 하진영 +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인테리어실
구조설계	창민우구조
설비설계	한일 MEC
전기설계	정우종합기술
디자인총괄	조주현
설계담당	이광환, 원영우, 김경호, 허 욱, 조원희, 최규현, 장필구 박성희
사 진	김용관

Location 21, Gwangjang-dong, Gu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261,288.00㎡
Bldg area 2,620.99㎡
Gross floor area 10,419.39㎡
Bldg coverage ratio 1.00%
Gross floor ratio 2.28%
Structure R.C
Bldg. Scale B2, F5

1_ 주출입구 2_ 전경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카디아는 앞으로는 아차산길과 강변북로가 만들어 내는 도시적인 소통의 흐름을 경계로 한강과 마주 하고 있고, 뒤로는 아차산의 산자락과 접해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W호텔에서 시작된 호텔 단지의 일련의 건축물들의 흐름은 한강변에 자연과 잘 조화된 도시적 문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어쩌면 위험한 '도전의식' 을 자극하는 양면성을 던져주고 있다.

Linear Connection / Fluidity

ACADIA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단지 내의 W호텔, 워커힐 호텔, 매튜, 맥스웰, 라이만동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건물군의 흐름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선형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건물의 내부로 끌어들인다는 생각은 배치 및 건물의 조형적인 형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다. 외부 동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건물의 내부로 이어지고 내부 동선과 조화를 이루며 다시 저층부의 외부를 통하여 단지를 향하게 함으로서 호텔단지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Landscape Podium

외부의 환경적인 조건과 흐름을 건물내부로 유입하고 더불어 존재하기 위해서 Landscape Podium이라는 개념을 생각했다. 진입도로의 끝에 위치한 입구주변에 넓은 데크 공간을 만들어 가장 먼저 한강에 접하도록 하였고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경공간은 굽이쳐 흐르는 한강과 대조를 이루도록 하여 오히려 한강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진입레벨에는 투명성이 강조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저층부로 연결되는 커다란 계단으로 동선이 유도되도록 하여 한강을 향한 조망의 흐름을 유지하되 방향의 전환에 따른 시퀀스의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다양한 장소적인 특징을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Floating box

세미나실, 연회실 등으로 구성된 저층부의 Landscape Podium위로 수평성이 강조된 객실부의 매스가 살짝 들어 올려 진 모습으로 Floating box를 표현하였다. 지형의 단면적인 특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진입레벨의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강조하여 뒤쪽의 아차산의 흐름이 한강을 향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듯한 유동적이고 연속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이다. 더불어 지하공간인 저층부에 최적의 빛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환경과의 시각적인 교감을 통하여 공간적인 확장의 개념을 갖도록 하였다.

Metal fabric, Glass Curtain wall, Al sheet, 마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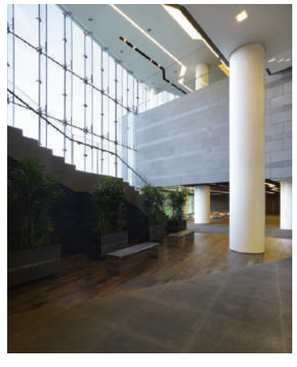
크게 세부분의 매스로 나누어 저층부는 검은 색의 마천석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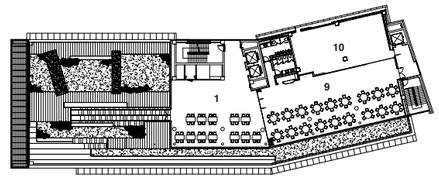
하여 주위 지면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으로 landscape podium으로서의 안정감을 꾀했고 1층진입부 및 주계단은 투명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여 개방감과 한강으로의 조망을 극대화 하였으며 상층부의 객실부는 컬러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확보와 더불어 한강 및 아차산으로의 조망효과 및 하늘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코아부분에는 실버톤의 Al sheet를 사용하여 유리와 마천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입구부분에 메탈패브릭을 설치하여 입구성 및 진입로에서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빛의 반사와 투과에 따른 조형적 이미지의 변화효과를 표현하였다.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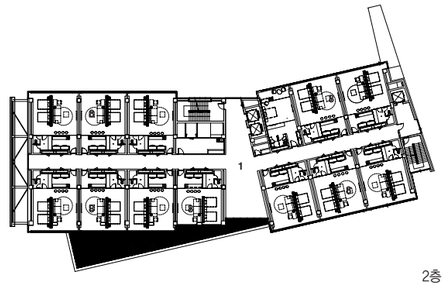
1_ 주출입 주경
2_ 아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계단형 매스
3_ 주출입 야경
4_ 한강의 조망을 극대화한 투명유리 커튼월
5_ 아카디아에서 바라본 워커힐
6,7_ 대형 계단홀

01_ 홀
02_ 계단식 회의장
03_ 소연회장
04_ VIP룸
05_ 사무실
06_ 휴게실
07_ 라운지
08_ 객실
09_ 레스토랑
10_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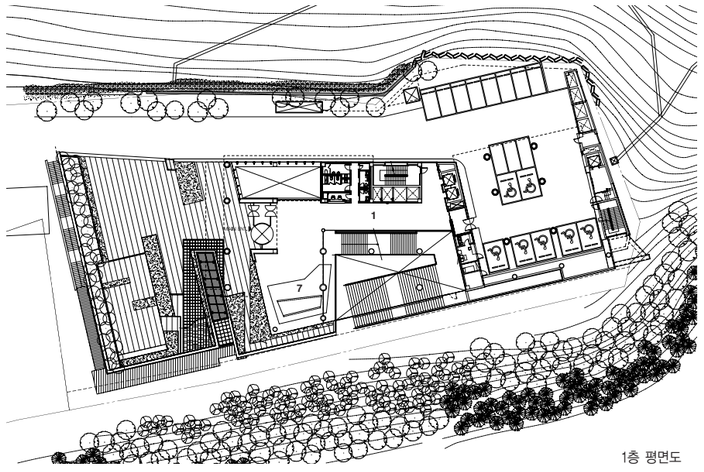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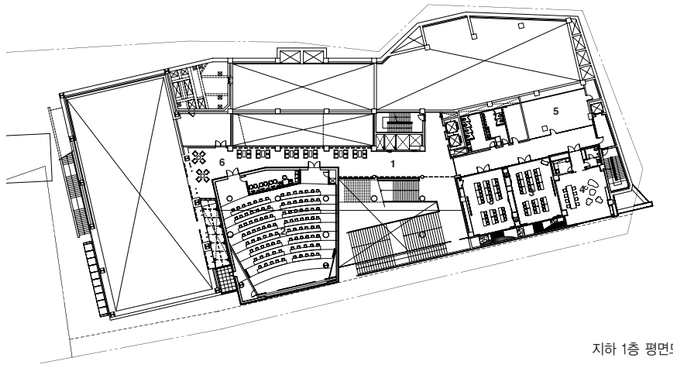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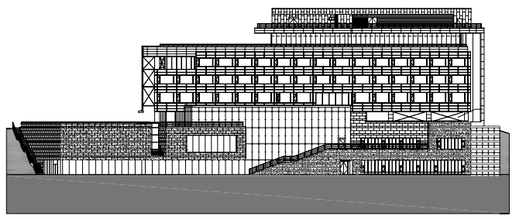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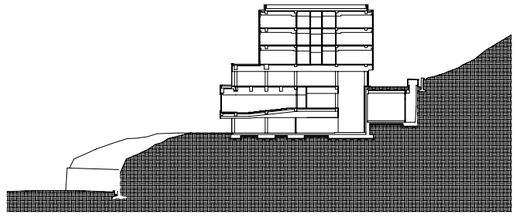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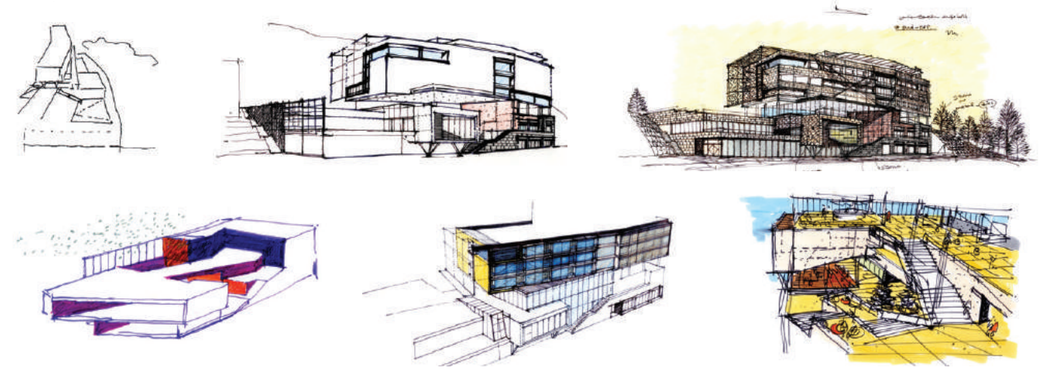


남측면도



종단면도

Concept



1 2 3 4 5 6 7

1_ 서측에서 본 야경
2_ Lobby
3_ Refresh Zone
4_ 개단식 회의장
5_ 중연회장
6. 7_ 객실

관악산 휴먼시아
Gwanak Humansia

■**설계자** **박용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선엔지니어링
by Park, Yong-min

약력
- 금오공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주요작품
- 광진구 자양동 더 샵 스타시티 주상상복합, 건국대학교 체육시설부지 상업지역(A블럭) 신축공사, 봉천 1-1구역 주택재건축, 신도림동 오피스텔,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주택재개발

■**시공자** 금호산업(주)
■**건축주** 대한주택공사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택재개발지구
주요용도	공동주거시설, 부대시설
대지면적	143,573.00㎡
건축면적	22,824.314㎡
연 면 적	457,258.986㎡
건 폐 율	15.89% (법정 60%)
용 적 률	240.17%
규 모	아파트 3,322세대, 부대시설(생활편의시설1개동, 관리동, 주민공동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리브무늬콘크리트, 외부수성페인트
구조설계	(주)성진구조 안전기술단
설비설계	(주)태양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주)정우종합기술
설계담당	김진환, 박성열, 정재우, 길현권, 설민주, 이유택

Location Jugong Apt, Silim7-dong, Gwanak-gu, Seoul, Korea
Site area 143,573.00㎡
Bldg area 22,824.314㎡
Gross floor area 457,258.986㎡
Bldg coverage ratio 15.89%
Gross floor ratio 240.17%
Structure R.C
Bldg. Scale

1_ 위성사진 2_ 중앙물 전경

관악산 능선에 위치한 좋은 입지와 저정과 고정의 level 차이가 약 85m정도의 높은 고저차가 있는 남고북저의 형상을 띈 지형과 고저차해결 조망권 확보의 숙제를 안고있는 곳이다.

경사지에 대응한 주동균형배치와 동서간 보행자 이동동선을 각 레벨군별로 동일하게 계획하여 필지내 이동동선 레벨차이를 초소화 하였으며 단지 보행몰에서 각동에 이르는 동선을 동일 레벨로 계획하여 보행측을 중심으로한 보행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 관악산 능선을 따라 타워형을 배치하고 단지 중앙으로 넓은 보행몰과 광장을 배치하여 레벨이 낮은 단지 진입부에서도 관악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축을 중심으로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축에 대응한 open space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하였다.

평면계획은 세대 전면폭을 확대하여 채광면을 최대로 확보하였고 다양한 life style을 반영한 가변형평면을 사용하였고 또한 특화계획으로 최상층 옥탑계획과 최하층 알파룸 개념도입으로 비인기세대 인지도를 좋게 하였다.

가로변 경관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하였으며 관악산의 지형에 순응한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였다.

발코니 변화를 이용한 입면효과와 특히 저층부 필로티를 도입하여 개방감확보와 주변편의공간을 제공하였다.

주민복지관은 보행몰로 이어지는 관운의 역할과 진입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아파트 저층부와 일체화된 평면구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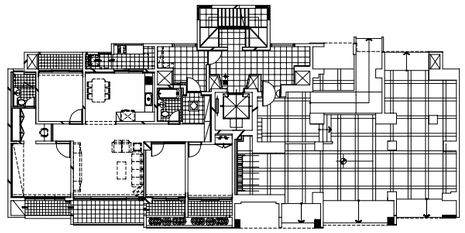
호텔식 로비와 휴게라운지, 20m level 차이를 단현으로 처리하여 위압감을 해소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스포츠와 집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였다.

외부 공간계획으로는 경사지 순응계획의 일환으로 노출입면의 수직 위압감 완화기법을 도입하였고 기존지형과 수계를 반영한 수상태계를 조성하였으며 위압감을 주는 외부옹벽을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최소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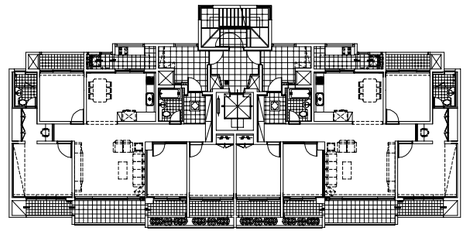
특히 중앙몰은 자연수, 오수 및 빗물의 저장조를 활용한 친환경 계획으로 실개울과 벽천, 분천을 조성하였으며 중앙몰의 연속성확보와 야간경관을 고려한 조명계획, 정원계획으로 주민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곳곳에 전통주거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옥외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였고 녹지, 물, 바람, 보행의 종합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생태연못 및 계류로 a생 비오톱을 조성함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린 생활공간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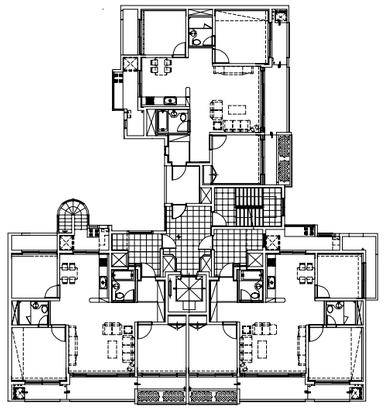
1_ 전면도로에서 바라본 전경
2_ 보행자 도로
3_ 보행자 연결 브릿지
4_ 중앙몰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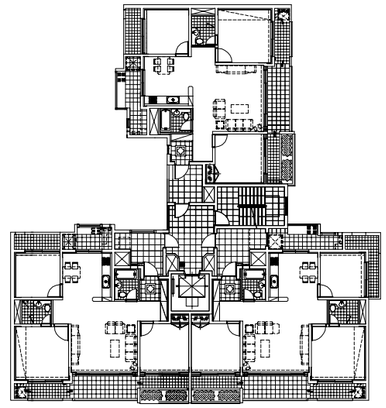
I형(114)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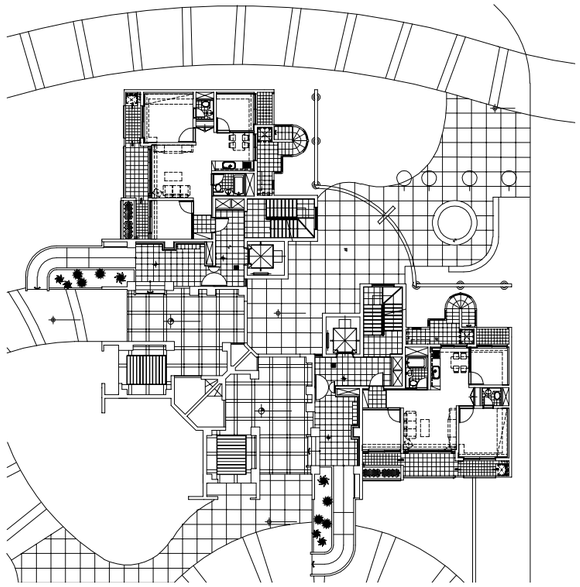
I형(114)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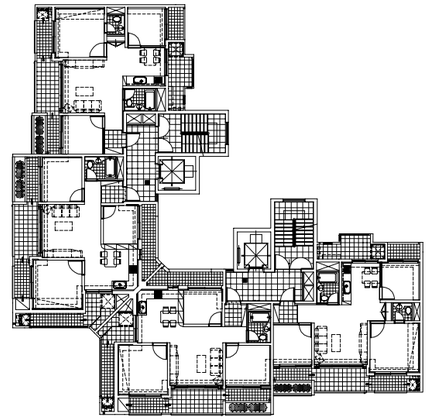
T형(84)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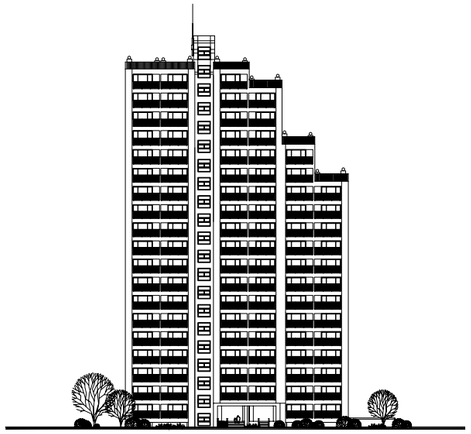
T형(84)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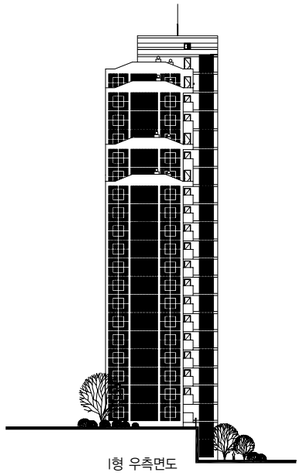
L형(59) 1층 평면도



L형(59)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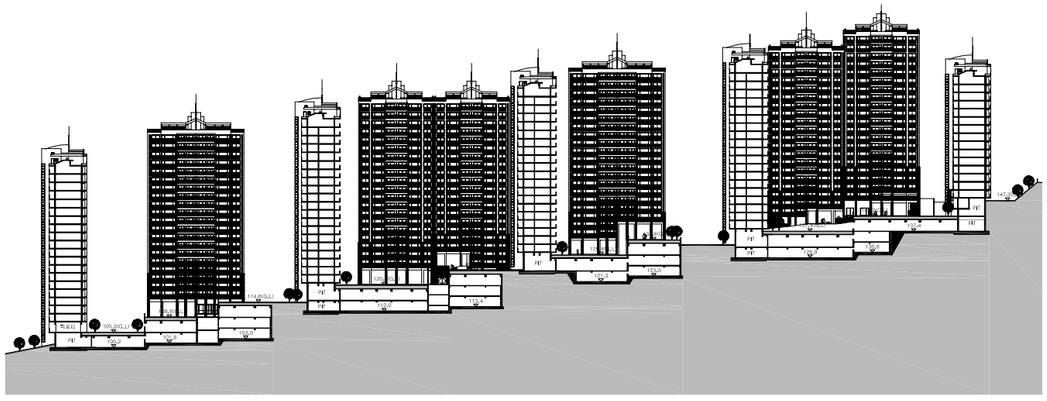


I형 정면도



I형 우측면도

1_ 생활 편의시설
2_ 레벨에 따른 보차 분리
3_ 중앙물 상부전경
4_ 중앙공원 전경
5_ 단지내 오솔길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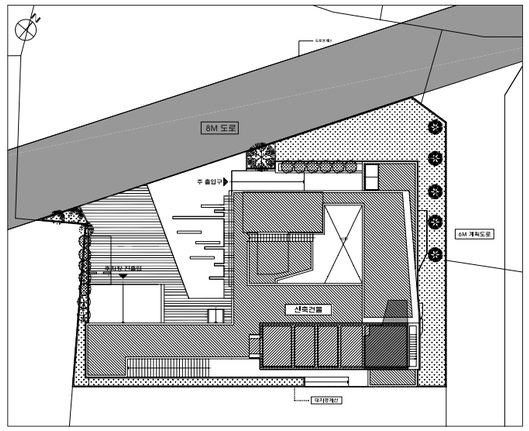
루트하우스
Route House

■**설계자** 곽희수 / (주)이뎀 건축사사무소
by Kwak, Hee-soo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수료
- 홍익대 및 SAKIA 설계스튜디오 튜터
- 2007년 KAI 신인건축가상,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

■**시공자** (주)제효
■**건축주** 김도진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371-36
지역/지구	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922.62㎡
건축면적	387.08㎡
연 면 적	406.46㎡
건 폐 율	41.95%
용 적 률	44.06%
규 모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노출콘크리트, 송판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주)모아 구조 기술사 사무소
설비설계	(주)선 티앤씨
전기설계	(주)동양기술단
설계담당	김준수, 정영호, 이형진, 오민경

Location	371-36, Yeoryang-ri, Buk-myeon, Jeongseon-gun, Gangwon-do, Korea
Site area	922.62㎡
Bldg area	387.08㎡
Gross floor area	406.46㎡
Bldg coverage ratio	41.95%
Gross floor ratio	44.06%
Structure	R.C
Bldg. Scale	F3

1 2 1_ 주도로에서 본 전경 2_ 후경

국도변의 파사드 | 국도변의 풍경은 도시의 대로변과는 달리 생활에 유용한 요소들이 밀집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호작용은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도변의 구성이 자연경관과 토목구조물 그리고 주유소, 모텔, 토속음식점 등과 같은 주행자와 관련된 상업 건축물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도변의 파사드를 몰 개성화 하고 지역의 경계를 더욱더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양산하였다. 결국 국도변은 주행자와 흥미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건축적 제스처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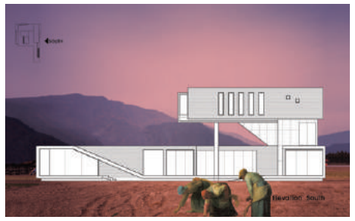
42번 루트하우스 | 정선의 주택은 국도변 집이다. 상업적 이득이 없는 용도의 건물이 도로와 맞닿아 있다. 당연히 모텔이나 토속음식점과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지도 않다. 상업적 설득이 배제된 국도변의 집이 건축주에게는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와는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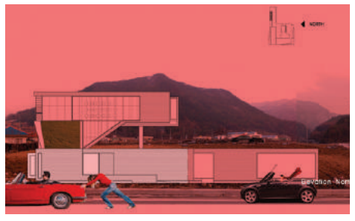
파사드 | 루트하우스가 42번 국도변 전체 파사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길항작용(antagonism) 처럼 생소한 성격의 두 요소가 국도변에서 만났을 때 생기는 상호작용이 서로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계기로 작용 할 것이다. 루트하우스의 파사드는 도로와 자연조건에 접한 외부 파사드와 중정이 중심공간인 내부 파사드로 이루어져있다. 각기 다른 조건과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반응 하면서 디자인된 면들은 각종 요구와 상황에도 적응해 나갈 것이다.

지붕 & 언덕 | 중정과 함께 집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잔디로 피복된 지붕과 언덕을 들 수 있다. 언덕의 고안은 자연의 일부를 재단하여 평지에 이식한 개념이며, 수려한 주변 풍광이 고스라니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지면으로부터 시작된 랜드스케이프는 3층의 발코니까지 연속되어있으며 산책이나 조망 그리고 다양한 여가의 장소로 그 쓰임새를 갖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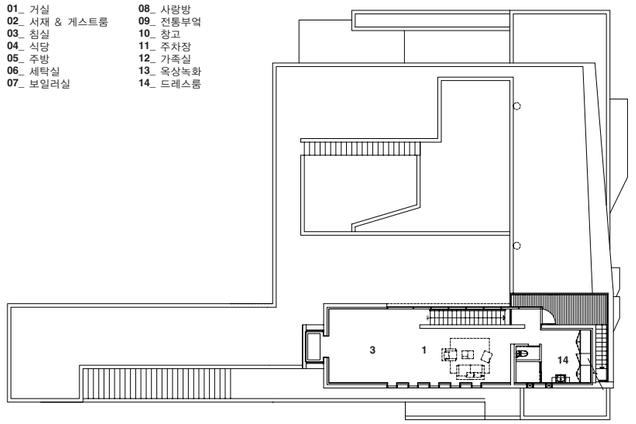
부뚜막과 사랑방 | 다양한 현대적 장치로 무장된 이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중정에 면한 전통부엌과 사랑방이다. 사랑방은 부뚜막에서 때는 나무의 화력으로 난방을 유지한다. 전벽돌로 치장된 부엌은 전통주택에 익숙한 노부모의 오랜 생활 습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안채와의 내부연결도 단절되어있다. 아마도 건축주는 노부모에게 새집의 편리함보다 아랫목의 따뜻한 온기를 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1_ 3층 및 1층 옥상
2_ 거실 발코니
3_ 3층 및 언덕
4_ 중정
5_ 개념도
6_ 언덕개념도
7_ 정면 개념도
8_ 중정과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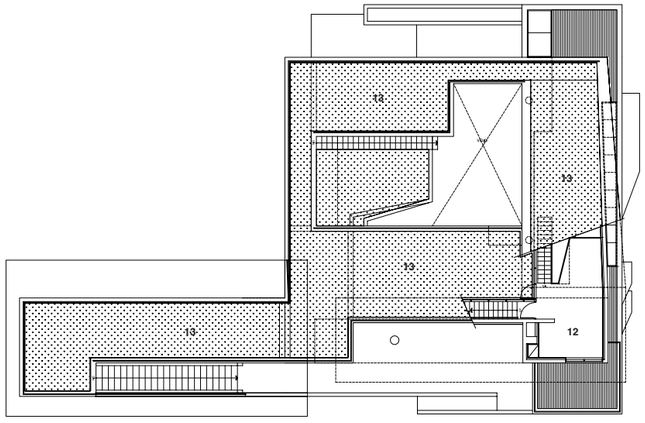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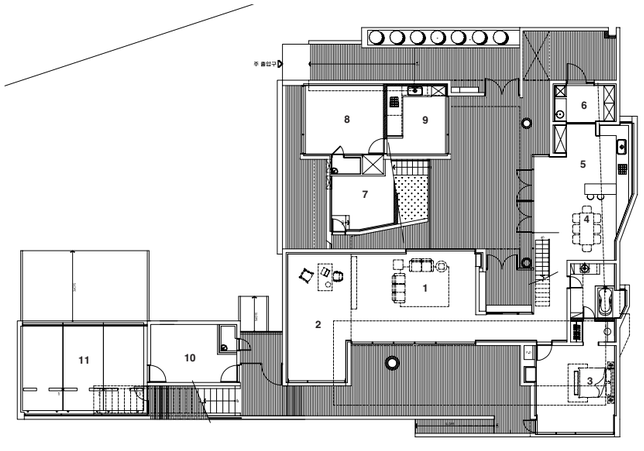
01_ 거실
02_ 서재 & 게스트룸
03_ 침실
04_ 식당
05_ 주방
06_ 세탁실
07_ 보일러실
08_ 사랑방
09_ 전통부엌
10_ 창고
11_ 주차장
12_ 가족실
13_ 옥상녹화
14_ 드레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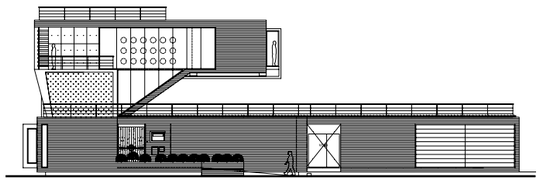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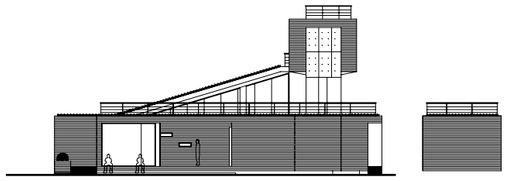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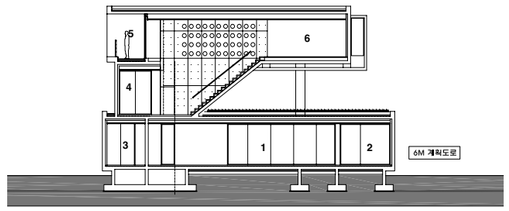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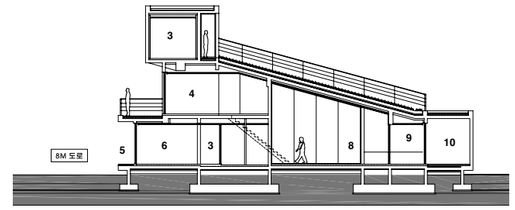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1_ 3층 연결언덕
2_ 3층
3_ 3층 정면
4_ 3층 측면과 1층 옥상
5_ 3층 진입계단
6_ 식당 및 내부 계단
7_ 3층 침실
8_ 2층 가족실에서 본 식당 · 주방

01_ 거실
02_ 서재 & 게스트룸
03_ 드레스룸
04_ 가족실
05_ 발코니
06_ 침실
07_ 식당
08_ 주방
09_ 세탁실
10_ 발코니

협회의 상징!

휘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간혹 공적 혹은 사적으로 협회의 휘장을 사용할 때
협회의 상징인 '휘장'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나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협회의 상징(Symbol mark)으로서,
도안에 응용된 「ㄷ, ㄱ, ㅎ」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뜻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건축적 분위기가 짙은 한국의 고유한 완자무늬로부터 착상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Korean Architecture Award 2008

계 . 획 . 건 . 축 . 물 . 부 .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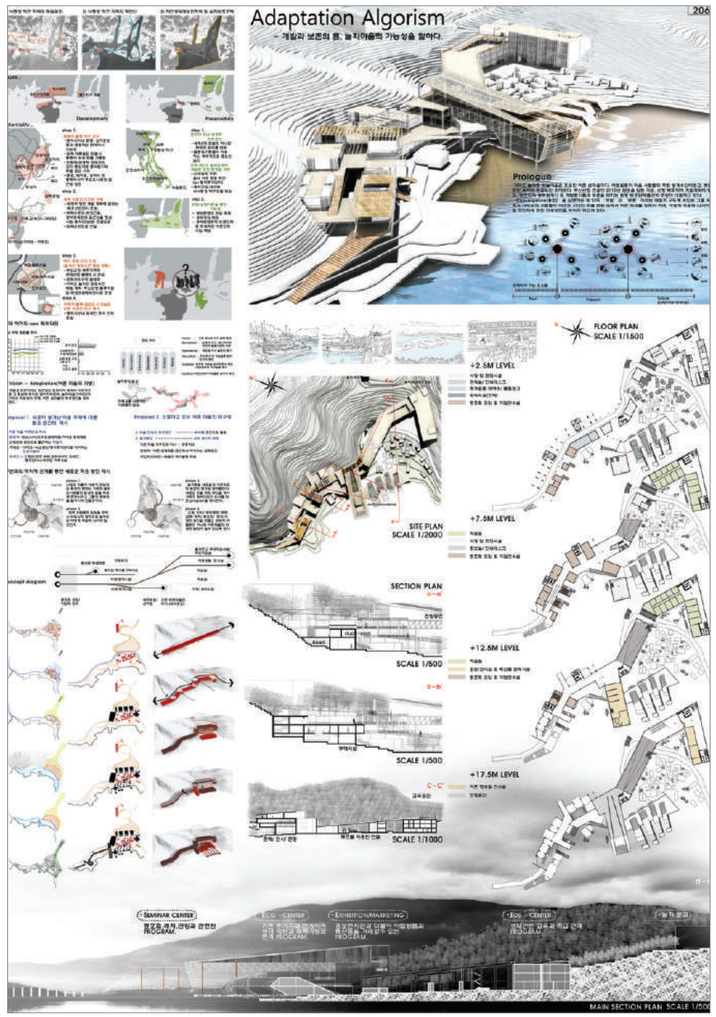
대 상
- Adaptation Algorism
  - 개발과 보존의 틈, 눌차마을의 가능성을 말하다

우수상
- 새로운 경계
- 가로연접공간의 폴드화를 통한연도형 복합 시설 구상
- 세계문화유산 직지를 통한청주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안
- 팔레트
- 박제 화된 과거도시로 부터 살아있는 미래로...

특 선
- 효에 대한 훌륭한 다스림
- 하이브리드 링크
- 판의 조작을 통한 해양관광문화 활성화 방안
- 복합성속의 풍경
- 감성적 매개체를 통한 디지로그적 공간 생성
- 네트스케이프 ; 공간의 해체

Adaptation Algorism - 개발과 보존의 틈, 눌차마을의 가능성을 말하다

홍순필, 심소연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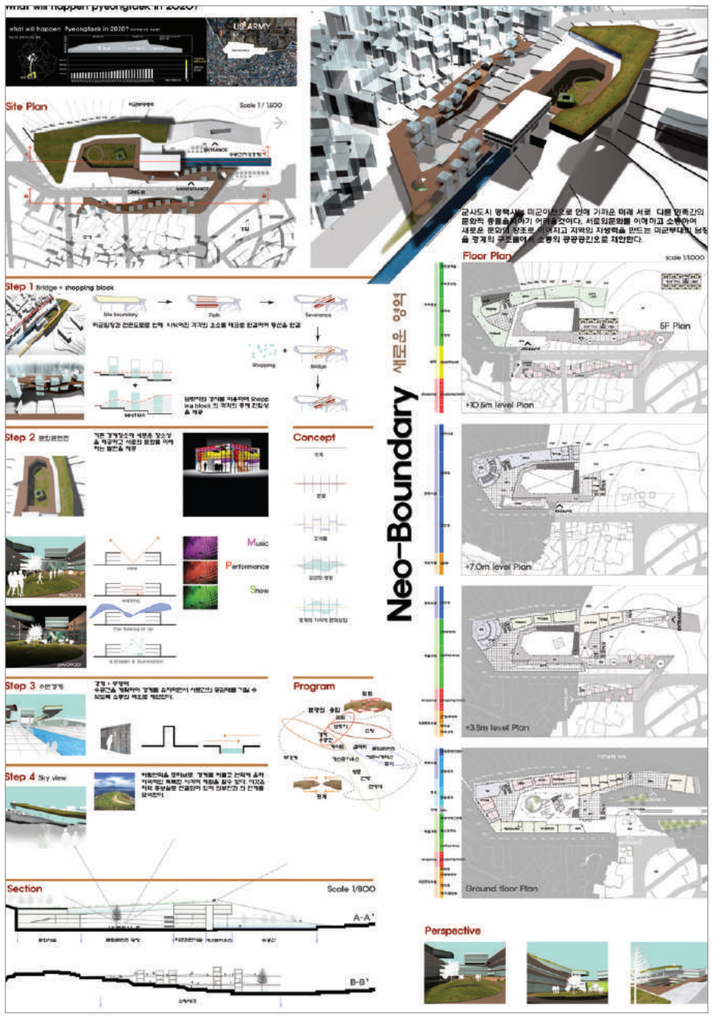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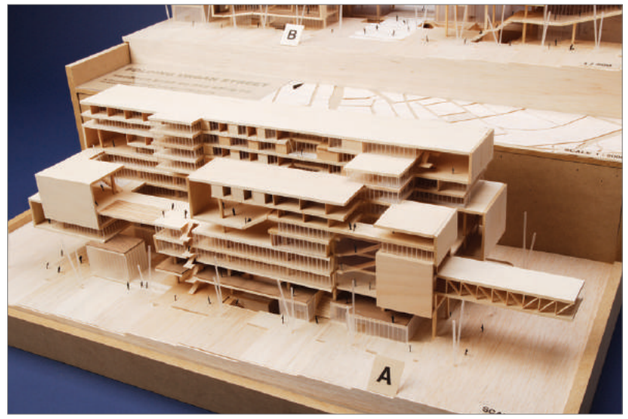
가덕도 눌차동 외눌마을은 조용한 어촌 섬마을이다.
어업활동이 이 마을 사람들의 주된 생계수단이었고, 뜨문뜨문 있는 배의 정해진 출항 시간에만 육지와 연결되는 곳이다. 이 곳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고작 22명이 전부인 이러한 마을이 부산시 핵심 개발 사업으로 시끄럽다.
부산 신항 건설이 2010년 완공을 앞둔 지금, 계속되는 신항 배후지역 계발계획이 발표, 승인되자 정부기관 관계자 및 개발론자들과 보존을 외치는 환경 보호단체들 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Convergence(융합)' 를 실현하는데 있어 '개발' 과 '보존' 이라는 대립적 구도에 서 있는 그들 사이에서 가덕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 변화 속에서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그들 스스로의 자생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새로운 경계

이두호, 장윤희 /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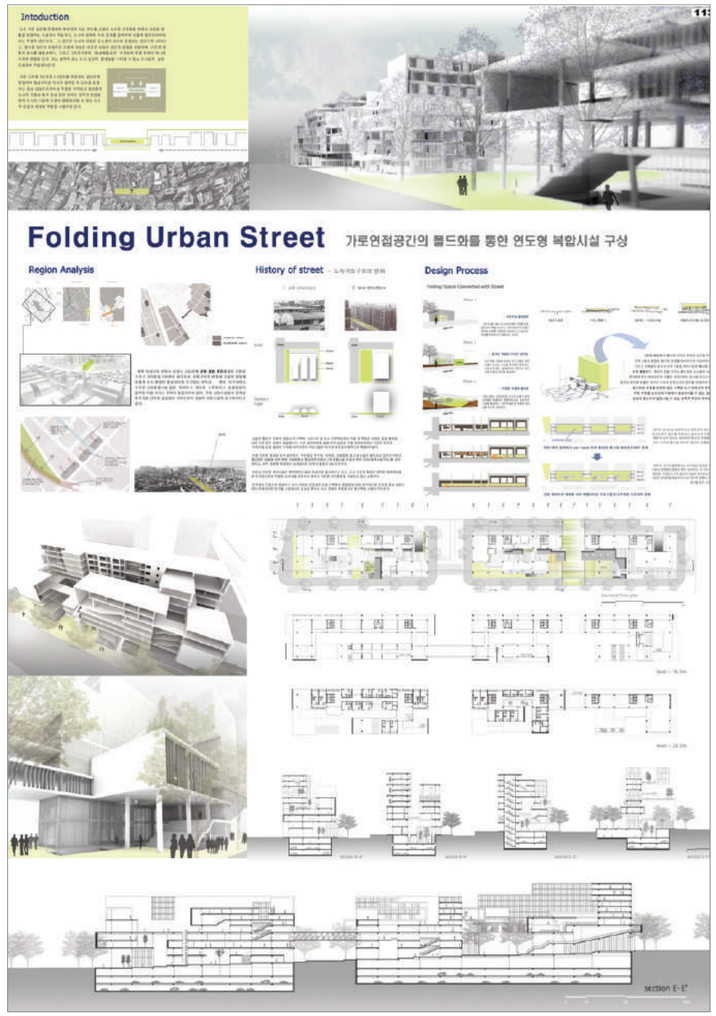
용산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도시 평택은 기존 인구 이상의 다인종이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과 지역 슬럼화로 빠져들 수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하나의 새로운 장소로 만들어간다.
외국인 동선과 내국인 동선이 서로 합쳐지는 이 블록은 지극히 특색적인 3구역으로 나뉘는데, 속칭 로데오 거리라고 일컬어지는 외국인 거리와 재래시장, 또 낙후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이들 영역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각각 이용자와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독립화 되어 있다. 이들의 경계선을 그어 그 자리에 연결된 하나의 공간을 집어넣었다. 이공간은 3개로 나뉜 각각의 필요한 시설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완충과 부족한 면을 충족시켜 준다.
이 문화적 충돌지역인 미국부대의 담장을 경계의 구조물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낙후된 지역 상권과 문화의 질을 한 층 높이도록 제안한다.





가로연접공간의 폴드화를 통한 연도형 복합 시설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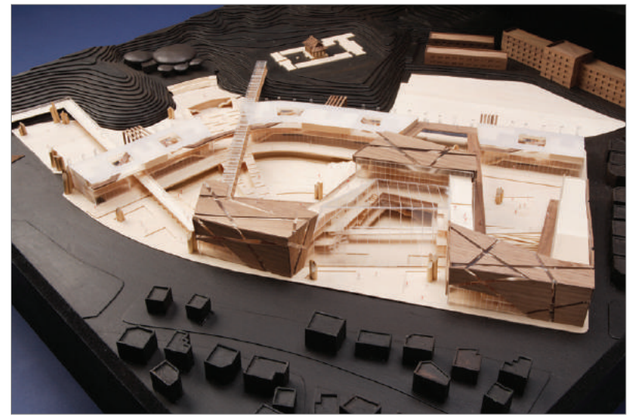
손관식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계획의 대상지는 서울시 서남권에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로와 건축물이 관계를 달리하며 새롭게 도시 환경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곳이다.

'Fold' 건축은 형태적인 '접힘'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속되어져 있으나 이질적인 시스템 내의 차이를 통합시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건축 · 도시적 맥락뿐만이 아니라 건축 외의 이질적 요소들과의 유연한 통합을 통해 새로운 건축적 맥락을 구성하는 것이다.

도시의 거리 공간을 건물 내외부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경계를 허물고 획일화된 도시 가로의 풍경에 다양한 건축적 길과 건축공간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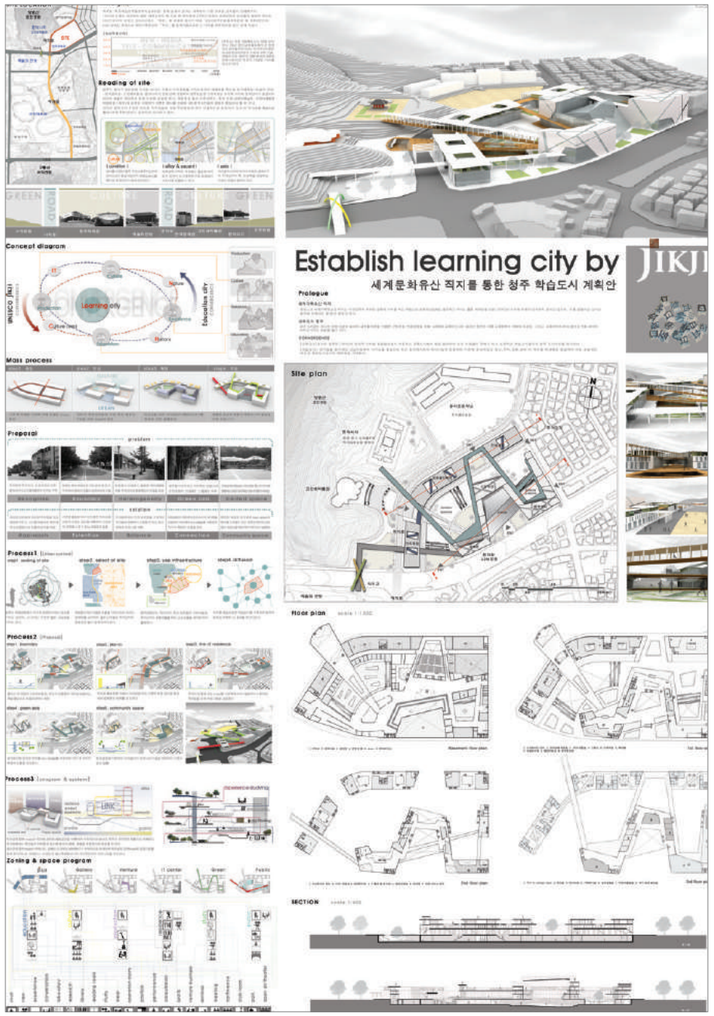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 직지를 통한 청주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안

김광준, 박성혜, 심경숙 /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직지는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 또한 '직지'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만들어낸 도시인 청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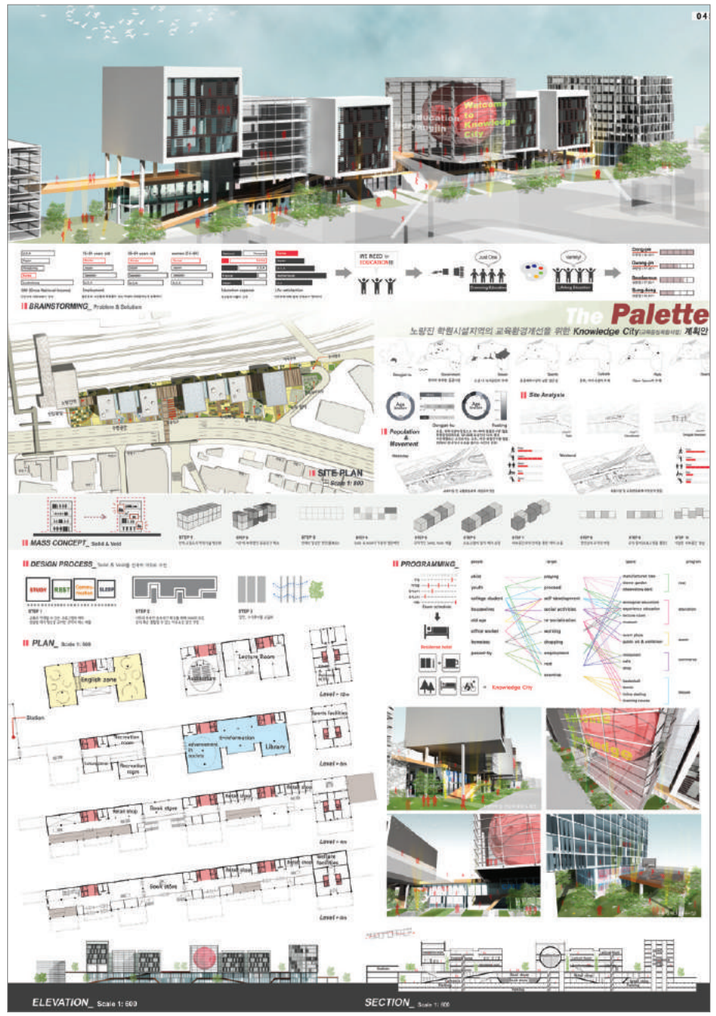
'교육도시' 로서의 청주와 '직지' 의 문화적 가치를 융합함으로서 수동적인 교육도시에서 체험, 참여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학습도시' 로서의 청주 도시비전을 제시한다.

'학습도시' – 한 기능을 중시하던 산업사회에서 다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기존에 분리되었던 '생산, 주거, 문화, 교육' 이 직지를 매개체로 융합하여 서로 교감하는 새로운 학습도시로서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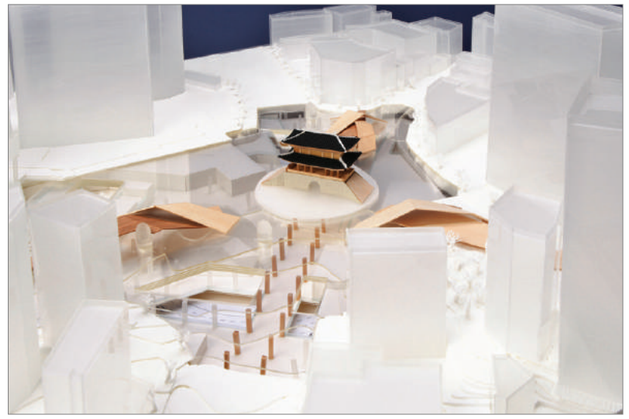
팔레트

이병희, 최주연, 강전용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기존의 낙후된 교육시설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론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직접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려 한다.
그러면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가로변을 연계한 소규모 상점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이 외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비롯해, 자신의 교육 일정에 맞게 단기간 혹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호텔형 SOHO(원룸형 주거)가 마련돼 있다. 이 계획안은 단순히 배움만을 목적으로 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 여가 상업, 주거활동이 가능한 복합적 공간이 제시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육' 이라는 범주 안에서 새로운 복합교육시설 즉, 'Knowledge City' 로 탄생되는 것이다.

박제 화된 과거도시로 부터 살아있는 미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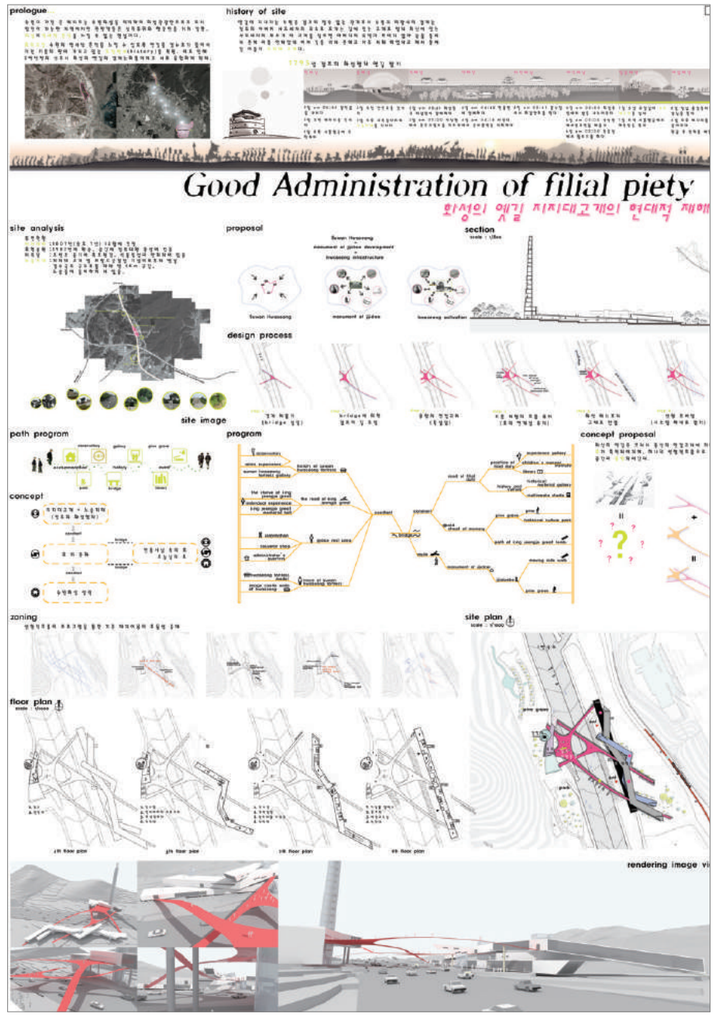


한병수, 이새롬, 조은진 /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과

이번 설계의 주는 숭례문의 복원, 복구가 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했다. 최우선 과제는 숭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다. 많은 시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차량 동선의 해결방안 그리고 현대적 의미로서의 숭례문의 발전방향, 계획되어진 Mass로 인한 경관문제 해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가장 먼저 해결해 보려했다.
그러한 해결방안으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차량동선계획, 열린 광장 조성,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하여 도심 공동화현상 뿐만 아니라 지방과 도시, 국내와 국외의 문화 및 학술을 교류하는 장이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현대적 의미의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과 연계되어 활발한 지역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제를 세계 속에 알리는 중심점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효에 대한 훌륭한 다스림

조혜리, 최진아 /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Site는 정조의 길 및 효의 기능을 지원하는 연계시설을 위한 부지이다. 따라서 정조 대왕 동상과 효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모든 시설이 하나의 흐름 속에 연결되도록 오버브리지를 계획한다. 이 오버브리지는 정조대왕동상과 연계시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도로를 가로 지르는 역할도 한다. 결국 지지대고개 부지는 서로 융합되는 완충지대가 된다.

효를 상징하며 정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런 공간은 브리지를 따라서 정조의 숨결을 관람객들로부터 그대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효행의 길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화성이 생긴 배경과 지지대고개 뒤편에 있는 노송지대축의 노송을 반영한다. 역사문화 공원으로 계획, 우리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곳으로서 공간(체험)을 적용한다.

하이브리드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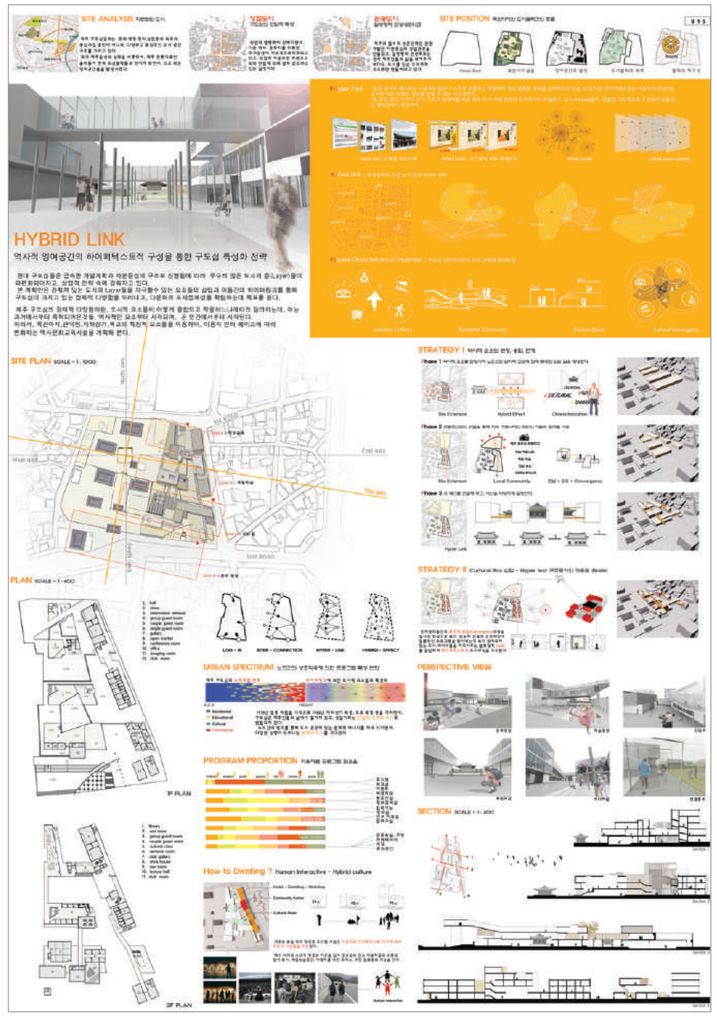
박재현, 고성은, 김수현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디자인전공

이 계획안은 감춰져 있는 도시의 Layer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의 삽입과 이들 간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다양함을 드러내고, 다문화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둔다.

일반 문서나 텍스트는 사용자의 필요나 사고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계속 일정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하이퍼텍스트는 사용자가 연상하는 순서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문장 중의 어구나 단어 그리고 표제어를 모은 목차 등이 서로 관련된 문자데이터 파일로서 각 노드(node)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정보검색에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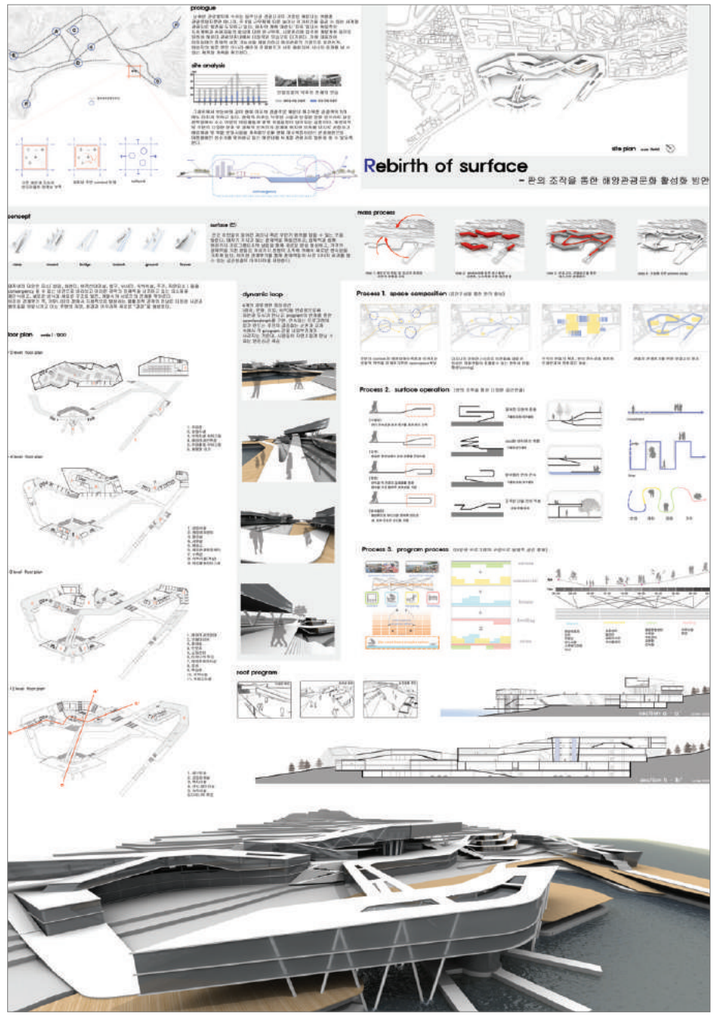
1976년 탑동 매립을 시작으로 1982년 지하상가 착공, 도로 확장 등을 거치면서, 구도심은 제주인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고, 상업이라는 단일적 성격의 도시로 변질되어 갔다.

노드간의 링크를 통해 도시 곳곳에 있는 문화적 에너지를 자극 시키면서, 다양한 성향이 드러나는 변화의 도시를 기대한다.



판의 조작을 통한 해양관광문화 활성화 방안

김하해, 백승엽, 김미진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해운대 해수욕장의 끝자락에 있는 미포에 해양관광문화의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발전시켜 이 지역을 해양관광문화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이다. 기존의 지역은 해양관광문화단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발전에 그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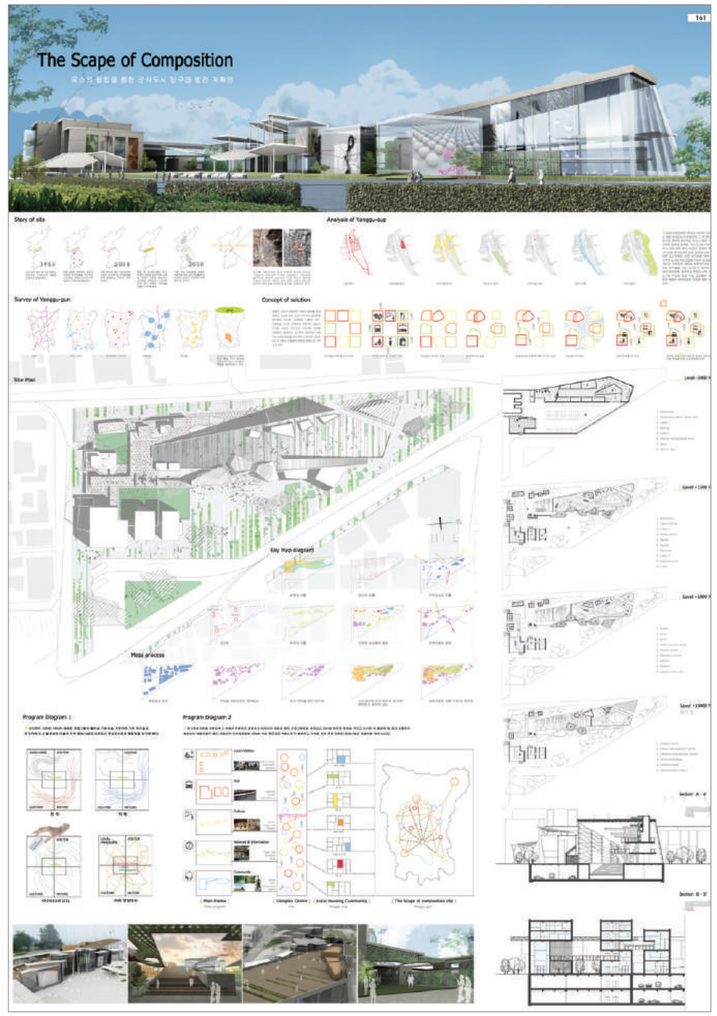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다양한 해양관광문화의 행위가 담겨지는 판을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판과 판사이의 완충공간, 연속적인 판에 의한 다양한 공간을 연출한다.

판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행위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판의 조작은 사물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사물과 사물사이의 공간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 중심에 사람의 행위를 두고 보는 전력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행위를 중심에 두며 대지와의 관계와 주변과의 관계에서 연속적이며 일체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서는 서로의 관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복합성속의 풍경

기대영, 고영성, 박상규 /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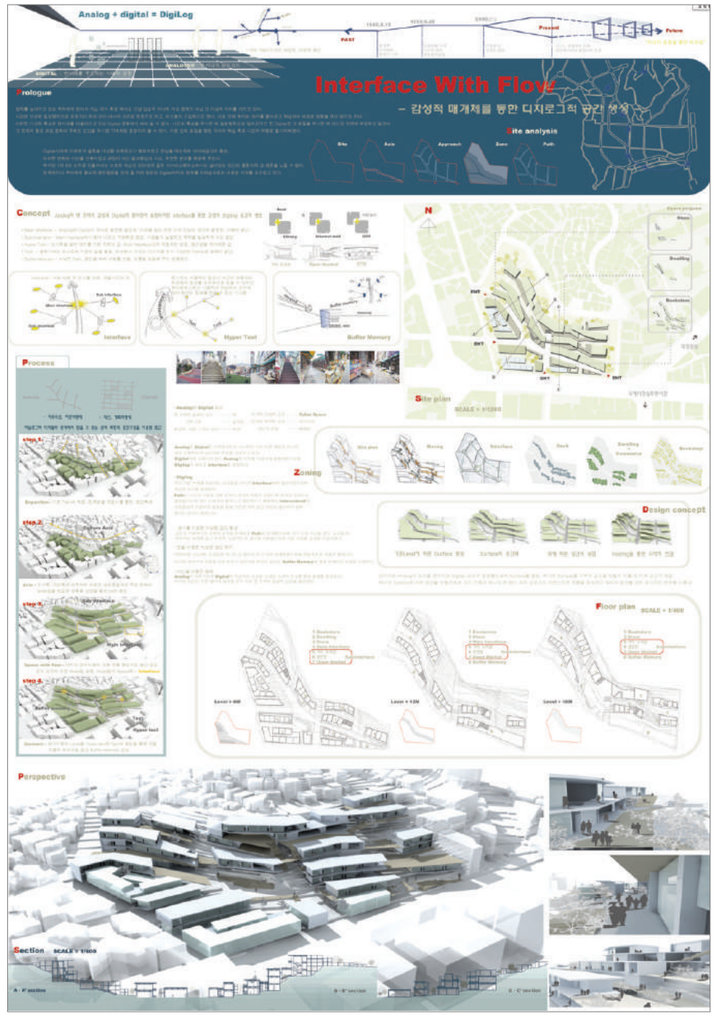
계획은 양구읍의 메인 도로에 있는 관문 삼거리의 모서리 대지를 이 도시의 생장점이라 보고 기존에 있던 터미널로부터 양구읍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리고 주변군사시설 자리에 새롭게 생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건물을 계획한다.

기존의 격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상징하는 다각형 패턴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 도시의 흔적과 구성을 통해 패턴의 위치 및 크기를 조절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을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이 재구축되게 된다. 새롭게 구축된 영역은 다시금 패턴을 구성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시키고 확산되어 간다.

프로그램은 양구의 중심 기능인 터미널 기능이 좌측하단에 위치하고, 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외곽지역으로 옮김으로써 중심공간에서의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복합문화시설이 중앙에 위치하고 이 공간들은 한 장소에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양구 주변의 문화지역과 연계하여 문화 홍보의 역할도 하게 된다.

감성적 매개체를 통한 디지로그적 공간 생성

손기성, 서란희, 곽지숙 /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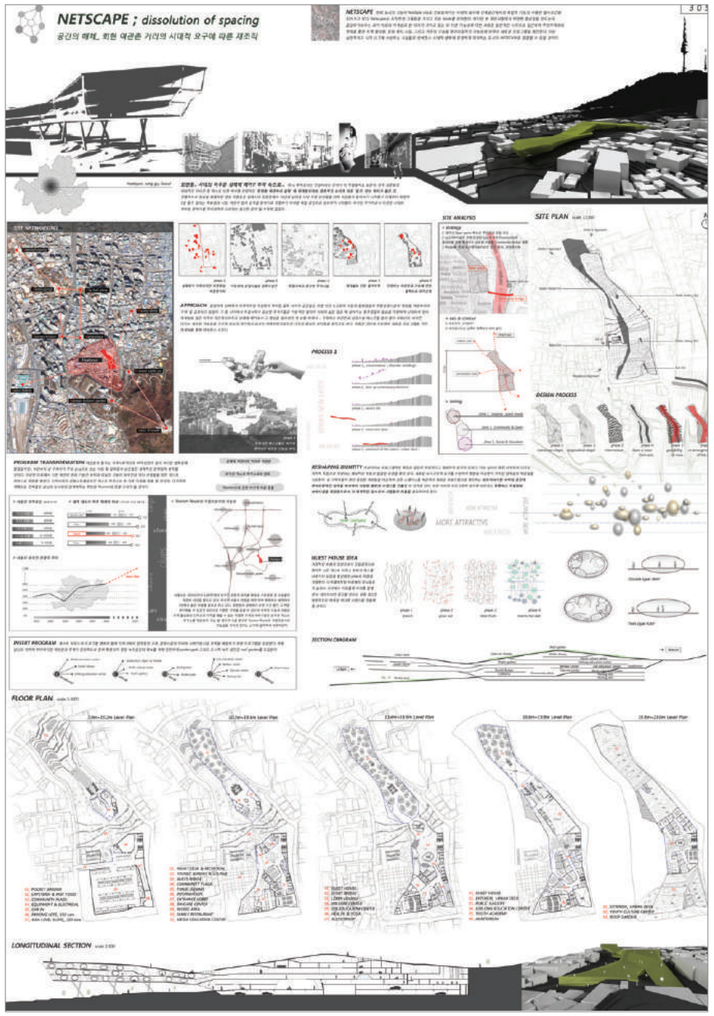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보수동은 과거 책방골목으로써 큰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도태되어진 과거의 옛 공간으로만 남아있다. 하지만 이곳은 Digital이 채워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Analog적 요소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Digilog의 새로운 장을 구현하고자 한다.

선이라는 Analog적 요소를 면이라는 Digital 요소와 융합함으로써 Surface를 만들어 내고 하나의 Surface를 구부려 공간을 만들어 이를 또 다른 공간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Surface로 여러 공간을 만듦으로써 대지 전체가 하나의 큰 판이되어 상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고 각각의 공간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룬다.

네트스케이프 ; 공간의 해체

김재식, 이필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여관촌 철거는 지역 사회적으로 40여년만의 일대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지만 지역 상인들은 경제적인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 여관의 본래 기능인 숙박과 대실의 기능이 외국인과 객지 사람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변화를 꾀한다. 지역사회의 공동소유물로서의 게스트 하우스는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것이며, 대지위에 계획되는 건축물은 남산과 도시를 연계해주는 주요한 Tourism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1,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가로환경 및 시설물의 재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관광을 위한 하루 체재비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회현동의 성매매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맥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을 수 있는데 숙박의 기능과 관광과 지역 활성화의 다자간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인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를 제안한다.

이는 본 대지가 서울시 중구 Tourism Route의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대한건축사협회 전화번호 변경안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보다 신속한 민원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화시스템을 PRI(Primary Rate Interface)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화번호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협회의 업무별, 직원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부여됨으로써 회원 또는 민원인과의 전화 업무시 업무담당자와 직접 연결되어 전화대기 없이 신속한 전화응대가 가능하고 부재중 발신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수신번호로 직접 연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화번호는 착신 변경서비스를 통해 변경된 번호로 전화연결이 가능하나, 6개월 후에는 폐지됨에 따라 아래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경일자 : 2008. 10. 20(월)**
• 변경된 전화번호 :
대표전화 (02)3415-6800, 팩스번호 (02)3415-6898~9
• 부서별 전화번호
○임 원 실 : 3415-6801 ~ 6803 팩스 3415-6810
· 회장실 3415-6801
· 부회장실 3415-6802
· 상근이사실 3415-6803
○기획관리실 : 3415-6821 ~ 6828
· 기획팀 3415-6821~4
· 국제협력팀 3415-6826~8
· 시험관리팀 3415-6871~3
○정책연구실 : 3415-6831 ~ 6835
· 건축제도팀 3415-6831~5
○문화홍보실 : 3415-6861 ~ 6868
· 홍보편찬팀 3415-6861~4
· 편집실 3415-6839
· 전시사업팀 3415-6866~7
○운 영 실 : 3415-6811 ~ 6819
· 총무팀 3415-6811~5
· 회계경리팀 3415-6816~9
○회원관리실 : 3415-6841 ~ 6854 팩스 : 3415-6855
· 경력관리팀 3415-6841~8
· 실적관리팀 3415-6851~4
○정보전산팀 : 3415-6881 ~ 6884
○건축연구원 : 3415-6891~6895 팩스 : 3415-6897

○업무별 전화번호

구 분		업 무 내 용	담 당 전화번호
기획관리실	기 획 팀	-협회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정관 · 제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총회 및 이사회, 시 · 도건축사회회장 회의운영	3415-6821~4
	국제협력팀	- 국제교류 및 협력 - APEC 등록건축사 제도관리 및 운영 - 시장개방 및 건축사자격 상호인정관련	3415-6826~8
	시험관리팀	- 건축사시험 시행계획 수립 -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시행 - 건축사시험 제도개선	3415-6871~3
정책연구실	건축제도팀	- 건축법령 ·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건축사업무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건축관련 질의회신	3415-6831~5
문화홍보실	홍보편찬팀	- 건축사지, 건축문화신문 등 간행물 발간 - 건축, 건축사, 협회관련 홍보 -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	3415-6861~4
	전시사업팀	- 한국건축산업대전 개최 - 건축자재 추천	3415-6866~7
회원관리실	경력관리팀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 건설기술자 제재 · 처분 및 부실벌점 관리 - 건설기술자 이관 · 수관, 교육안내	3415-6841~8
	실적관리팀	- 회원 입회 및 신고사항 변경 - 건축사업무실적관리, 건축사보 관리 - 감리자 관리	3415-6851~4
운영실	총 무 팀	- 협회 조직관리 및 직원 인사 · 복무 · 교육 - 위원위촉, 추천 및 후원, 상훈 - 회관관리, 단체간 협력	3415-6811~5
	회계경리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 세무 · 회계, 정회원 회비 관련 - 폐업위로금 지급, 공제사업 추진	3415-6816~9
정보전산팀		- 전산장비,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 건축정보 수집 및 운영 - 소프트웨어 관리	3415-6881~4
비 서 실		- 회장 및 임원의 대내외업무 보좌 - 회원의 고충 및 의견수렴	3415-6801~2
건축연구원		- 건축법,건축사법 및 건축관계법령 개선연구 - 건축제도 및 건축사업무 개선연구 - 건축사상호인정 및 건축시장 개방대책 연구	3415-6891~5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15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계획작품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미준공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A4 1매 내외)〉
작품노트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2~4매 내외,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기 타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알리고 싶은 내용 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 모든 원고는 '건축사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가 논의되며, 편집방향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마감 : 매월 25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 1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우편번호 137-877)
문 의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3415-6800
팩스 02)3415-6898~9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응용 친환경건축 방향

For Sustainable Future with Sustainable Architecture

1970년 초에 배럴당 1불하던 원유가가 지금은 120불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년 전만 하더라도 40불 이하 수준이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급등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 유가 100불 이상의 고유가 시대에 대한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더가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우리의 활동패턴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한편 90년대만 하더라도 친환경 건축기술은 선택적 사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부 고급건물 또는 데모성격의 건물에만 반영되던 미래의 기술 분야로 간주되어왔다. 하지만 10년 남짓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친환경, 지속가능, 그린, 에코 등 이며, 최근 많은 건설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친환경 건축 관련 기술이 되어버렸다. 최근 유가의 급등세 보다는 더디다 할 지라도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제도적, 사회 경제적 변화 동향을 돌이켜 볼 때 건축계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유가급등과 같이 변화된 환경에 놀라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오랜 기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요소기술의 개발, 정부의 지원제도 확대, 보급 강화 등 각종 노력을 통해 이제는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 우리주변에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실제로 보고자 한다면 두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인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연재에서는 그동안 오랜기간 떠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대로된 친환경 건축물을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든 이유를 건축실무자 측면에서 재고해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특히 많은 친환경 건축기술 중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건축사 입장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인 신재생에너지 건축응용 측면에서 다양한 최신 기술 및 실질적 접근방법과 사례를 주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1. 친환경 건물의 미래상과 건축사의 역할
2. 에너지자립형 제로에너지 건물의 구현개념 및 접근방법
3. ZeSH,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의 설계 및 시공 사례와 실제효과
4. BIPV,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새바람 – 개념과 건축적 설계요소
5. BIPV, 투광성 태양전지를 이용한 BIPV 자연채광 응용기술
6. **BiST, 건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새바람**
7. BIWP, 건물일체형 소형풍력 발전 시스템의 새바람
8.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시장을 위한 태양에너지 응용 기술, 솔라 리모델링
9. 단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 접근방법 및 보급활성화 방안
10. 단지규모의 에너지자립를 위한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및 시티(ZeC) 설계 사례

필자 : 윤종호, 현 국립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Jong-ho

윤종호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연수하였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부에서 10여년이상 근무한 뒤 현재 한밭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이사
- 한국친환경건축설비학회 이사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이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소(사) 이사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심의위원

6. BiST, 건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새바람

BiST, New Wave of Building integrated Solar Thermal System

서언

2004년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법안의 발효이후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 등의 대표적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활발한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까지 수행된 2년간의 143개소 보급실적을 분석해 보면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686억원 중 2/3에 해당하는 65%가 지열이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이 29%, 태양열이 6%를 차지하여 매우 극심한 원별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건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태양광과 태양열은 건축물 외부에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함으로 건축설계디자인적인 측면의 제약사항도 매우 큰 장애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현재 공공건물의 건립과정은 대부분 턴키 등의 설계공모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의장적 측면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측면과 제한된 시간내에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디자인적 배려가 필요한 시스템의 적용은 큰 제약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현재까지 적용되었거나 설계되고 있는 태양열 및 태양광의 건물적용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지지대를 이용해 건물 옥상에 거치시키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건물외관의 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축사 및 수요자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건물 외관에 가장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태양열 및 태양광 시스템의 건물적용 보급을 저하시키는 근본적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보급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PV)의 경우는 건물의 의장적 측면과 함께 기존의 외벽 건축마감재를 대체하여 PV모듈을 외피에 적용함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 Building Integrated PV) 시스템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태양열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어 최근 들어서는 태양열 집열기를 지붕, 또는 외벽에 일체화 시키는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Building Integrated Solar Thermal) 시스템 기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외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산업에서 외피일체형 모듈의 성공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었듯이, 태양열 집열기도 건물일체화 형태로 보급시키기 위한 태양열집열시스템의 건물외피 일체화 기술에 대한 기술 특성을 정의하고, 국외의 각종 적용사례를 분석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태양열 시스템의 종류와 일반적 설치 유형

태양열 시스템이란 태양에너지를 건물의 난방 혹은 냉방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스템은 크게 집열부(Collector Element), 축열부(Thermal Storage Element), 그리고 분배및활용부(Distribue & Use Element)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요소간의 열전달 방법이 모두 기계적 강제순환방식에 의할 때 이것을 설비형(Active)시스템이라고 하며, 자연순환방식에 의할 때 이를 자연형(Passive)시스템이라고 분류한다. 또,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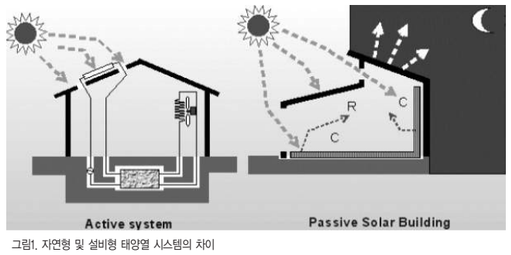


그림1. 자연형 및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의 차이

자연순환방식에 의한 것이나 약간의 기계적인 순환방식이 병용되는 방식은 혼합형(Hybrid)시스템이라고 한다. 기계적 강제순환방식이라 함은 펌프(Pump)나 송풍기(Fan) 등과 같이 별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열의 전달방식을 뜻하며, 자연순환방식은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없이 열의 전달이 전도, 대류 도는 복사와 같은 자연적인 열전달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표 1〉은 활용 온도에 따른 태양열 시스템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난방 및 급탕에 직접 적용가능한 저온용의 경우 60℃이하는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이나 공기식 태양열 집열

구분	자연형(Passive)	설비형(Active)		
	저온용		중온용	고온용
활용온도	60℃	100℃이하	300℃이하	300℃이상
집열부	• 자연형시스템 • 공기식집열기	• 평판형집열기 • 진공관형집열기	• 진공관형집열기 • PTC형집열기 • CPC형집열기	• Dish형집열기 • Power Tower • 태양로
축열부	• Trombe Wall (자갈, 현열)	• 저온축열 (현열, 잠열)	• 중온축열 (잠열, 화학)	• 고온축열 (화학)
이용분야	• 건물공간난방	• 냉난방 · 급탕, • 농수산(건조,난방)	• 건물 및 농수산분야 • 냉 · 난방, 담수화 • 산업공정열, 열발전	• 산업공정열, 열발전, • 우주용, 광촉매폐수처리 • 광화학, 신물질제조

표1. 태양열 시스템의 구분

시스템이 해당하며, 100℃ 이하로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이 해당한다.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의 경우 평판형 집열기가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고온 집열을 하는 진공관형 집열기도 건물의 난방 또는 급탕용으로 응용되고 있다. 중온 및 고온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의 경우는 산업공정열이나 열발전 쪽에 주로 응용되고 있다.

그림2. 대표적인 급탕 또는 난방용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의 유형

〈그림 2〉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건물에 적용되고 있는 태양열 급탕 또는 난방 시스템의 대표적 유형인 강제순환방식과 자연대류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강제순환방식은 펌프를 통해 폐회로의 유체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집열기측을 순환하는 열매체와 시수라인이 분리되어 있는 간접회로 방식이다. 펌프를 통한 강제순환방식임으로 축열탱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구성품을 실내에 설치할 수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열손실 및 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동파 방지, 부식 방지 등을 통해 내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백업 보일러 시스템과 시수라인은 직렬로 연결됨에 따라 순간온수기 또는 난방기 처럼 작동한다.

자연대류방식은 펌프가 없이 자연대류 순환방식으로 그림의 예처럼 간접방식으로 구성하거나, 동파위험이 없을 경우는 직접방식으로도 구성가능하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이 간단하고 저비용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축열탱크와 집열기가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의 미관상 부담감이 있으며, 내구성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제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사강도가 높거나 온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과열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림 3〉은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의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 설치형태를 예시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평지붕 옥상에 높은 지지구조물 위에 2단 이상으로 설치되는게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 3의 우측 그림 예와 같이 4단, 5단 이상 높게 거치시킴으로서 건물 높이 보다 높게 돌출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러한 설치형태는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건물을 흉물로 만들 수 있으며, 도시 미관적 측면에서 또다른 시각적 공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설치유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건축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성능 못지 않게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치 형태 또한 보급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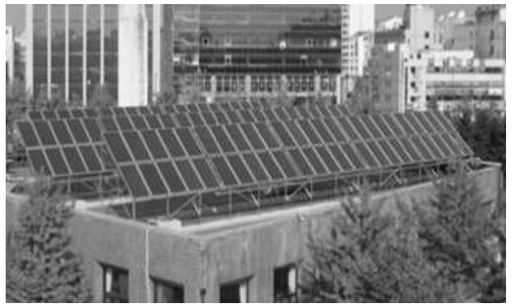


그림3.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태양열 집열기의 설치 형태

건물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BIST)의 특징

•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정의 및 종류

건물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 Building integrated Solar Thermal) 시스템은 건물의 외피(지붕 또는 외벽)에 태양열시스템을 직접 부착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 및 건축 외장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다기능적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적용가능한 태양열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설비형(active), 자연형(passive), 투과체가 있는형태(glazed), 투과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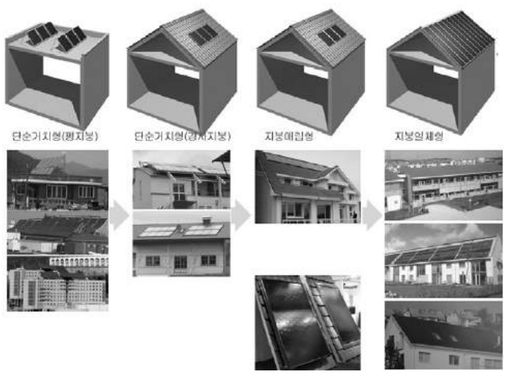


그림4. 건물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없는 형태(unglazed), 집광형(focuing), 비집광형(non-focuing) 시스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용도 측면에서는 난방, 급탕, 건조, 냉방 및 산업공정 등으로 구분된다.

외장재로서의 기능은 외부 기후로부터 보호 즉, 우수, 방풍, 방설 등의 기본 역할과 함께 단열, 내습 등의 기능을 가지고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외장재로서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상, 색상, 질감, 형태, 재료 등의 기능적 역할도 포함된다.

〈그림 4〉는 태양열 집열기를 건물외피에 부착시키는 수준 및 방법에 따라 BIST 시스템의 종류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사례를 예시한 그림이다. 태양열 집열기를 외피에 적용하는 수준은 크게 단순 거치형과 외피일체형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위치에 따라 평지붕형, 경사지붕형, 외벽파사드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때 열적 성능 및 의장적 특성을 고려한 외피일체화 구분의 핵심변수는 건물과 집열기의 열적 분리 또는 결합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평지붕 및 경사지붕에 지지대를 놓고 단순 거치한 형태의 시스템은 BIST의 범주로 보기 힘든 반면, 경사지붕의 물매에 맞게 지붕과 조화시켜 부착 거치한 시스템의 경우는 의장적 측면에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BIST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아직까지 외피일체 태양열 시스템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구분이 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엄밀한 용어적 의미로 본다면 기존의 건축 외장재 대신에 태양열 집열기가 건물에 일체화되어, 열적으로 완전히 건물과 결합된 시스템을 진정한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시스템의 범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고에서 기술하는 BIST도 위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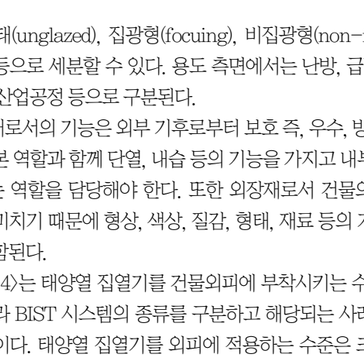


그림5. BIST 구조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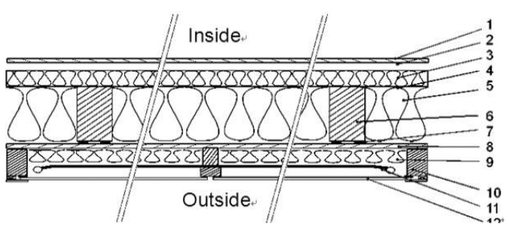


그림6. BIST 구조 사례 2

•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구조

BIST 시스템의 구조는 집열부를 건물외피에 어떻게 접할 시킬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그림 5〉 및 〈그림 6〉은 BIST의 단면구조 2가지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그림에 도식된 바와 같이 벽체 또는 지붕과 직접 열적으로 접합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전적 집열기를 변형없이 외피에 부착하는 것 보다는 열성능, 경제성, 의장성 등을 고려하여 BIST용 집열기를 별도로 설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 단열재와 집열기 단열재를 공유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따로 위치시킬 것인지의 여부, 집열기 흡수판의 길이 및 고정방식, 집열기 케이싱의 처리방법, 집열기 지지 프레임 및 디바이더의 구조와 결합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가능하다.

특히 신축건물이냐 기존건물에 부착하느냐의 여부와 기존 건물의 구조의 벽체구성 방법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열성능 측면에서 가능하면 열교현상의 최소화를 위해 흡수판의 연장길이가 길고, 접합부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메가집열기가 개발될 경우, 메가집열기를 직접 적용하거나 또는 흡수판과 같은 메가집열기의 구성부품을 일부 변형하여 용이하게 BIST용으로 적용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BIST)의 특징 및 장단점

선진 외국의 경우 태양광(PV) 산업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모듈의 성공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었듯이, 태양열 집열기도 건물일체화 형태로 보급될 경우 다양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태양열 집열기를 건물외피와 일체화 시킬 때의 장점은 크게 아래와 같은 4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열성능
- 건물과 태양열 집열기 사이에 열적 분리가 없다.
  - ▹집열기가 건물외피에 통합됨에 따라 집열기 자체의 열손실이 감소
  - ▹집열기가 건물외피에 통합됨에 따라 건물의 단열성능 개선
  - ▹외피의 단열성능 개선에 따른 건물의 열손실의 감소
- 모든 집열기 배관의 외기노출 억제에 따른 시스템 효율 향상
- 외벽일체형의 경우 하절기 과열부하 문제의 자연스러운 해결

② 의장성
- 건물 외벽과 일체화됨에 따른 건물 외관 손상의 최소화
- 건축 의장적 측면에서 외관의 향상
- 흡수판의 색상에 따라 건물에 첨단의 이미지 부여 가능
- 의장성 향상에 따른 건축실무자들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보급 확대

③ 경제성
- 건물 열손실 감소에 따른 건물 운영비의 절감
- 태양열 집열기가 건축외장재를 대체함에 따른 초기투자비 (재료비 및 인건비) 절감
- 외벽일체형의 경우 태양열 집열면적의 추가확대 가능. 이는 냉방, 난방, 급탕의 대처부하 확대를 위한 집열면적의 확보가 가능하게 하며, 또한 제한된 지붕 및 외피면적 내에서 태양광과의 면적공유를 가능하게 함.

④ 건물외피성능
- 집열기가 우수, 방풍, 방설 등의 기능을 동시에 발휘함
- 집열기가 단열, 내습 등의 기능을 발휘함
- 집열기 투명커버에 의한 건물 외피의 물리적 손상 보호
- 내구성이 큰 금속, 유리 등의 재료가 외장재로 적용됨에 따른 장수명화

BIST의 건축적 통합을 위한 기술적 고려요소

태양열 집열기를 건축외장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요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벽일체화를 위해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핵심적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설치각도와 일사획득량

기본적으로 연중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사각은 그 지역의 위도값 부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사각 30도 부근에서 연간 획득일사량이 최대값을 보이는 반면 90도의 수직벽면은 약 70% 정도만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태양열 집열기를 수직벽면에 적용할 경우 연중 획득일사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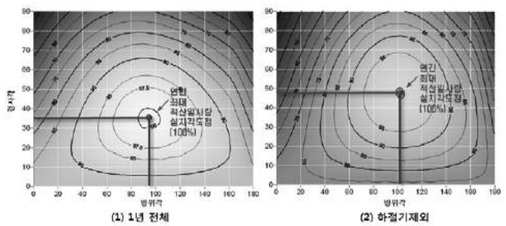


그림7. 다양한 방위각 및 경사각에 따른 연간 일사획득량(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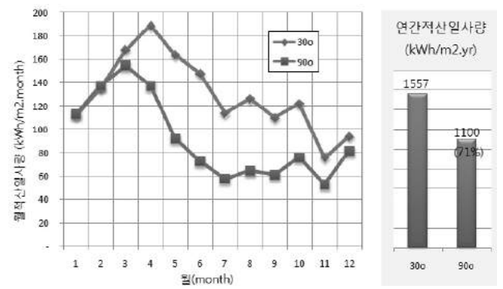


그림8. 90°와 30° 경사각의 월 및 연간 적산일사량 변화(대전)

하지만 태양열 시스템은 연중 발전이 필요한 태양광발전(PV)과 달리 동절기에 주로 사용하며, 하절기에는 오히려 과열현상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시스템 규모 계획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위도 지방의 경우 남측벽면의 경우 하절기 태양 입사각은 매우 큰 반면, 동절기 입사각은 작기 때문에 일사획득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점이 있다. BIST를 위해서는 〈그림 7〉 및 그림 8에 도식된 예와 같이 적용 각도에 따른 일사획득량의 득실 및 동절기와 하절기의 획득량 균형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결과는 하절기 과열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의 규모계획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요소이다.

• 외피일체화에 따른 BIST 집열기의 성능 변화

태양열 집열기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흡수판의 특성이지만, BIST 시스템의 경우 후면이 외벽에 일체화 됨에 따라 기존 집열기 조건과 상이한 열손실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집열기 적용 각도에 따른 BIST 집열기의 성능변화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지붕일체형과 외벽일체형과의 성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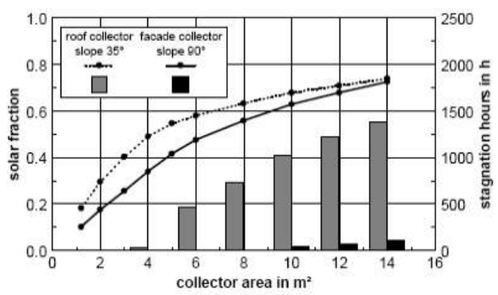


그림9. 설치각도에 따른 SSF값 및 시스템 미활용 시간의 변화 분석 사례

집열기의 설치각도에 따라 연간 획득일사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하절기 및 동절기의 일사획득량에도 차이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태양열 시스템의 적정면적 및 연간태양열절감율(SSF)의 결정은 동절기의 부하보다는 하절기의 과열문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건물 유형 및 적용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어떠한 설치각도가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도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9의 예와 같이 집열면적이 커질수록 외벽 및 지붕설치형 BIST 시스템의 태양열 절감율(SSF ; Solar Saving Fraction)값 편차가 줄어듬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집열면적이 커짐에 따라 하절기 시스템 미활용 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집열기의 설치각도는 시스템의 성능은 물론 시스템 규모 계획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요소이다.

• 외피일체화에 따른 건물 열손실 특성 분석

BIST 집열기가 외피요소가 됨에 따라 집열기의 열손실 감소는 물론, 건물 외피의 단열성능도 향상되게 된다. 기존의 태양열 집열기 후면 단열이 건물의 외벽단열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열관류율(U-value)값이 감소된 것과 함께, 태양열 집열기의 흡수판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함에 따라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벽체내 열흐름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

따라서 건물과 결합된 BIST의 통합에너지 해석을 통해 외피의 단열성능 개선효과 및 및 전체적인 건물 열성능 변화에 대한 정량적 시뮬레이션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건물의 열성능 개선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평가와 함께, 실내 쾌적성에 대한 평가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벽체 내에서 고온으로 상승하는 집열기의 온도영향은 하절기에 실내 내벽 표면온도에 영향을 미쳐 내부공간의 과열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른 쾌적성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영향정도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 BIST 접합부위의 열교(thermal bridge)현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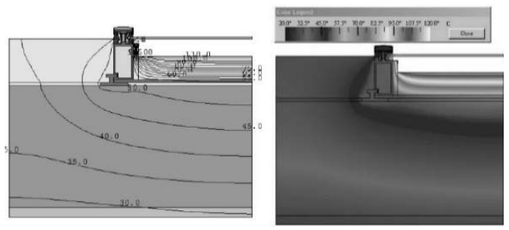


그림10. 외피일체형 집열기의 벽체 열관류 열교분석 사례

외피일체형 태양열집열기의 경우 외기와 접하는 면이 줄어들고, 집열기의 대형화에 따라 집열기간 접합부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류열손실이 기존의 일반집열기에 비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류열손실에 대한 단열성능이 좋아지면 질수록 접합부위를 통한 열교현상의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BIST 시스템에서 열교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집열기의 지지구조 프레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BIST의 경우 냉난방이 되는 실내공간과 열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교에 의한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차원 열해석을 통해 열교부위 온도변화 및 열손실량을 파악하고, 열교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디테일 개발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 사료된다.

• 집열기의 최고온도 분석

집열기의 외피일체화는 단열성능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열손실이 줄어듬에 따라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온도의 영역 또한 확대되기 때문에 집열기 및 벽체의 열응력에 대한 검토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하절기 시스템 비사용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최고온도는 실내의 과열현상에 미치는 열적영향과 함께 시스템의 파괴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고 도달온도의 문제는 콘크리트나 조적조와 같이 기존 건물벽체의 열용량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고온도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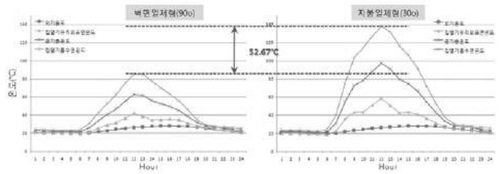


그림11. 90°와 30° 설치 경사각에 따른 부위별 최고온도 비교 (7월29일, 대전)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BIST)의 적용사례

지붕 또는 외벽을 대상으로한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BIST)에 대한 설치사례는, 최근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에 비해서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붕일체형 BIST 시스템에 비해 외벽 파사드 일체형 BIST 시스템의 설치사례는 더욱 그러하다.

지붕일체형 태양열 BIST 시스템은 비교적 설치역사도 오래 되었으며 북미 및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다양한 설치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하는 파사드 일체형 BIST 시스템은 1990년 말 이후 유럽의 특정지역, 특히 오스트리아 및 독일 등의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아직 활발한 보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등의 지역 내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BIST의 기존 설치사례는 특히 건축 의장적 측면 및 기술적 시공성 측면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 설치건수에 아주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다양한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시스템의 설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2〉는 공동주택 또는 개인주택의 외벽면에 태양열 집열기를 일체화시킨 사례이다. 기존의 대형 메가집열기를 공장에서 조립하여 크레인으로 현장설치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집열판과 투과체를 분리하여 커튼월을 시공하듯 설치한 방식도 있다.

〈그림 13〉은 독일 라이프치히의 아파트 사례로 발코니 파라펫 벽면에 태양열 집열기를 일체화시킨 사례이다. 당초 1973년에 건립된 167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2005년 리모델링 하면서 총 295㎡의 태양열 집열기를 조립식 발코니 형태로 적용하였다.

〈그림 14〉는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Theodor Kornerstrasse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이다. 태양열 집열기를 발코니 차양으로 응용 설치한 것으로, 시스템 규모는 집열면적 240㎡에 20㎥의 축열탱크 용량이다. 아파트에 공급되는 지역난방의 보조 열원 역할을 하는 용도로 2004년에 완공되었다.

〈그림 15〉는 비 주거용 건물의 사례로 체육시설의 BiST 사례이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있는 GAK Lizbherr스포츠 센터 파사드 일체형 태양열 집열시스템으로 2003년에 설치되었다. 86㎡의 집열면적에 5㎥ 난방축열탱크 및 5㎥ 급탕축열탱크를 통해 축구팀 트레이닝 센터에 급탕과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12. 공동주택 수직 외벽면에 적용된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시스템의 설치사례 1

그림13.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태양열 집열기를 일체화 시킨 사례

그림14.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차양형태의 태양열집열기 일체화 사례

그림15. 체육시설 건물에 적용된 외벽일체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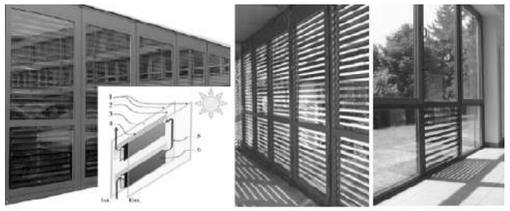


그림16. 프랑스의 창호 대체용 신개념의 태양열 집열기 시스템

한편 〈그림 16〉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 태양열 집열기 형태로 창호를 대체할 수 있는 투광형 태양열 집열시스템이다. 프랑스의 R사에 의해 개발된 이 시스템은 복층창호 내에 태양열 흡수판을 U자의 띠 형태로 배열하여 전후면에서 집열을 하여, 온수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저방사 코팅과 가스충진을 통해 창호 집열기 자체의 단열성능도 매우 높게 처리하였다. 채광과 동시에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열 집열 창호라는 점에서 비 주거용 건물의 응용에 매우 큰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7〉은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주거용 건물의 지붕 및 외벽 일체형 BIST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결론

기존의 일반 집열기에 비해 면적이 큰 메가집열기의 경우 집열기 서로간의 접합부위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의장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응용분야 중 건물의 외피에 일체화시키는 건물일체형 태양열 집열기로 활용할 경우 더욱 큰 부가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건축외장재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건축재료와의 호환성을 위한 모듈러 체계, 지지 프레임 구조의 열교현상, 설치각도에 따른 열성능 변화, 건물 외장재로 부착되었을 경우 단열성능의 변화량, 지붕외피에 일체화시키기 위한 건축적 각종 디테일 개발, 다양한 부속 액서서리의 개발, 과열해결 문제, 시공 관련 지침 등 다양한 형태의 성능평가와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이다.

또한 건축 의장적 측면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 할지라도 실사용자인 건축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보급에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외피 일체화의 개발단계부터 흡수판의 색상, 질감, 프레임의 간격 및 색상, 메가집열기 단위 모듈 크기와 기존 건축재료와의 호환성, 집열기 배열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열 시스템을 건물외피에 일체화시키기 위한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시스템에 대한 정의 및 특

그림17. 주거용 건물의 외피일체형 태양열(BIST) 시스템의 설치사례 2

성을 규명하고, 건물 외피에 결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기술적 고려요소 및 설치사례를 분석 제시함으로서 향후 외피일체형 태양열 시스템의 개발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04년 공공의무화 법안의 발효에 따라 비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한 태양열, 태양광 시장에 대한 보급시장이 수요가 발생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다. 하지만 주 적용대상인 건물의 기본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거치식 적용방법으로는 큰 호응을 얻기 힘들며, 장기적으로 볼때 이 분야 기술에 대한 보급은 결코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양열 집열기의 건물일체화기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틈새시장을 목표로 시급히 건축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형 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건물 적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

A Story about Lighting in the Future

도시는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이다. 때문에 도시에는 고궁이나 옛 건축물이 있고, 화려하고 심플한 현대건축물도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작품들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와 함께 시간에 흐름을 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도시와 도시의 경쟁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한국에 경쟁상대는 대만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이라고 했다면 오늘날에는 서울과 동경이 경쟁 혹은 부산과 파리의 경쟁 등 좀 더 세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디자인 서울이라는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등 모든 도시가 각각에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도시계획에 있어서 경쟁력의 중심에 도시야간경관과 조명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는 주간 시간대와 함께 야간 시간대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시에 생명력은 조명에 역할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도시의 경관 또는 조명연출계획은 어떻게 구성, 혹은 구상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검토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목 차

1. 도시야간 조명과 환경

2. 도시환경과 조명의 역할

3. 도시공공 디자인 시설물과 조명

4.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

필자 : 손장복, 현 동양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by Sohn, Jang-bok

• 한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 이사, 조명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 한국 도시경관학회 부회장
• 한국 IBS 코리아 협회 이사
•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인천시 경관 위원회 위원
•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심의위원

4. 미래조명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우리 인류는 1897년 에디슨에 의해 인공광원을 발명하면서부터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해 왔으며, 지금까지는 조명의 영역이 '빛을 밝힌다' 라는 뜻을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조명은 기존의 조명 영역으로부터 광범위한 모든 분야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 조명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지금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매우 흥미롭고 또한 매우 민감한 부분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면 까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생각하듯 과연 미래의 우리 인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 것인가?

미래의 우리 인류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해결책을 못 찾아 어려움을 겪을지? 결국 인류의 미래는 에너지와 환경이 Key가 될 수 밖을 없을 것 같다.

미래도시의 조명 역할은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우린 먼저 조명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작은 에너지에서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조명
2. 주택 실내 마감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명
3. 영상문화에 이용되는 조명
4. 최상의 에너지 – 빛
5. 대체의학을 통한 인류의 색다른 조명 치료
6. 농작물이나 가축을 키우는 조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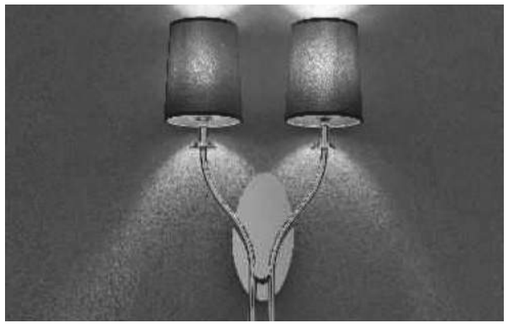
작은 에너지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조명

최근에 이러한 연구는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LED나 EL 등과 같은 소자나 면-발광 소재들이 그동안 약점이었던 효율이나 광속 등을 높이면서 차세대 광원으로 환영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신광원의 개발은 적은 에너지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어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주택 실내 마감재의 역할

주택의 실내 마감은 대부분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래에는 벽부가 면 조명으로 만들어져 벽지의 문양이나 색을 바꾸고 싶을 때 온도차이만 주면 빛의 파장에 의한 색상 변화가 자유롭고 무늬도 각각 만들고 싶은 데로 만들 수 있으며 좀 더 연구가 된다면 바닷가나 숲속의 분위기로도 만들 수 있어 먼 여행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듯 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영상문화에 이용되는 조명

지금까지 우리는 TV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할 때 그 영상물을 안착시키는 막이라는 것이 필요했으나 미래에는 이러한 요소가 불필요하게 된다. 최근 SF영화에서 보듯 상하에 공기 막을 이용하여 전자파가 만들어지면 바로 영화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 보면 앞면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 뒤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기술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착각과 착시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Telstra 보도자료

최상의 에너지 – 빛

태양열 에너지의 빛에너지를 축광시키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열에너지 보다 수십배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 우리 기술로는 빛에너지를 잡을수도 없고 축광시킬수도 없지만 만약 우리 인류가 이런기술이 개발된다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물론 과학적인 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찌 보면 빛의 속도까지 잡을 수 있다면 우린 아마 먼 여행지로 순간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대체의학을 통한 인류의 색다른 조명 치료

대체 의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체의학쪽으로 많이 연구 되어 실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성인병에 걸린 환자들의 경우 당뇨나 고혈압, 저혈압 또는 암 등은 치료될 수 있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완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즉, 당뇨에는 노란색 파장대의 빛을 얼만큼 받으면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고혈압과 유방암은 파장대가 긴 붉은색 또는 분홍색 파장대를 받으면 완치된다든가 하는 대체의학이 연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작물이나 가축을 키우는 조명의 역할

미래의 농작물이나 가축을 키우는 것 등에도 빛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용될 수 있다. 최근 콩나물이나 나팔꽃 등을 빨리 자라게 하는 파장대가 연구 활용되고 있으며, 닭이나 소 등 가축에도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으로 다양한 곡식과 가축에게 적용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빛을 이용한 에너지(태양열 에너지)는 무궁무진한 요소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열 에너지를 대기권 안에서 광열판을 이용해 얻어왔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과 같이 광열판을 이용한다면 양질의 높은 효율을 가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이같은 연구결과극 발표하여 대기권 밖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초단파를 지상에 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제 실험단계이고 좀 더 연구가 가속화된다면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 걱정없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소개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인류의 미래는 매우 긍적적인 방향으로 빛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과 쾌적한 삶이 윤택해지려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에 대한 반향도 적지 않다. 너무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상상이 모두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고 밝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00년 전 인류학자 들은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 더워질 것을 예측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당시 학자들은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 곡식을 4모작 할 수도 있고 쓸모없는 남극이나 북극 등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져 생산이나 필요한 자연요소가 될 수 있어 아주 행복한 지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낙관적 예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류는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쓰나미 등과 같은 엄청난 재해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밝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미래는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조명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 들게 감사린다. 우리나라의 도시들 모두가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건축과 미래 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준비가 부족한 글을 연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한다.

협회소식_ kira news

이사회

■ 제9회 이사회

2008년도 제9회 이사회가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건축문화재단'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임의 건, 국내외 인사의 명예회원 추대의 건,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 조정의 건, 2008 한국건축산업대전 부스유치 협조의 건, 협회발전대책반 설치 및 회원 업무 개선에 관한 건과 부의안건으로 서울건축사회 회칙 제정의 건, 위원회 운영총칙 개정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의 건, 2008년도 건축사연수교육 시행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건축문화재단'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임의 건
  - –정관 제정(안) 및 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국내외 인사의 명예회원 추대의 건
  - –오늘 협의된 외국 대상자중 ACA-13에 참석하는 단체장급 이상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키로 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추인하기로 함.
  - –향후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회원추천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심사기준 및 절차, 시상방법 등)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 조정의 건
  - –차기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를 2010년으로 조정하기로 함.
- 제4호 : 2008 한국건축산업대전 부스유치 협조의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원 모두가 부스유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
- 제5호 : 협회발전대책반 설치 및 회원 업무 개선에 관한 건
  - –강희달 부회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필요시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안사항 : 사무소경영구조개선, 회원인증패수여, 협회로고변경 등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서울건축사회 회칙 제정의 건
  - –서울건축사회와 행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위원회 운영총clr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한국건축산업대전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08년도 건축사연수교육 시행의 건
  - –건축사연수교육을 시행키로 하되, 비회원 교육비는 재검토하여 보다 구체화 · 현실화 하도록 함.
  - –예산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임원 4인(백민석, 이영호, 장양순, 이종정)이 협의 · 결정하도록 위임함.

▲기타사항

- 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문제와 APEC 등록건축사제도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도록 건축사헌장의 내용 변경 필요(필요시,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의견 수렴)

■ 제5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

제5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9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8 한국건축산업대전 최종점검의 건, 건축단체 통합의 건, (가칭)한국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 설립 참여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08 한국건축산업대전 최종점검의 건
  - –임원 및 시 · 도회장들이 부스유치에 적극 협력하여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협회부스에 임원 및 시도회장들의 설계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요청
- 제2호 : 건축단체 통합의 건
  - –단체통합 간담회('08.9.24)에서 논의한 대표자회의 상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 결과를 타 단체와 조율한 후 통합건축사협회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1) 통합되는 협회의 명칭은 '대한민국건축사협회'로 함.
    2) 정관(안) 및 통합일정(안)은 통합건축사협회대표자회의준비위원회에서 작성
    3) 각 단체는 2008년도 11월 말까지 정관(안) 및 통합일정(안)을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2009년 2월말까지 총회를 통하여 의결
    4) 등록원은 건축사협회 주체로 운영 또는 동 조항 삭제
    5) 통합 이전까지 각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
- 제3호 : (가칭)한국건축물설계단체협의회 설립 참여의 건
  - –협의체를 구성하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별도의 법인설립 문제는 좀 더 검토키로 하고, 필요시 T.F팀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함.
    - ▷9월29일 예정대로 단체장 회동을 진행하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의 용어는 변경

위원회 개최 현황

■ 제6회 법제위원회 제2분과회의

제6회 법제위원회 제2분과회의가 지난 9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축조심의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안) 축조심의의 건
  - –제9조~제27조까지 아래와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 · 보완하여 법제위원회(안)마련
    - ▷제9조 : "없고"를 "없으며"로 수정
    - ▷제10조 : 5천제곱미터 삭제함으로 소규모건축물까지 상세도면을 제출토록 함.
    - ▷제17조 : 1호 업무정지부분을 삭제, 2호 파산선고, 회사정리의 신청 부분 삭제
    - ▷제19조 : "의한"을 "따라"로 수정, 2항 2호 삭제 → 모든 조항 공통
    - ▷제21조 : 용역(계약서)과 도급(계약서), 용역비와 보수비의 용어에 대한 법리적 해석후(자문변호사에게 검토요청) 용어 선택, 사용할 것
    - ▷제25조 : "외주"를 "용역"으로 수정
    - ▷제26조 : 계약 파기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검토요청

▲기타사항

- 건축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제안의 건
  - –감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을 전체 법제위원회(10월)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7회 법제위원회 제2분과회의

제7회 법제위원회 제2분과회의가 지난 9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사감리 세부기준의 건, 건축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제안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공사감리 세부기준의 건
  -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법제위원회 회의실에 올리면, 그것을 토대로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제안의 건
  - –현재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건축분야제도 개선방안연구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함.
- 건축사의 감정업무에 관하여 사무처에서는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전체회의(10/2)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청(품질관리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법제위원회 제1분과회의

제4회 법제위원회 제1분과회의가 지난 9월 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안) 축조심의의 건, 설계대가 기준 관련 연구용역의 건,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복합민원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안) 축조심의의 건
  - –제3회 1분과회의에서 축조심의한 내용을 최종 법제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기로 함
- 제2호 : 설계대가 기준 관련 연구용역의 건
  - –동연구의 기본지침을 유준호 위원 및 유흥재 위원이 검토하여 정리하기로 하며, 이를 윤상조 부위원장이 최종검토 및 정리하여 법제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확대를 방어하기 위한 반박논리 및 대응방안(건축사지 기고 등)에 대하여 이맹룡 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기로 하며, 사무처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관계법령, 건축학과 교육과목, 구조기술사 시험과목 등)하여 이맹룡 위원에게 전달하기로 함.
• 제4호 : 복합민원의 건
–복합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이 각자 작성하여 법제회의실을 통해 9월11일 오전까지 올려주기로 하며, 이를 유흥재 위원 및 박준승 위원이 최종정리한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함.

▲기타사항
• 친환경,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건
–그린혁명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타단체 추진상황 및 실태파악)한 후 건축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7회 법제위원회

제7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의 감정업무의 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지원방안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의 감정업무의 건
–감정업무는 건축사의 업역임에도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타 관련 업종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하여야 함.
• 제2호 :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지원방안의 건
–사안의 성격상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나, 건축사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법제1분과위원회에서 소규모 건축사들이 살기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여, 논리개발과 협회의 입장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로 함.

▲기타사항
• 제2호 안건 등 건축 전반에 대한 '2008 한국건축대진단' 이라는 심포지움 개최를 검토하기로 함.

■ 제5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회의

제5회 비상대책위원회 기획분과회의가 지난 9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대처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대처의 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 논의함.

▲기타사항
• 본 협회 임원.시도회장 합동회의가 9/25일 오전 11시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9/25일 13시에 전체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대처의 건, 건축사사무소 "건축법인"화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대처의 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 논의함.

• 제2호 : 건축사사무소 "건축법인"화의 건
–건축사사무소 '건축법인화' 에 대해 논의함.

▲기타사항
• 시 · 도건축사회 사무국장들이 학교 BTL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무처로 보내면, 취합하여 황우여 국회의원님께 전달하기로 함.

■ 제2회 회관지분정리합동위원회

제2회 회관지분정리합동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관 대지지분 정리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대지지분 정리의 건
–지난 제1회 합동위원회('08.2.12)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관 대지지분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리키로 한 원칙을 재확인함.
–회관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개기관에 의뢰키로 하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본협회장 및 서울건축사회장이 협의 결정한 감정평가업체로 하기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비용부담은 판결에 따른 대지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키로 함.
–회관 대지가액은 2개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하고 건물가액은 회관 건립 투입비용을 기준하여 추후 임대료, 관리비 등을 협의 정산키로 함.
–이를 위해 본 협회 10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업체 선정, 예산사용 등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함.
–본 위원회 업무범위는 대지감정실시, 임대료 등의 협의 정산까지만 논의하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문제는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토록 함.

■ 제10회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제10회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위촉' 의 건,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문화신문' 운영 전반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위촉' 의 건
– '건축문화신문 편집위원' 에 대해서는 지난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 제9회 회의시 결정된 조충기, 윤종환 운영위원과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동신 건축사, 이미정 건축사 등 2인을 포함한 4인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
• 제2호 :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개정의 건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광고비 미수금과 관련된 '프레스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관해서는 프레스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행정위원회를 통해 광고비 관련 운영규정을 추가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문화신문' 운영 전반의 건
– '건축문화신문'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위촉된 편집위원 4인과 편집국장과의 편집회의를 통해 건축문화신문 발행일자, 기사내용 등을 조절하기로 함.

■ 제19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제19회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정관(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통합정관(안)은 기존 정관소위원회에서, 통합일정(안)은 총무기획분과회의에서 작성하되, 인원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구성하기로 함.
–정관소위원회 : 기존 3인→6인으로 변경
▷사협회(백민석, 조충기), 가협회(강철희, 조익수), 새건협(이충기, 권문성)
–총무기획분과회의 : 백민석 → 송평문으로 변경
▷사협회(송평문, 전영철), 가협회(곽재환, 이관직), 새건협(조상훈, 함인선)
• 통합정관(안)중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관소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기로 함.
–주요핵심사항
▷회원, 조직(이사제도 등)
▷대의원제도(선출방법, 구성인원, 의결사항 등)
▷회장제도(AIA 제도 도입문제 등)
▷사무처 조직(사무총장제 도입문제 등)
• 전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조찬(7시)모임을 갖기로 함.

건축계소식_ archi-net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전국건축사등산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회장 오경진 건축사)는 오는 11월 8일 전국건축사 등산대회를 대구 팔공산(해발 1,193m)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과 가족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구광역시 동구 동학동 동화사집단시설지구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출발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하산 후에 제공할 예정이다.

• 일 시: 2008년 11월 8일 (토) 10시 30분
• 집결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학동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 산행지: 팔공산 (1,193 m)
• 참석대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가족
• 회비: 20,000원(중식, 교통비 각자 해결)
• 산행코스
* A코스(6시간): 집단시설지구–부인사–파계봉삼거리–서봉–동봉–빵재–집단시설지구
* B코스(4시간): 집단시설지구– 수태골–오도재–동봉–빵재–집단시설지구
※자신의 평소 산행속도를 파악하여 코스 선택
• 준비물: 방풍/보온용 옷, 간단한중식, 간식, 식수 등
※산행 시 보험은 각 시 · 도건축사등산동호회에서 별도 준비
※각 건축사회 및 동호회별로 참석인원을 파악하여 10월 27일까지 총무에게 회신

■ 문의
등산동호회 총무 조병섭 건축사
M: 011-9935-9526
FAX: 02-575-8446

서울시 구로구 '2008 아름다운 구로건축 전시회' 개최

서울시 구로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도림역에서 테크노마트에 이르는 지하공간 1960㎡에서 '2008 아름다운 구로건축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과거관, 현재관, 미래구로관, 미래구로 상상관, 기업체별 우수작품관 등 5개 전시관이 선보였다.

먼저, 과거관에는 지난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구로구 모습을 담았다. '구로동 주거시설의 변화', '상전벽해:공장이 떠난 이후 신도림의 변화', '환골탈태:옛 구로공단의 추억' 등 4가지 소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다.

현재관에는 구로구건축사회가 뽑은 구로구의 대표 건축물 17개가 전시됐다. 문화시설(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교육시설(구현고등학교), 복지시설(화원종합 사회복지관), 의료시설(고대구로병원), IT빌딩시설(대륭 포스트타워2차) 등의 평면도, 투시도 등의 패널이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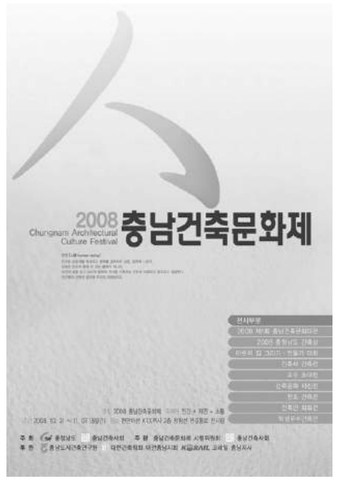
미래구로관에는 2020년의 구로구 모습이 미리 펼쳐졌다. '상습 침수지를 고품격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는 광역개발', '공단지역에서 첨단 디지털 비즈니스 도시로 변모하는 가리봉동', '영등포 교정시설이 떠나간 고척동', '공장지대에서 첨단 마천루 지역으로 변한 경인로' 등이 집중 조명됐다.

미래구로 상상관에는 동부제강부지, 거리공원부지, 구로역사 인근부지, 디지털 단지, 영등포교도소, 구일역, 항동부지 등에 대해 대학생 공모전을 실시해 뽑은 우수작품을 전시했다. 대상1명, 우수상4명, 특선5명에 대해서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기업체별 우수작품관은 금호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삼성건설, 쌍용건설, 에이스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직접 참가해 대표작품들을 전시하고 업체를 홍보하는 공간이었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과거관, 현재관을 통해 구로건축물의 역사를 살펴보고 미래구로관, 미래구로 상상관, 기업체별 우수작품관을 통해 향후 구로구의 건축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구로구에 서울시 최고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08 충청남도 건축상' 작품공모



충청남도와 우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가 충남지역 내 소재한 건축물로서 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사용 승인된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충남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 충청남도 건축상'을 개최한다.

충청남도내의 2006년 1월1일~2008년 09월 30일 사이에 준공 완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에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작품접수는 10월 21일까지 천안아산 KTX 역사 2층 장항선 연결통로 전시장에 접수해야 되며, 수상자 발표는 10월 30일, 시상 및 전시회는 10월 31일~11월 7일까지 개최된다.

■문의 : 충남건축문화대전 시행위원회 사무국, 042-252-4088

'200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 개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제주건축의 특성과 기능성이 구현된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하므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을 장려하고 나아가서는 건축사와 학생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후진을 발굴 육성하여 제주건축의 맥을 잇기 위해 '200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대상'이 개최된다.

공모 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 계획건축물부문, 건축사진부문이며 준공건축물부문은 제주특별자치도내 2008년 10월 27일 이전에 사용승인(준공)완료된 건축물로 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으로 구분된다. 계획건축물부문은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주제는 제주도내에 한한 자유주제이다. 건축사진부문은 제주도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부문과 고등학생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며 공모주제는 제주 지역 내 건축 및 도시환경을 소재로 한 건축 관련 사진이다.

행사 일정은 10월 27일 작품 접수와 함께 28일 심사, 31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11월 12일 열리는 2008제주건축문화축제 개막식 행사시 시상식을 개최하며 작품 전시는 11월 10부터 5일간 2008제주건축문화축제 기간 중 전시된다.

이번 행사의 주체는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사무국, 064-722-3248

제3회 AURI 인문학 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11월 7일 오후 2시 서울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제3회 AURI 인문학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기능적, 경제적 가치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적 가치들을 구현하고자하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1주제로 송도영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동물행태학 vs. 성찰적 인간 : 도시 공간 전개방식의 사례'라는 주제로, 권혁태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가 '기억 공간의 재구축 : 히로시마 평화공원, 개발과 평화이념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영상물의 외부공간, 그 인식과 실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강내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진경 연구공간 수유+너머 연구원과 박소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박영욱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강사가 패널로 토론하게 된다.

■문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www.auri.re.kr 성은영,이진민 연구(☎031-478-9651,9652)

삼성전자, 캐릭터 활용한 시스템에어컨 CF 눈길

삼성전자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에어컨을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와 옥주현을 기용해 제작한 CF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하우젠 시스템에어컨 CF에는 냉난방 전문가, 환기 · 청정 전문가, 절전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24시간 관리 전문가 등 시스템에어컨의 핵심 분야를 대표하는 남녀 전문가 캐릭터들이 등장해 시선을 끈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 캐릭터들이 일하는 모습을 3D 입체영상으로 공개해 하우젠 시스템에어컨이 채용한 전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장 점을 잘 부각시켜준다. 또 일하는 중간 중간 전문가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윙크와 'OK사인 동작, 요가 중 넘어지는 장면 등 자연스럽게 연출된 엉뚱하고 귀여운 캐릭터 모습이 CF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든다.

온에어와 동시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하우젠 시스템에어컨의 CF에 대한 온라인상의 반응도 뜨겁다. 네티즌들은 "정교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캐릭터의 디자인이 전문가로서 특징을 잘 살려주는 것 같다"며, "각각 다른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착용하는 등 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진 전문가 캐릭터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창업 연예인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중인 옥주현은 작년에 이어 하우젠 시스템에어컨과 또 한 번의 인연을 맺었다. 옥주현은 요가학원을 창업할 당시 1:1 맞춤 서비스로 요가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하우젠 시스템에어컨을 학원에 설치한 것이 인연이 돼 CF 모델로 기용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실제 옥주현의 창업 스토리를 토대로 제작한 CF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사용자로서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옥주현을 메인 모델로 기용했다.

신간안내

도시 + 건축 인허가 실무서

신재욱 · 신점표 편저 / 1,128쪽 / 도서출판 공유

신간 '도시 + 건축 인허가 실무서'는 건축공무원과 실무자가 함께 엮은 인허가 '실무' 지침서이다.

이 책은 도시와 건축은 분리된 분야가 아닌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종 관련 법령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의 필요성과 단순히 건축법만으로 건축에 적용할 수 있던 법령의 범위가 이제는 도시개발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따라서 실무 가이드북 '도시 + 건축 인허가 실무서'는 해당 법령의 나열에 그쳤던 기존 도서와 달리 구체적인 개요부터 세부적인 적용과 해당법령의 설명, 주요 질의 & 회신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기술사 준비자, 도시계획 실무자, 건축인허가 실무자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 문의 : 도서출판 공유, 031-816-611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월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6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홈페이지 리뉴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 리뉴얼의 대상

디자인과 컨텐츠 개편

◆ 디자인 개편

가. 메인화면 구성
편안한 블루와 회색을 기본 컬러로 자극적인 색감으로부터 눈의 부담을 줄이고 색상을 절제함으로써 통일감과 세련되고 심플함을 강조

나. 서브메뉴의 메인화면 구성
서브메뉴의 메인화면은 기존 홈페이지에 없었던 메뉴로 총 8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었으며 메인 메뉴의 특성 및 설명, 서브메뉴로의 분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서브화면 구성
1) 8개의 Main menu와 170개의 Sub menu(2depth : 55개, 3depth : 115개) 및 영문 홈페이지, Scrap, 마이 페이지 등 총 204개 메뉴의 Design이 개편되었음
2) Main Design의 가이드를 따르며 navigation과 본문과의 간격을 최소 화하고 게시물의 가로폭을 기존보다 100pixel정도 넓게 표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든 페이지를 통일 시킴

◆ 컨텐츠 개편

가. 개선방향
1) 신속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각계 각층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배포
2) 정보의 질 향상 : 각종 법령정보 기술정보 및 법령체크리스트 등 유용한 정보의 확보 및 배포
3) 정보의 제공 대상 확대 : 정회원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범국민적 정보제공 확대
4) 정보 제공방식의 변경 :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이 아닌 유기적인 정보제공 방식으로 전환
5) 커뮤니티 기능 강화 : 회원상호 간, 회원과 일반인 간에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
6) 새로운 아이템 추가

나. 나만의 메뉴
1) 개요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가 자신만의 메뉴를 구성하므로 서 사용상의 편의성 향상시키고 개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홈페이지의 활용도 및 참여도 고취

다. 스크랩기능
1) 개요
각종 게시물을 사용자가 생성한 카테고리 별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활용

라. SMS 답변 기능
1) 개요
민원인들이 상담코너에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자동으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답변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하고 협회의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및 민원인의 협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협회의 위상제고

마. 문서수발
1) 개요
총 5개의 메뉴(받은문서함, 보낸문서함, 내문서함, 문서작성하기, 친구목록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회원", "회원 ←→직원", "회원 ←→협회", "본회 ↔ 시도건축사회", "직원↔직원"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Contents
2) 기대효과
기존 이메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문서의 소실, 스팸, 전송지연 및 전송속도 등)을 개선하고 협회내 정보교환 네트워 시스템 구축 및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협회의 위상 제고

바. 파일 멀티업로드
1) 개요
기존 게시판이 게시물당 1개의 파일만을 업로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 사진첩"에 멀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함
2) 기대효과
기존 단일파일 업로드에 따른 불편함 해소를 하고, 동호회 활동상 편의성 제고를 통한 동호회의 활성화 기대도 고취

사. 기술정보서비스
1) 개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재데이터베이스(www.archidb.com)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이트 링크방식에서 archidb의 보유 정보 중 시방서와 디테일 일부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본협회 홈페이지의 Contents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건설자재데이터베이스(archidb)의 간접적 홍보를 통한 활성화

아. 회원작품전시관
1) 개요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회원 작품의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회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2) 기대효과
회원작품의 대국민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공유를 통한 회원 경쟁력 강화 및 협회 위상 제고

자. 그밖의 기능
1) 글씨 돋보기
게시물의 폰트 사이즈를 사용자가 조절토록 하여 게시물에 대한 가독성을 향상
2) 아이디저장
아이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하여 홈페이지 활용에 편의성을 제고
3) 방문자카운트
방문자 카운터를 통해 사용자 별 협회 홈페이지 이용 통계 추출 등 활용
4 협회도서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현재 8,703권의 자료 등록)

2008년 건축허가 현황(8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8월)			누계(1~8월)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동 수	18,497	17,109	-7.5%	149,517	154,712	3.5%
	연면적	11,443,018	8,321,090	-27.3%	82,627,566	77,646,270	-6.0%
주거용	동 수	6,044	5,850	-3.2%	48,185	52,299	8.5%
	연면적	4,970,074	2,765,946	-44.3%	28,741,965	22,315,489	-22.4%
상업용	동 수	5,699	5,322	-6.6%	48,163	48,873	1.5%
	연면적	2,755,464	2,335,471	-15.2%	22,776,421	23,316,555	2.4%
공업용	동 수	2,012	1,737	-13.7%	16,209	16,344	0.8%
	연면적	1,268,664	1,346,839	6.2%	11,213,688	12,699,500	13.2%
교육및 사회용	동 수	1,055	1,161	10.0%	8,865	9,063	2.2%
	연면적	885,746	785,550	-11.3%	9,051,974	8,327,402	-8.0%
기 타	동 수	3,687	3,039	-17.6%	28,095	28,133	0.1%
	연면적	1,563,070	1,087,284	-30.4%	10,843,518	10,987,324	1.3%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8월)			누계(1~8월)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동 수	18,497	17,109	-7.5%	149,517	154,712	3.5%
	연면적	11,443,018	8,321,090	-27.3%	82,627,566	77,646,270	-6.0%
철 근 철골조	동 수	15,626	14,397	-7.9%	125,219	131,284	4.8%
	연면적	11,146,918	8,101,776	-27.3%	80,467,005	75,716,804	-5.9%
조적조	동 수	2,020	1,838	-9.0%	17,319	16,250	-6.2%
	연면적	230,991	149,378	-35.3%	1,525,614	1,352,560	-11.3%
목 조	동 수	691	846	22.4%	5,871	6,564	11.8%
	연면적	50,823	67,517	32.8%	484,588	539,552	11.3%
기 타	동 수	160	28	-82.5%	1,108	614	-44.6%
	연면적	14,286	2,419	-83.1%	150,359	37,354	-75.2%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8월)			누계(1~8월)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7년	2008년	증가율
계	동 수	18,497	17,109	-7.5%	149,517	154,712	3.5%
	연면적	11,443,018	8,321,090	-27.3%	82,627,566	77,646,270	-6.0%
수도권	동 수	6,344	6,296	-0.8%	50,984	57,029	11.9%
	연면적	5,535,610	4,261,914	-23.0%	37,621,885	38,440,413	2.2%
서 울	동 수	959	1,106	15.3%	8,761	10,249	17.0%
	연면적	916,761	971,306	5.9%	8,861,006	10,649,226	20.2%
인 천	동 수	625	802	58.3%	4,799	5,458	13.7%
	연면적	581,317	568,961	-2.1%	5,482,969	3691,479	-32.7%
경 기	동 수	4,760	4,388	-7.8%	37,424	41,322	10.4%
	연면적	4,037,532	271,647	-32.6%	23,277,910	24,099,708	3.5%
지 방	동 수	12,153	10,813	-11.0%	98,533	97,683	-0.9%
	연면적	5,907,408	4,059,176	-31.3%	45,005,681	39,205,857	-12.9%
부 산	동 수	387	433	11.9%	4,265	3,885	-8.9%
	연면적	230,912	170,859	-26.0%	3,182,035	2,242,513	-29.5%
대 구	동 수	465	342	-26.5%	4,403	3,655	-17.0%
	연면적	807,256	117,623	-85.4%	3,793,043	2,255,253	-40.5%
광 주	동 수	309	260	-15.9%	3,045	3,487	-18.3%
	연면적	209,811	111,235	-47.0%	2,166,391	1,427,922	-34.1%
대 전	동 수	300	286	-4.7%	2,470	2,412	-2.3%
	연면적	133,135	346,941	159.8%	1,469,503	1,916,342	30.4%
울 산	동 수	446	371	-16.8%	4,908	3,516	-28.4%
	연면적	313,135	177,451	-43.3%	2,873,256	2,452,086	-14.7%
강 원	동 수	1,078	956	-11.3%	8,494	9,063	6.7%
	연면적	591,691	195,352	-67.0%	3,534,612	2,416,255	-31.6%
충 북	동 수	1,021	976	-4.4%	8,707	9,416	8.1%
	연면적	374,333	365,124	-2.5%	3,665,786	3,428,082	-6.5%
충 남	동 수	1,521	1,443	-5.1%	11,427	11,502	0.7%
	연면적	691,860	654,360	-5.4%	5,482,294	5,012,470	-8.6%
전 북	동 수	1,182	1,243	5.2%	8,455	9,025	6.7%
	연면적	423,987	302,685	-28.6%	3,025,221	289,3151	-4.4%
전 남	동 수	1,335	1,138	-14.8%	9,761	10,509	7.7%
	연면적	353,030	286,543	-18.8%	3,037,373	2,749,792	-9.5%
경 북	동 수	1,969	1,656	-15.9%	15,668	14,864	-5.1%
	연면적	880,755	627,215	-28.8%	4,968,929	4,893,720	-1.5%
경 남	동 수	1,857	1,411	-24.0%	14,515	14,900	2.7%
	연면적	807,251	491,419	-39.1%	6,898,636	6,600,457	-4.3%
제 주	동 수	283	298	5.3%	2,415	2,449	1.4%
	연면적	89,864	212,369	136.3%	908,601	917,814	1.0%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8년 8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63	5,063	121	242	12	36	5,196	5,341	1,557	1,557	264	528	75	225	21	84	31	224	1,948	2,168		7	7,144	7,959	100.0%	100.0%
서울	959	959	29	58	6	18	994	1,035	853	853	156	312	44	132	11	44	18	130	1,082	1,471		6	2,076	2,506	31.3%	33.9%
부산	460	460	18	35	1	3	479	499	91	91	16	32	5	15	1	4	2	18	115	160			594	659	8.5%	7.9%
대구	413	413	25	50	4	12	442	475	62	62	20	40	6	18	2	8	2	10	92	138			534	613	7.5%	7.7%
인천	238	238	2	4	0	0	240	242	53	53	7	14	2	6	0	0	0	0	62	73			302	315	4.0%	3.8%
광주	205	205	1	2	0	0	206	207	36	36	7	14	2	6	2	8	1	8	48	72			254	279	3.6%	3.7%
대전	214	214	12	24	1	3	227	241	31	31	9	18	6	18	0	0	2	19	48	86			275	327	3.5%	3.7%
울산	170	170	7	14	0	0	177	184	18	18	5	10	1	3	0	0	0	0	24	31			201	215	2.7%	2.6%
경기	695	695	3	6	0	0	698	701	228	228	18	36	3	9	1	4	2	12	252	289			950	990	13.0%	12.2%
강원	164	164	1	2	0	0	165	166	22	22	2	4	0	0	0	0	1	5	25	31			190	197	2.6%	2.6%
충북	184	184	5	10	0	0	189	194	32	32	4	8	1	3	1	4	2	15	40	62			229	256	2.9%	3.0%
충남	197	197	2	4	0	0	199	201	39	39	6	12	1	3	2	8	0	0	48	62			247	263	3.0%	3.1%
전북	211	211	4	8	0	0	215	219	21	21	2	4	2	6	1	4	0	0	26	35			241	254	3.2%	3.0%
전남	151	151	0	0	0	0	151	151	13	13	1	2	0	0	0	0	1	7	15	22			166	173	2.2%	1.9%
경북	330	330	5	10	0	0	335	340	29	29	3	6	1	3	0	0	0	0	33	38		1	368	378	5.0%	4.6%
경남	366	366	7	14	0	0	373	380	23	23	8	16	0	0	0	0	0	0	31	39			404	419	5.5%	5.0%
제주	106	106	0	0	0	0	106	106	6	6	0	0	1	3	0	0	0	0	7	9			113	115	1.5%	1.3%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7,959	10	7,969	100.0%	23
서울	2,056	3	2,059	33.9%	10
부산	659	1	660	7.9%	9
대구	613	0	613	7.7%	0
인천	315	0	315	3.8%	0
광주	279	0	279	3.7%	0
대전	327	1	328	3.7%	0
울산	215	0	215	2.6%	0
경기	990	2	992	12.2%	2
강원	197	0	197	2.6%	0
충북	256	0	256	3.0%	0
충남	263	3	266	3.1%	0
전북	254	0	254	3.0%	0
전남	173	0	173	1.9%	0
경북	378	0	378	4.6%	1
경남	419	0	419	5.0%	1
제주	115	0	115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341	2,618	85	8,044	
비 율	66.39%	32.55%	1.06%	100%	
사무소수	5,196	1,948	-	7,144	
비 율	72.73%	27.27%	-	100%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제3차 벤쿠버 중앙이사회 참가보고서

APEC 등록 건축사 제도의 제3차 중앙이사회가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지난 8월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이 중앙이사회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APEC 주요국에서 건축사제도를 관장하거나 관리하는 단체나 등록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의 건축사제도 등을 관찰하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협회의 'APEC 등록 건축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의 시 좋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의 등록건축사들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대표단을 파견했다.

한국 대표단은 본협회 이사인 심재호 이사와 APEC 한국위원회 위원인 이근창 아카시아 회장과 박연심 전 여성건축사회 회장, 그리고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춘규 국제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중앙이사회에서의 주요의제는 현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 APEC 등록건축사 제도안에서의 상호인증의 틀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회원국들이 중앙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에 대해 수행하지 못할 경우의 제재방법, 그리고 돌아가며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사무국 경비에 대한 분담 등에 대한 안건들이 주요 의제였다.

중앙이사회 회의

이번 제3회 중앙이사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가국 및 참가자: 14개국 총 53명

의장국	캐나다	등록원장, 협회장 등	7명
사무국	멕시코		8명
	호주	등록원장 등	3명
	홍콩	위원회	3명
	일본	주택국(MLITT) 등	4명
	말레이시아		3명
	뉴질랜드	건축사등록원	2명
	중국	건축사등록원	3명
	한국	협회	4명
	필리핀	협회장	4명
	싱가포르	등록관	2명
	태국	등록원	3명
	미국	등록원, 협회장 등	7명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결사항들

가. 등록신청서의 표준화 양식 사용에 대한 건 : 추후 MRA에서 각국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질 등록신청서 표준양식이 사무국에 의해 제안됨 : 일본의 반대로 앞으로 더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로 함

나. 제재에 관한 지침결정: 중앙이사회의 운영 메뉴얼이나 또는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단계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회원국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경과조치 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함. 실무위원회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가 들어가기로 함

다. 각 회원국 위원회의 경과보고 규정: 기존의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라. 상호인증에 대한 사례

1)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1994년부터 협상해옴. 캐나다와 미국은 문제가 없으나 멕시코의 경우는 교육부터 실무까지 제도적으로 차이가 많아 문제점이 노출 됨.
2) ASEAN 10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보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협정은 조인이 된 상태이며 2009년까지 실무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이나 기본안은 지역건축사와 협업하는 것임.
3) 홍콩 vs. 중국: 지난해까지 400명의 건축사 자격증을 상호 교환
4) 호주 vs. 일본: 2008년 7월에 APEC framework내에서 협정 호주는 면접, 일본은 영어 에세이를 통과하면 면허를 줌
5) 호주 vs. 대만: 2007년 9월 협정 조인함
6) ACE vs. AIA: 10여년정도 협상을 해옴, 2009년에 NCARB가 주도 타결을 하려고 함
7) ACE vs. 캐나다: 진행 중임.
8) 호주 vs. 홍콩: 2007년 협정
9) ACE vs, 멕시코: 2002년 협정되었다 함.

마. APEC 건축사제도의 상호인증의 Framework
제2회 멕시코 중앙이사회에서 3가지로 요약이 되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단계별로 6단계로 만듦. 이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현황이 대부분 지역건축사와의 협업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시키고 설득한 결과로 상호인증의 단계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를 얻어 가능해졌다.
이 기본의 framework안에서 점차적으로 조건이 없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이사회 대표단 기념촬영

- 제2회 멕시코 중앙이사회 결정사항: 3단계

– Domain Specific Assessment
– Comprehensive Registration Examination
– Host Economy/Residence/Experience

- 제3회 중앙이사회 결정사항: 6단계

– no Restriction: 호주/뉴질랜드, 미국/캐나다
– Domain Specific Assessment: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호주, 대만
– Comprehensive Registration Examination
– Host Economy/Residence/Experience
– Local collaboration: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중국, 캐나다
– no Recognition(of APEC Architects)
※ 태국은 제도적으로 제안이 불가함
※ 언어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됨. 즉 면접이나 간단한 시험 등은 host economy 의 언어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둠.

바. 사무국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협의에 거쳐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미국이 제안한 세계은행의 지표에 건축사 수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분담하기로 함. 분담금은 멕시코에서 지난 2년 동안 사무국 수행하며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고 이 비용의 75% 레벨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의결함. 1년에 U$36,000로 2년 경비는 U$72,000 이 됨.

예) 미국, 일본: U$ 5,190/year, 한국, 캐나다: U$ 4,330/year, 중국, 호주, 홍콩: U$ 3,464/year, 태국, 말레이시아: U$ 1,732/year

※ 실무 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결하고 협의된 방법에 의해 의결이 됨. 의결된 방법에 의해 분담비용을 사무국에서 다시 재정리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의결함.

사. 차기 사무국의 결정: 지난 중앙이사회에서 결정된 로테이션에 의하면 미국이 차기 사무국이나 내부 사정상 연기를 요청함. 따라서 2009년부터 2년간의 term을 필리핀에서 맡기로 함

아. 중앙이사회 개최국: 2010년 제4회 중앙이사회를 필리핀에서 추가 등록 비용없이 개최하기로 함. 2012년은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함.

앞으로의 전망과 문제점

APEC 건축사제도는 이번 벤쿠버의 제3회 중앙이사회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의 중 사무국에 대한 지정, 분담금 배정방법 및 제재조치 등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잘 넘김으로써 앞으로도 어느 기간은 무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발견한 몇 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APEC 건축사제도든 아니던 서로 필요한 베이스(reciprocity: 상호호혜)에서 여러 다른 레벨에서 상호인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 호주가 가장 적극적이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여러 상호인증의 고리에서 낙오가 될 수 있고, 시장의 경쟁력이나 시장 진입의 필요성에서 낙오된다면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APEC의 바운더리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이 건축사 면허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나 등록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아카시아 회원국과의 간담회

이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나라가 등록관등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석하여 결정적인 의견을 내는 반면, 우리는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전부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APEC 건축사 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APEC 건축사제도의 Framework 내에서 상호인증의 틀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쉽다.

APEC 건축사 제도에서의 적극성이 미국 등의 국가와의 FTA 등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관련된 부처들과의 공조에 의한 제도적인 체제구축과 정부기구가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 미국의 NCARB와 같이 정부를 대신하여 협의를 주도할 수 있고 권한을 위임받은 비영리 기구의 존재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간사
신춘규 건축사

설 경

강석후

- 한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 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1976 전북도전 입상
- 1977 신라미전 장려상
- 미술 포럼 한 여름밤 꿈전
- 송파 갤러리 전시 3회
- 제3회 한여름밤의 꿈전
- 건축가미술전 4회
- 2005 국제환경미술 엑스포(코엑스)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건축에서 빛과 공간의 만남

필자는 사진을 시작한 이래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빛을 이용한 작업을 이어왔다. 사진은 한마디로 빛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필자는 건축과 인연이 되어 3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부동의 자세로 움직일 수 없는 건축의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도시와 건축물들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이란 한마디로 빛과 공간의 만남이었다.

사진이 빛이면 건축은 공간이다. 빛이 없으면 사진으로 찍을 수 없듯이 빛이란 너무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빛은 건축물들에서 보듯이 빛을 이용한 건축계획이나 내부공간들의 설계나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20세기 최고의 예술가인 르 코르뷔제(1889~1965)는 젊은 시절, 새로운 건축철학을 엮은 그의 책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에서 "건축이란 빛 아래에 집합된 여러 입체들의 교묘하고 정확하며 장려한 연출" 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벽과 벽 사이의 한정된 공간에서 빛의 연출은 그의 모든 작품의 주제가 되었고 그의 작품중에 1950년경에 지어진 '롱샹성당' 과 '라 투레트 수도원' 에서 빛과 공간의 조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롱샹성당의 내부공간에서 보여 주듯이 거대한 벽면들을 통한 외부의 빛을 끌어들여 여러 가지 모양의 연출은 한마디로 빛으로 빚은 장엄한 미사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리옹에 있는 르 코르뷔제의 작품인 라 투레트 수도원에서 느껴지는 것 중의 하나는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빛과 공간의 조화들은 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건축 여행에서 이곳을 찾아 방문했던 기억 중에서 오후 늦게 수도원에 도착한 날의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까지 주변의 목장들과 어울려진 초원의 들판과 함께 자연 속에서 보낸 일들은 기억 속에서 사

1.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로비 아트리움　2. 롱샹성당 벽면창　3. 롱샹성당 내부 톱라이트

라지지 않는 일이다.

빛의 여러 가지 형태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까지 자연의 오묘한 진리들을 읽을 수 있었다.

현대건축의 흐름은 르 코르뷔제의 지극히 '조작된 빛' 에서 이제 루이스 칸(19010~1974)의 빛의 예술로 바뀌어 지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루이스 칸은 그의 건축에 대하여 위대한 시인의 "당신의 집에는 어떤 종류의 빛을 지니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건물의 벽에 태양이 부딪히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 건물이 항상 새로운 경이에 가득 차 있음을 압니다

매일 매일 다른 빛의 변화에 따라 어느 날 푸른빛은 그날만의 푸른빛이고 다른 날의 그 푸른빛은 또 다른 그날만의 빛입니다.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의 색깔인 전기 불빛은 단지 하나의 느낌만을 당신에게 보여 주지만 태양의 빛은 하나의 질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간의 순간순간의 횟수 만큼이나 많은 그때그때의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집이 건물로 남아 있는 날까지 하루하루의 날들은 다른 새로운

4. 라투레트 개인기도실 5. 라투레트 지하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은 그냥 존재만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히 이용할 뿐이지만 움직이는 태양에 따라 그 색갈이 달라진다.

필자의 건축사진 여행에서 미국 달라스에 있는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 작품에서 잊지 못할 것 중에 하나는 외부로 부터의 빛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킴벨미술관 주변에서 관찰하며 여러 사진들을 찍었지만 우연하게도 정오 12시경에 반 원통형 틈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빛과 공간의 조화는 너무나 멋진 작품사진이 되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자연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르 코르뷔제와 루이스 칸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유명한 건축사들의 디자인의 요소 중에 하나인 빛의 연출방법은 공통된 부분일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오피스공간이나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빛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여러 건축사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건축사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서도 빛과 공간의 조화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 하나인 "빛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내부의 조그마한 실내공간의 분위기는 외부의 빛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건축물들을 볼 때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은 빛과 공간의 조화를 어떻게 잘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그 건물들로 하여금 생동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에서 보여 주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과 빛의 만남은 그동안 건축사진을 찍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며 체험이다.

하루의 빛의 변화 그리고 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선조들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사진작업을 하며 지내는 동안 빛은 나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겠지만 자연이란 항상 좋은 날씨와 좋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이고 태양이 지고 어두운 밤이 올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실내공간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빛을 이해하고 빛을 잘 이용한다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빛의 종류에는 태양과 같은 자연광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광이 있다.

필자는 가끔 인공광을 이용한 실내촬영도 간혹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도 필요하다.

사진의 본질은 사실을 진실 되게 보여 주지만 사진은 찍는 사람에 따라 잘못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의 빛은 이른 아침과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에는 푸르게 혹은 붉게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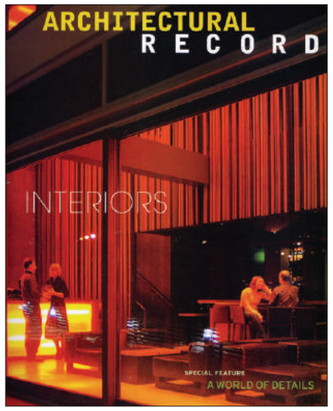
그러나 인간이 만든 형광등이나 백열등 아래에서는 녹색이나 붉게 잘못 표현되지만 자연광만큼 자연스럽게 색깔들을 잘 표현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건축에서 빛과 공간의 조화는 건축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빛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인식할 필요가 된다.

최현아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약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석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에서는 Project 섹션 대신 건물유형 별연구에서 2008년도에 Record가 지목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Johnsens Schmaling Architects가 설계한 Wisconsin의 Downtown Bar, 뉴욕시에 Dean/Wolf Architects가 디자인한 Virtual Light Lof, CL3 Architects가 설계한 중국의 Nishimura, 일본에 Wonerwall이 디자인한 Bape Shbuya, Amsterdam에 BAR/architecten Van Mourik이 설계한 BNA/Royal Institure of Ditch Architects, Boston에 있는 3SIX0 Architects & Design의 Stix, 그리고 Lyn Rice Archtects가 뉴욕시에 설계한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의 7개 공간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Books섹션에서는 교외의 풍속에 대해 세심히 다루고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 Building Types Study 884

Nishimura, China / CL3 Architects

CL3 Architects는 아시아 디자인의 전통성을 Beijing에 있는 Nishimura 레스토랑을 통해 21세기로 가지고 온다.

모든 것이 통하는 Beijing과 같은 장소에서 디자이너는 예술작품이라든가 커다란 꽃들을 배치함으로써 고급 인테리어에 장식을 더하기도 한다. 그러나 Shangri-La 호텔 2층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인 Nishimura의 디자인에서 CL3 Architects는 그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대부분 나무를 사용하여 디자인과 예술 사이의 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을 창조해 냄으로써 건축을 조각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디자인의 완성으로써 예술작품을 구매하거나 조각품 등을 여기저기에 놓지 않았다. CL3는 홍콩에 기반을 둔 회사로써 Shangri-La 호텔의 자회사인 일식당 Nadaman을 디자인 해 왔다. 이 작품에서는 다른 예술가들과 작업하지 않았고 순전히 예술을 우리 디자인을 통해 만들었다고 건축사들은 이야기한다.

이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참나무 색깔의 석회화로 된 연못과 연결된 책상에서 체크인을 한다. 어두운 느릅나무로 된 얇은 막대기로 된 파티션을 통해 방문객들은 사케 바를 볼 수 있다. 식사 공간과 바를 분리하기 위한 파티션에 다가감에 따라 손님들은 이 식당의 가장 멋진 120cm두께의 벽에 뚫어 놓은 곡선형태의 두 개의 구멍을 만나게 된다. 이 가로로 긴 타원 형태의 구멍은 하나는 작은 타원에서 점점 넓어지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형태의 타원에서 점점 좁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은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시선을 움직이게 한다. 작업자들은 수주일에 걸쳐 규격에 맞게 자른 합판을 얇은 판자로 만들었고 부드럽게 샌딩하였으며 왁스로 윤이 나게 하였다. 예술적인 매력은 차치하고라도 이 두꺼운 파티션은 낮은 보와 거대한 기둥이라는 두 가지 건축적인 요소를 숨기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건축사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준 일본의 정원과 4계절의 변화는 철판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와 같이 하얀색 조각돌을 바닥에 깔고 마른 벚나무를 심도록 하였다.

독립된 식당공간의 앞에 붙어 있는 거울로 된 벽을 위해 건축사는 합판의 줄무늬로 된 구형태를 만들었고, 스시 바 주변에는 휘어진 베니어 합판을 사용하여 우아한 스크린을 만들어 내었다. 자연스러움과 조화로움을 통해 Nishimura에서의 다양한 공간은 소위 "다 경험적인 식당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결합되었다. 하이테크적인 디자인과정이

아닌 오히려 노동집약적인 이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적합하다고 건축사는 이야기한다.

홍콩에 있는 일식당인 Nadaman에서 CL3는 녹색, 금색, 초콜렛과 아이보리, 그리고 대나무 패널을 섬세하게 섞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Nishimura에서는 예산이 낮았고 어떤 재료는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 건축사는 합판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합판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선택이 되었다. 이 식당이 홍콩에 생기고 보다 나은 예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욱 좋은 소재를 사용했겠지만 이와 같은 느낌은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건축사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Bape Shibuya, Japan / Wonerwall

움직임, 조명, 음향을 이용하여 Wonerwall은 동경의 시부야에 A Bathing Ape을 위한 감각적인 쇼핑공간을 만들어 냈다.

1993년, 동경 외곽의 Urahara에 A Bathing Ape(BAPE)라는 가게가 힙합 스타일의 모자가 달린 옷, 스니커즈, 그리고 티셔츠를 가지고 등장했을 때 BAPE의 디자이너들은 Gap이나 Uniqlo, 그리고 그 외 대량의 소매시장만큼 자신들의 옷이 팔리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홍콩과 뉴욕시를 포함하여 40개 이상의 점포가 생겨났다. 쇼핑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도쿄의 시부야에 가게를 여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특기 시부야의 중앙에 위치한 곳에 가게를 열기 위하여서는 주변의 가게처럼 물건을 모두 바깥에 진열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는 BAPE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는 상충된 것이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Katayama는 BAPE는 이미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007년 말 백색과 우주선과 같이 생긴 시부야의 가게가 문을 열었다. 브랜드의 마스코트인 고릴라가 'Go Ape'이라고 말

• Nishimura

• BAPE

하는 이미지를 빼고는 회사의 어떤 정체성은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포커페이스와 같은 느낌을 주는 벽체가 거리에 면하고 있으나 유리를 통해 볼 수 있는 반짝이는 조명은 쇼핑객을 안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거대한 테트리스 게임처럼 LED로 된 반짝이는 그리드가 입구의 벽과 바닥에 줄지어 있다. 이 반짝이는 사각형들은 시간에 맞춰 색색깔로 변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의 스니커즈는 현관 로비의 유리 바닥 아래에서 콘베이어 벨트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비록 에너지 보존과 지속가능성과는 거리가 있으나 Katayama의 이 BAPE 디자인은 확실히 다른 전통적인 캐쥬얼 웨어를 파는 가게들과는 구별이 된다.

가게는 내부에 있는 '거리' 의 그리드에 의해 조직화 되어 있고 그 중앙에는 두 개의 유리 상자가 우뚝 솟아있다. 선반과 붙박이 장에 의해 분리된 뒤쪽부분의 골목같은 길은 여성용 옷과 서비스 카운터가 있다. 또한 거울처리된 문과 파티션은 드레스 룸을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대리석으로 된 반짝이는 표면은 가게로 발길을 이끌고 은색과 핑크색으로 된 알루미늄 벽체는 각각 남성코너와 여성코너로 분리를 시킨다. 중앙의 유리상자와 같은 파티션에 새겨진 비정형적인 형태의 패턴이 또한 눈길을 끈다.

이 매장은 BAPE의 각 매장에서 독특한 디자인을 골라 조화롭게 편집을 하였다. 예를 들어 LED 그리드나 현재는 없는 스니커즈 전문 매장에서 사용하였던전시용 컨베이어 벨트 등은 디자이너가 기존의 디자인에서 가지고 온 아이템들이다.

단지 가게를 디자인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 방법을 디자인 한 것이라고 디자이너는 이야기 한다.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 New York City/ Lyn Rice Architects

Lyn Rice Architects는 Parsons의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에 새로운 도시의 안뜰을 뉴욕시의 캠퍼스와 결합한다.

5번 도로와 13번가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네 개의 20세기 초기 양식의 건물로 이루어진 뉴욕의 디자인 학교인 Parsons는 일종의 불평들을 1970년대 이래로 쭉 들어와야만 했다.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디자인(건축에서 패션에 이르기까지 약 22개의 프로그램이 있다)의 이상과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arsons의 공공도로와 학교의 동선에 대해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개성이 있다' 이다. 뒤쪽의 골목과 서비스 에어리어에 의해 연결되는 꺾어진 형태의 건물은 지나다니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좁은 로비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 도로까지 줄을 서야만 한다. 학교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 보여주거나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arsons가 소중하게 여기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도시는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다.

2003년에 자선가인 Sheila C. Johnson로부터 자금의 지원을 받아 부분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으며 그 목적은 동선의 개선하고 다른 학과로부터 학생과 교수진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학교의 정체성을 전달하면서 도시와 학교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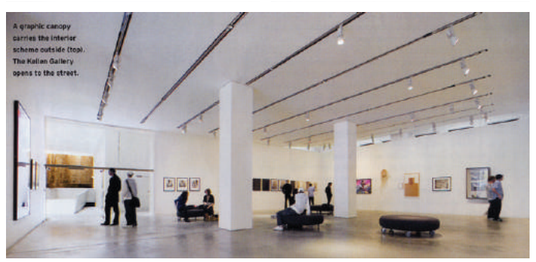
'학교와 도시의 재연결' 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었다고 건축사 Lyn Rice는 이야기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전에 다양한 건물을 결합하고 있는 어지러운 행위들이 더 걸림돌이었다. Lyn Rice는 수년에 걸친 건물의 보수, 각 층간의 정렬되지 않은 레벨, 건물과 건물의 정렬되지 않은 구조와 불규칙적으로 분할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네 개의 건물데 대한 복잡함을 언급하면서 마치 본인이 네 종류의 다른 동물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해야만 하는 수의사 같았다고 회고한다.

우선 건축사는 이 복잡함으로부터 대지의 중간에 있는 1층짜리 가게를 없애고 도시적인 사각형태의 안뜰을 만들어 냈다. 이 안뜰은 1,600평방피트의 캐노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빛이 들어오고 전형적인 뉴욕시의 광경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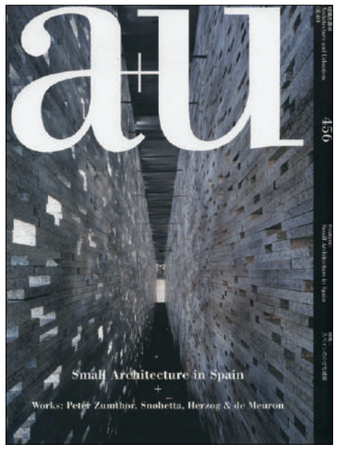
또한 건축사는 학교의 정체성을 정의하기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였다.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 주변을 따라서 건축사는 문턱을 낮추고 알루미늄 프레임의 기울어진 유리창을 끼워넣음으로써 파사드에 개방감을 주고 도로에서부터 디자인 크리틱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시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벽에 컬러와 질감을 사용하여 새로운 건축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프로그램 요소가 많이 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축사들은 그들만의 매터리얼 팔레트를 가지고 존재하는 공간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었다. 예를 들어 건축사들은 중앙의 문서보관소의 벽에 회색의 선을 그어 방음의 기능과 분위기를 밝게 하였으며 생동감있는 컬러의 중앙책상과 락커를 설치하였다. 오디토리엄에는 노출된 벽돌 구조에 대나무상자를 끼워넣어 슬레이트로 된 칠판의 기능을 겸한 정면 벽의 소음을 차단하였다.

• Sheila C. Johnson Design Center



a+u



■ Curr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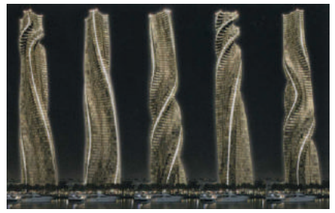
New Waterfront for Rimini, Italy : Foster and Partners Design

Foster and Partners Design는 Rimini의 New Waterfront개발계획 디자인을 발표했다. 도시의 중심부와 임해지구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세계 속에서 여행자를 모을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 낸다는 취지의 제안이다. 개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양한 activity의 요소를 담는 새로운 임해지구의 산책로 및 Rimini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해변문화를 계승시켜 현재도시의 분위기를 반영한 고층호텔을 시작한 다양한 공공공간이다. Waterfront는 보행자 천국이 되고, 후방의 공립공원-綠의 주축-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여름 더운 시기에는 공원의 나무그늘로 시원하게 된다. 현재는 임해지구와 역사 있는 가로를 연결해, 보다 접속을 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산책로의 일대까지 넓게 연결되어진다.

• Waterfront 조감

The Dynamic Tower by David Fisher in Dubai, UAE

두바이 Dynamic Tower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빌딩」으로서의 건설이 예정되어있고, 건축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고하는 것과 함께 미래도시 두바이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혁신적인 건축사 David Fisher가 참여한 이 다목적빌딩은,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각층이 서로 다른 속도로 독자적으로 회전함으로서 시간이라고 하는 4차원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unique하고 계속 진화하는 건축이기 때문이다. 80층 건물로서 높이는 420m다. 아파트도 124㎡에서부터 부지 내에 주차장을 완비한 1,200㎡의 빌라타입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다. 1층에서 20층까지가 오피스, 21층부터 35층까지가 고급호텔, 36층부터 70층이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10개 층에 두바이에서 최고의 location을 자랑하는 고급빌라가 수용되어, 시내에서 제일 산뜻(?)한 건물이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층빌딩으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프리패브건축으로 모두 공장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조립작업에 600명,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에 80인의 기술자가 있으면 기한 내에 완공이 된다. 종래의 동등규모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2,000명에 비해 대폭 인원이 줄여서도 해결된다. 2010년에 완공예정이다.


• 전경이미지. 회전하는 모양

Snohetta Designs King Abdulaziz Center for Knowledge and Culture, Dhahran, Saudi Arabia

King Abdulaziz 지식문화센터는 Saudi Aramco 석유회사가 국내의 문화발전을 조장하기위해 세운 지금까지 없는 대단한 계획이다. 2007년 招待건축설계경기에서 Snohetta가 당선되고, 이 영예로운 문화센터의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Dhahran에 건설되어질 예정이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폭넓은 activity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규모의 문화토대를 꿈꾸고 있다. 완성되면 넓이 45,000㎡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전시장, 박물관 및 아케이드가 있는 다종다양한 건설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회당은 1,000석, 오페라, 교향악단 콘서트, 뮤지컬

• 전경이미지

박종철 / 정회원,
(주)인터스페이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by Park, Jong-cheol, KIRA

에서 강연회까지 걸쳐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가능하다. 작은 영화관도 병설되어 다양한 타입의 공연에 대응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건설이다. 도서관은 30만 편의 장서를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이른바 노인층 및 이용자층에 대응한 학습의 장이 된다. 2011년 완공예정이다.

Transforming Tate Modern 2 by Herzog and de Meuron

Tate Modern이 런던에 변화를 주고, 또 Thames 강변의 south bank지역에 활력을 계속해서 부여한지 딱 8년의 세월이 지났다. 여기 2년간에 걸친 project 「Tate Modern 2의 재계획」은 Tate Modern 2의 부지와 주변지역 전체의 풍부한 가능성을 확립할 건축사 Herzog and de Meuron의 설계팀에 의해 재 계획안이 제안되었다. 부지에서의 작업은 2009년 중반에 시작하여, 2012년 런던올림픽 및 패러림픽에 맞추어서 완성예정이다.

• Tate Modern 2의 확장동

■ Exibition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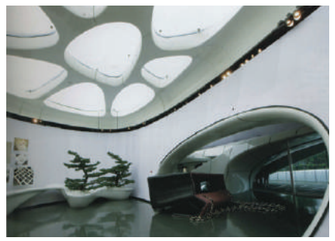
Chanel Mobile Art

May 31-July 4, 2008

National Yoyogi Stadium Olympic Plaza, Tokyo, Japan

5월 31일~7월 4일까지 동경, 국립요요기경기장 올림픽플라자에서 「Chanel Mobile Art」가 개최되었다. Zaha Hadid가 디자인한 특설 pavilion은, 2008년 2월 홍콩에서 오픈한 후 동경에 상륙했다. 앞으로도 조립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뉴욕, 런던, 모스코바, 파리 등을 포함하여 세계 7대 도시를 순회한다. 일찍이 Coco Chanel이 무명시절의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에 내보냈던 것처럼 이번 Mobile Art는 현대에 있어서의 샤넬과 아티스트의 협동형식이다. 1955년에 만들어진 샤넬 퀼팅 handbag 「2.55」가, 이번 전시회의 주제가 되었다. 반세기 이상동안, 항상 그 시시때때로 모던함을 이어오고, 여성들을 「자유」, 「우아함」, 「창조성」에 가득한 세계로 인도한 샤넬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bag의 정신을, 20팀의 아티스트가 개개인의 작품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 pavilion을 내려다 본 그림


• pavilion내의 courtyard. 왼쪽의 작품은 오노요코에 의한 설치품 「Wish Tree」(2008)

Architectural Creation : Peter Markli and Jun Aoki

June 3-August 3, 2008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Tokyo, Japan

이 전람회는 행운의 산물이다. 그것은 창조라고 하는 행위에 결합되어져 있다. 큐레이터는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전람회의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 그 신념은 더욱더 전개하고, 이 전람회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둘러싼 설득력이 있는 전람회 카탈로그로 결실된다. 이 전람회는 합리적으로 완벽한 계획에 기초로 해, 하나의 비범한 이벤트가 충분히 되살려졌다. 지극히 아주 드문 예의 하나다.

• 전시홀. 전시테이블은 구름의 형태로 부유해 있다.

■ Works

Peter Zumthor

Brother Klaus Field Chapel / Wachendorf, Eifel, Germany 2007

스위스인, Flue 聖 니콜라스(1417~1487년), 통칭 Brother Klaus(수도사 Klaus)를 받드는 야외예배당은 농장경영자 Hermann-Josef Scheidtweiler와 그의 부인 Trudel의 의뢰에 의한 것이다. 부부는 친구지인과 직장동료의 손을 빌리면서까지, 이 예배당을 대부분 자력으로 건설하였다.

• 들판가운데의 예배당을 접근에서 봄.

Snohetta

The New National Opera House in Oslo, Oslo, Norway 2008

프로그램-1999년, 노르웨이 국회는 오슬로 피요르드해에 면한 뵤르비카에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에 의해 이 건물은 수도인 이 지구의 도시재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컨셉-「The Wave Wall」. 노르웨이에서 오페라와 발레는 아직 새로운 예술분야다. 이러한 예술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뵤르비카반도는 항만도시의 일부이면서,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접점이 되어왔다. 「이 나라의」 大地와 「저 나라의」 물을 갈라놓는 선은 현실이고 또 상징이기도 한 경계다. 이 경계는 대지와 바다, 노르웨이와 세계, 예술과 일상의 생활이 만나는 선 위에 큰 벽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오페라하우스는 사람들이 예술과 만나는 경계인 것이다.

• 오슬로 新국립오페라하우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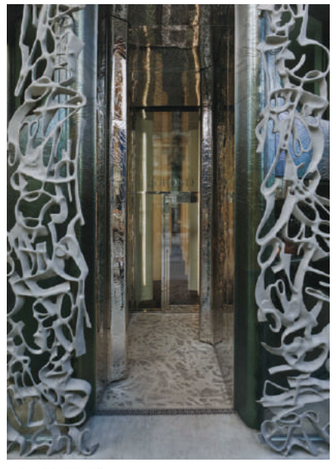
Herzog & Meuron

40 Bond, Apartment Building Bond Street / New York, New York, USA 2007

뉴욕다운 문 입구가 좁은 구획 5개에 걸친 부지는, NoHo의 중심을 지나는 비교적 폭넓은 옥석부지의 Bond Street에 면해 있다. 부지 내는 규모도 비례도 가지각색인 브라운스톤(적갈색의 사암으로 정면을 마무리한 건물)과 창고와 다락 등으로 메워져있다.

Bond Street 일대가 뉴욕에서 가장 뛰어난 고급주택지였던 것은 18세기 초다. 벽돌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아름다운 테라스하우스와 대저택에는 名家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지역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은 1840년대, 때마침 5번가의 인기가 오르고 테라스하우스가 상업건축에 새로 지어진 무렵 이였다. NoHo의 건물이 다양화하고 주택건축과 상업용건축이 혼재하는 상황은 19세기 뉴욕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기술전환의 출현이다.

• 파사드 전경. 슬라브와 기둥은 부드럽게 휘어진 곡면유리에 덮어져있다.



• 아파트의 공용현관

■ Fe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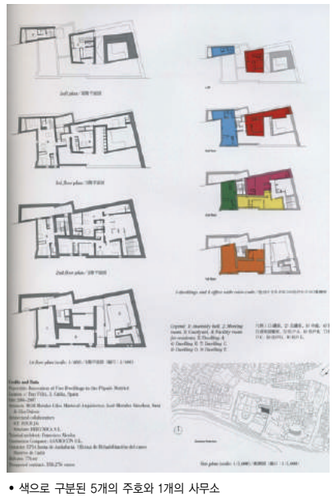
Small Architecture in Spain

유럽제국 가운데에서도, 건축시장이 활황인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국외의 저명건축사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현대 스페인건축의 情勢를 인상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면으로 스페인 국내 건축사에 의한 지역프로젝트도 많이 존재한다. 그 토지를 잃고 해석하고,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해석을 부여해서 만들어진 건축은, 스페인 고유의 풍토로 스며들어 간다. 본 호에서는 비교적 소규모인 작품에서, 그러한 그들의 건축수법을 잃고 해석해 간다. (編)

MGM Morales Giles Mariscal Arquitectos

Renovation of Five Dwellings in the Populo District / Cadiz, Spain 2007

• setback한 옥상계단 모양. 안쪽으로 Catedral이 보인다.



• 색으로 구분된 5개의 주호와 1개의 사무소

MGM Morales Giles Mariscal Arquitectos

Rehabilitation and Change of Use of Housing into Hotel Holos / Seville, Spain 2007

• 호텔을 둘러싼 알루미늄의 겹쳐쌓은 모양

Fermin Vazquez / b720 Arquitectos

Refurbishment of Plaza del Torico / Teruel, Spain 2005-2007

• 아케이드에서 광장을 봄

• 2개의 옛 저수조를 연결하는 갤러리모양

Eduardo / Arroyo

Levene House / San Lolenzo de El Escorial, Madrid, Spain 2005-2007

• 나무와의 상관관계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도해

• 북동측에서 레베네하우스를 내려다 봄

Guillermo Vazquez Consueg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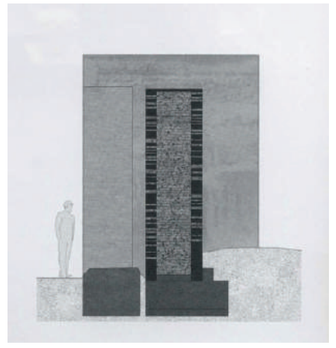
Visitors Centre for the Baelo Claudia Archaeological Site / Tarifa, Cadiz, Spain

• 동측에서 테라스를 봄

• 통로서측에서 테라스를 바라봄

Antonio Jimenez Torrecillas

Nasrid Wall / Upper Albaicin, Granada, Spain 2002-2006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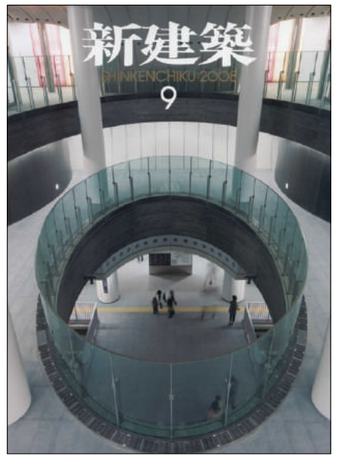
• 좌측에 성벽이, 멀리에는 聖미카엘 교회가 보인다.

Anton Garcia Abril

SGAE Central Office / Santiago de Compostela, Galicia, Spain 2008

• 단면 모형사진

• 석벽의 근경과 보라색으로 빛을 밝힌 내부의 벽



이번 2008년 9월호 신건축은 '가구와 건축과 도시가 연속하는 풍경', '풍령(風鈴)에서 도시까지' 라는 제목으로 記事를 싣고 있고, 독립, 용기, 축복이라는 타이틀로 작년에 작고한 로헤리오 살모나의 '건축展'에 대해, 그리고 'green buildin의 가능성' 「German Architecture & Lifestyle」리포트를 칼럼으로 쓰고 있다.

프로젝트로는 주택, 스포츠센터, 驛舍 등 16개의 다양한 작품을 싣고 있다.

그중 東急東橫線 시부야역(동경메트로 부도심선 상호직통운전화사업)설계에 동참한 안도다다오(安藤忠雄)의 解說 '都市의 建築을 생각하다'를 실어본다.

■ 都市의 建築을 생각하다 – 안도다다오(安藤忠雄)

鷄卵形 空間「地宙船」의 實現

東京急行電鐵로부터 시부야에 생기는 지하철驛舍의 설계를 의뢰받은 것은 2005년 봄이었다. 시부야라는 입지에도, 역이라는 프로그램에도 흥미는 있었지만, 지하역이라고 듣고 일순간 망설였다. 보통 지하철역사는 토목공사로 만들어지는 지하구체를 전제로 계획되어진 것이다. 벌써 전체골격이 결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역사의「建築」이라고 말하면서, 그다지 본질적인 공간의 제안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한 것으로는, 당시는 아직 토목구체의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었고,「驛」은 어떠해야하는 것인가, 라는 정면부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만약 내가 만들게 되면…」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것은 지하 깊게까지 빛과 바람을 끌어들이는 보이드 공간을 계란형의 쉘에서 담아 넣는「地宙船」의 이미지였다.

사업자측은, 토목구체의 중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는 나의 제안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비용과 일정도 크게 변한다. 사업계획 그 자체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자신「제안이 지나치고, 실현은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지만 수일 후,「安藤씨의 案으로 OK가 났다. 토목구체 설계도 至急으로 변경 한다」라고, 의외로 승낙의 답변이 왔다. 東急電鐵에도「무언가 새로운 역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實은, 포개어 짜 넣는 계란형 공간의 아이디어를 시도한 것은 시부야역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에 발표한 오오사카市 중앙공회당의 재생제안「中之島 프로젝트2 지층공간, urban egg」의 가운데서, 나는 기존 건물에로의 계란형공간의 삽입에 의한 건축을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대담한 제안이 당국에 들어갈 리도 없고, 프로젝트도 꿈처럼 끝나버렸지만, 그 구성의 아이디어는 계속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시부야 지하철역 프로젝트라는 기회로 우연히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이다.

바람이 통하는 地下驛舍

설계기간은 약 1년간. 당초는 공간의 아이디어와 지하역사라는 프로그램조정에 상당히 애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한편 무모하게 보이는 보이드 공간을 감싸는 계란형공간의 구성은 의외로 지하역으로서의 이치에 딱 맞는 형태였다. 각층을 관통한 보이드 공간은 방향감각을 잃기 쉬운 지하철 공간에서, 이용자가 항상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재안전상의 큰 장점이 있다. 그 위에 덮이는 계란형의 쉘과 함께, 이른바 지하의 랜드마크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간의 시인성만이 아니고, 지하공간의 환경제어에 있어서도 그 입체적인 공간구성이 의미를 가진다. 사실, 東急電鐵은 역사공사에 맞추어 가까운 곳에 세우는 東急文化會館의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고, 지하역에 근접하는 공간에는 승하차장에 이르는 드라이에어리어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이곳에 계란형의 원룸공간을 접속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계설비에서 처리되는 전차의 폐열을 자연 풍력으로 신선한 공기와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자연환기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내의 공조시스템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GRC(Glassfiber Reinforced Concrete)로 만든 계란형 쉘 벽내의 공동을 이용하고 복사냉방방식을 채용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한다. 당초는「계란은 콘크리트로」라고 생각했던 것을 구조적, 시공적인 검토 끝에 GRC로 한 것이지만, 이 선택이 결과적으로 금회의「바람을 받아들이는 地下驛舍」라고 하는 주제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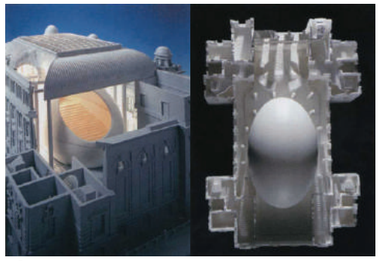
대도시 동경의 결절점인 시부야 지하역에는, 매일 수십만명의 사람이 오고간다. 도시내의 문화시설이 아무리 사람을 모으고 있어도, 고작해야 연간 백만명 정도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부야역 같은 장소는 가장 도시적인 공적인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금회의 계획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동경의 또 하나의「廣場」이었다.

驛空間의 未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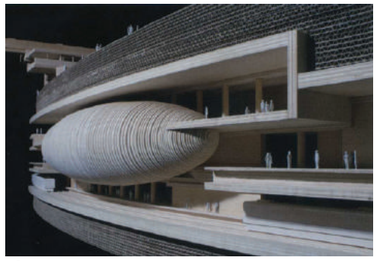
현재, 東急電鐵의 의뢰로 계획한 또 하나의 역「東急大井町線上野毛驛」이 공사 중이다. 우에노게역(上野毛驛)에서는, 배수로 철도부지와 플랫폼상부를 公道(上野毛길)가 가로지르는 입지특성을 낳고 있고, 도로를 올라타는 큰 지붕을 가진 驛舍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보행자, 전차, 버스, 차, 자전거 등의 다양한 교통망을 하나의 큰 지붕으로 덮어 일체화하는 것으로, 도시 인프라의 합리적인 종합과 더불어 지역의「얼굴」이 되도록 하는 역전 풍경의 창출을 의도한 계획이다.

21세기, 지구환경의 위기가 주장되는 시대에 있어, 환경문제의 원흉의 하나인 현재의 자동차사회는 앞으로 도태되어 갈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공공교통기관, 그중에서도 도시권의 철도네트워크 존재는 더 한층 중요성을 강조해 갈 것이다. 東急電鐵에서는 연선전체에서 적극적으로 벽면녹화, 법면녹화를 진행하고 있고, 上野毛驛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면녹화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의 존재 방법을 생각하는 위에, 매우 재미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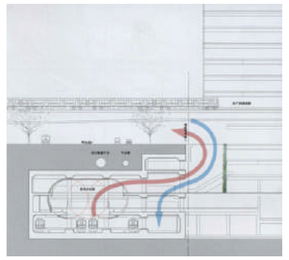
도시공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잠재성을 감춘 시설이야말로「驛」은 간단히 기능을 담는 상자가 아니다. 아무리해도 없어지지 않는 강함과, 도시의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가진 공간이고 싶다. 「시부야역」,「우에노게역」이 그런 모양으로 동경의 미래에 참고나갈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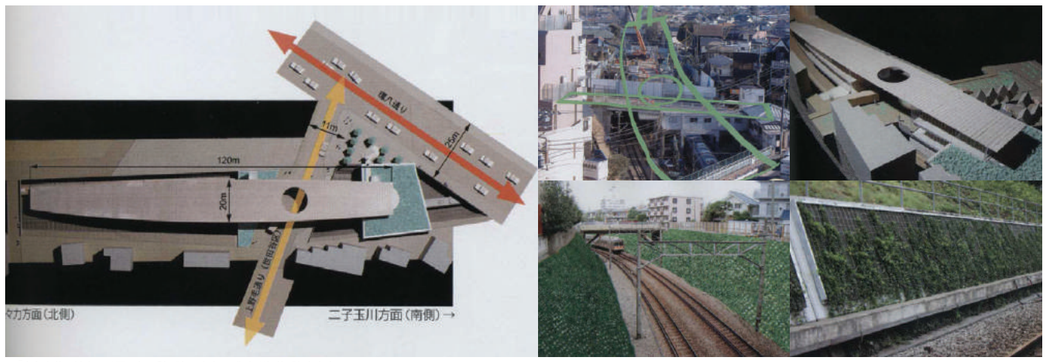
• 「中之島 프로젝트2 지층공간, urban egg」의 모형



• 「東急東橫線 시부야역」의 단면모형



• 「東急東橫線 시부야역」의 단면도



• 「東急大井町線上野毛驛」의 모형, 안도씨의 스케치, 법면녹화이미지